

2017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주제별 기획발굴 지원-학술세미나 개최  
성과공유집

경기북부에서  
전통문화를 발굴·기록하고  
전승하는 방식 :

# 경기북부 마을찾기와 이해

2017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일러두기

이 성과집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2017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통문화 주제별 기획발굴지원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엮은 것이다.

2017년 9월~11월에 경기북부 6개 문화원에서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이를 장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12.12.~13일, 양주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경기북부에서 전통문화를  
발굴·기록하고 전승하는 방식:

## 경기북부 마을찾기와 이해

경기북부는 남부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같고도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선, 자연·지리적인 환경이 그러하고 역사·문화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사회 구성원간의 조직체계 마을 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전승 문화 양상에서도 그 ‘같고 다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획일화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 군사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개발이 늦어졌던 만큼, 그 만큼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 곳이 경기북부지역이지 싶습니다.

이 와중에 제일 먼저 ‘마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토박이들도 이미 이런저런 이유에서 마을을 떠나고, 그래서 전통마을문화도 더 이상 전승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북부 문화원 사무국장님들과 뜻을 모아 각 문화원별로 먼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마을’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짚어보면서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열의와 그 간 소홀했음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공감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다 같이 모여 금년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문화원별 학술세미나에서 공통주제로 기획한 ‘마을’에 대한 발표를 모은 ‘공동 학술발표’와 ‘마을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고민의 원천을 이해하고 ‘집담회’로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준 경기북부 문화원 사무국장님들과 기꺼이 조사와 발표를 맡아주신 향토문화연구소장님들 고양의 젊은 마을 활동가들, 여러분께 이 크고 오래 전승될 게 분명한 성과와 그 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오래,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 12.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프로그램 일정표

### I . 특강

- 마을과 마을문화 가치의 재발견 7  
임재해 교수 / 전)안동대학교 교수

### II . 마을 발표 39

#### 1부

1. 구리시 마을문화자원 전승 현황 40  
박명섭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2.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는\_고양 진발마을 47  
한진수 / 고양신문 국장
3. 동막이 추억 가득한\_고양 노루뫼마을 이야기 58  
이옥석 / 고양신문 기자

#### 2부

1. 연천의 마을전통 민속놀이 72  
이준용 /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2. 의정부 귀락마을 86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3. 개발에 묻혀버릴 아기장사의 전설\_고양 수역이마을 128  
이난숙 / 내일신문 리포터

#### 3부

1. 동두천 탑동마을의 문화유적 발굴·복원연구 140  
이명수 /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2. 포천 틀뫼이마을 동해세우기 160  
최창근 /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3.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 역사 문화적 가치  
마지막 도시어부가 있는\_고양 행주동 나루터마을 186  
송예진 / 프리랜서 작가

### III . 부록 : 학술세미나 개최 현장 기록 203



## 프로그램 진행일정표

12월 12일(화) / 1일차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등록	13:30~14:00	30	등록 및 접수, 숙소 배치	
개회	14:00~14:10	10	개회 및 행사안내	
I 부 발표	14:10~14:55	45	1. 구리시 마을문화자원 전승 현황 박명섭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2.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는_고양 진발마을 한진수 / 고양신문 국장 3. 동막이 추억 가득한_고양 노루뎃마을 이야기 이옥석 / 고양신문 기자	사회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14:55~15:10	15	질의응답	
	15:10~15:20	10	휴 식	
특강	15:20~17:20	120	주제 : 마을과 마을문화 가치의 재발견	
	17:20~17:30	10	휴 식	
1차 집담회	17:30~19:30	120	질의응답과 토론/브레인라이팅 진행	
	19:30~20:30	60	석 식	
2차 집담회	20:30~21:30	60	자유토론	

12월 13일(수) / 2일차

구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07:30~08:30	60	조식 및 자유 시간	
Ⅱ부 발표	08:30~09:15	45	1. 연천의 마을전통 민속놀이 이준용 /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2. 의정부 귀락마을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3. 개발에 묻혀버릴 아기장사의 전설_고양 수역이마을 이난숙 / 내일신문 리포터	사회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09:15~09:30	15	질의응답	
	09:30~09:40	10	휴 식	
Ⅲ부 발표	9:40~10:25	45	1. 동두천 탑동마을의 문화유적 발굴 복원연구 이명수 /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2. 포천 틀뭇이마을 동해세우기 최창근 /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3.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 역사 문화적 가치 마지막 도시어부가 있는_고양 행주동 나루터마을 송예진 / 프리랜서 작가	사회  류연일 (고양문화원 사무국장)
	10:25~10:40	15	질의응답	
	10:40~10:50	10	휴 식	
마무리	10:50~11:50	60	브레인라이팅 결과 공유	
	11:50~12:00	10	마무리 및 폐회	
	12:00~13:00	60	점심식사 및 해산	

문의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김지옥 / 031-876-5843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I 특 강

마을과 마을문화 가치의 재발견  
임재해 교수 / 전)안동대학교 교수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Northern Cultural Agency

# 마을과 마을문화 가치의 재발견

임재해 / 전)안동대학교 교수

## 1. 미래문화로서 마을문화의 가치 인식

마을문화는 ‘오래된 미래문화’로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문화로 전망된다. 마을은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로서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 자족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다.

마을에 대한 가치 인식은 도시와 견주어 이해할 때 더 잘 드러난다. ‘모든 도시사회는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도시 없는 농촌사회는 지속 가능하지만, 농촌 없는 도시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다.’ 도시는 자급자족 체계가 아니라 수탈 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필요한 것을 도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일췌인데, 사실은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농촌에서 공급한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깨끗한 물과 싱싱한 먹거리는 물론 맑은 공기까지 시골에서 제공한다.

농촌이 1차 산업을 담당하며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도시는 생존할 수 없다. 도시의 2차, 3차 산업은 1차 산업의 튼튼한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도시에서 끊임없이 배출되는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하는 것도 농촌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더러워진 공기를 맑은 공기로 정화시켜 주는 구실도 농촌이 감당한다. 따라서 마을은 도시를 지탱하는 곳간이자 텃밭이며, 도시를 신선하게 만드는 허파이자 오아시스이다.

모든 도시사회는 농촌사회라고 하는 넓고 깊은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이나 다름없다. 선박이 순조롭게 항해하려면 바다가 넓고 깊어야 할 뿐 아니라 안정되어야 한다. 바다가 요동치면 배의 안전운행이 위협받는 것처럼, 농촌이 안정되지 않고 요동치면 도시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sup>1)</sup>

농촌이 건강하게 살아 있지 못하면 도시 또한 병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는 농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마을공동체의 삶을 본받아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

1) 임재해, 「농촌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방향 구상과 실천 과제」, 『韓國民俗學』 33, 한국민속학회, 2001, 287쪽.

실제로 마을에는 경찰관이 없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교통신호등이 없어도 질서가 순조롭게 유지되며, 보험회사가 없어도 상부상조의 공동체생활이 안정을 이룬다. 마을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고 노숙자도 없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도 없다.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노래를 부르며 문화생산 주권을 누리다가 하면, 마을곳과 공동체놀이를 여가생활을 즐기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각종 의례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아 왔다.

간디는 도시가 마을을 지배하고 고갈시키는 탓에 마을이 붕괴된다고 경고하며, ‘마을의 착취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판단하고 비폭력적 마을자치 운동을 벌였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마을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문제이다. 마을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도시도 안전한 까닭이다. 마을이 살아 있다는 것은 국토를 넓게 활용하는 것이자 도시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도시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농촌을 지키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간디는 “만일 마을이 멸망한다면 인도도 멸망할 것”이라고<sup>2)</sup> 주장하며 마을자치를 통해 인류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미래세계의 희망은, 아무런 강제와 무력이 없고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로운 협력적 마을에 있다’고<sup>3)</sup> 여긴 까닭이다. 그러므로 고담준론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세계 속에서 미래문화의 가치를 포착하기로 한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압축파일처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사람들은 일하고 놀고 빌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 생활세계를 분절적으로 나타내면 일과 놀이, 굿, 이바지로서 구분할 수 있다. 마을문화를 중심으로 달리 말하면, 일 년 동안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사활동, 일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 놀이활동, 그리고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활동이 생활세계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고 놀고 비는 활동으로서 노동과 유희, 제의 못지않게,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활세계 속에서 제쳐놓을 수 없다. 모든 활동은 살아간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생명활동이자 사회적 활동이다. 살아가

2) 마하트마 간디, 김태언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 2006, 59쪽.

3) 마하트마 간디, 김태언 옮김, 위의 책, 19쪽.

4) 임재해, 「민속문화에 갈무리된 제의의 정체성과 문화창조력」,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6쪽.

는 활동의 마지막 지점은 죽음이다. 따라서 마지막 지점을 두고 말하면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활동 자체가 중요하므로 한결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생명활동을 넘어서서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 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명활동에 머물지 않고 일생 동안 사회적 의례를 거치는 가운데 거기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거치는 기본적인 의례를 우리는 ‘통과의례’ 또는 더 구체적으로 ‘일생의례’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활세계는 크게 노동활동과 유희활동, 제의활동, 의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생활세계를 민중의 처지에서 일반화하면 일과 놀이, 굿, 이바지(또는 잔치)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변별되는 문화 양식은 마을 공동체문화를 이루는 네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네 가지 생활양식을 근거로 마을문화의 공유가치를 차례로 주목해 본다.

## 2. 일 공동체 – 토지 사유화와 일자리 공유의 두레

지금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당면과제가 둘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교육이고 둘은 경제이다. 교육정책과 경제정책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교육과 경제는 서로 다른 분야이다. 교육은 인격양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고 경제는 소득을 올리고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어서 서로 맞서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자와 학생이 주는 인상과, 경제를 상징하는 자본가와 장사꾼이 주는 인상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만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교육과 경제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까. 국민적 관심이 교육과 경제로 갈라져 있는 탓인가. 아니다. 교육도 결국 경제로 연결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크게 보면 교육도 경제 문제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히 ‘경제’ 대통령이 문제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sup>5)</sup> 교육문제로 대학과 정부 당국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국민들까지 학부형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도 ‘교육’ 대통령은 관심거리가 아니다. 교육도 결국 경제에 종속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사람들은 교육이 훌륭한 인격을 양성하거나 학문을 하는 활동이라고 여기지 않은 지 제법 되었다. 교육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더 좋은 일자리가 경제생활을 보장한다고 믿

5)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서 선거에 승리했다.

는 까닭이다. 따라서 결국 너도나도 일자리 창출이 과제이고, 대학도 학문활동은 뒷전인 채 취업률 올리는 것이 과제이다. 학생들을 학자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기르는 것이 더 긴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의 지성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과 회사가 대학을 길들여가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곧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와 교육이 같은 관심 속에 있는 것이다.

부자라야 교육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야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부자가 된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교육의 목적이 훌륭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 곧 부자가 되는 것으로 바뀐 셈이다.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좋은 일자리, 넉넉한 경제생활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뒤엉켜 있다. 자연히 좋은 일자리는 곧 사회적 지체를 보장하고 경제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까닭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학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학력을 속이고 학위를 조작하여 학계는 물론, 지성계와 연예계에 물의를 빚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비정규직이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사실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이 더 자유로운 데도 말이다. 한 마디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터가 없는 것이 낭패다. 일자리가 마치 밥줄 노릇을 한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장가조차 들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적 척도와 사회적 안정은 실업률로 평가된다. 산업사회로 진전될수록 실업률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일을 공유하는 까닭이다. 오히려 일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이지, 일자리나 일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하지만 일은 두레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이다. 두레는 농업노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공유하는 공동노동 조직이다. 물론 길쌈두레도 있고 물레두레도 있지만 크게 보면 농업노동의 범주 속에 귀속된다.

마을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조직화하고 집약시켜서 노동 능률을 올리는 것이 두레이다. 두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독점하지 않는다. 일감도 공유하며 일터도 공유하는 까닭에 마을사람들 가운데 일이 없어 노는 사람이 없다. 마을에서 일이란 곧 농사일을 말한다. 농사일은 땅에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땅 곧 토지가 일터이자 일자리이다. 논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마을사람들의 일상적 관행이다. 농사일을 하는 마을사람들을 일꾼 또는 농부, 농민, 농군이라 일컫는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농민이자 일꾼이다. 본격적인 노동력을 갖춘 성인들에 한정되는 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거들만한 일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의 주체로 끌어들여도 좋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두레는 주로 논매기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레는 김매기나 논농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삼농사와 삼굿, 길쌈, 물레, 풀베기,<sup>6)</sup> 상두계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노동을 함으로써 두레의 면모를 보인다. 모내기를 할 때 품앗이도 공동노동의 한 양식이다. 개별적인 노동력 교환형태인 품앗이도 사실상 작은 두레 구실을 한다. 품앗이 하는 사람들끼리 노동력 교환을 통해서 노동력을 사실상 공유하는 까닭이다.

어찌 보면, 농가 중심의 품앗이 조직이 마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이 두레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안에서도 대동이 함께 하는 큰 두레와 이웃끼리 하는 작은 두레가 있다. 품앗이 두레를 작은 두레라고도 한다.<sup>7)</sup> 일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직의 공동노동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노동양식은 노동력을 공유하고 집약화하여 노동능률을 올리는 구실을 했다. 따라서 반드시 일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휴식과 놀이, 배식(配食), 제의도 함께 했다. 그러므로 두레는 공동모임, 공동노동, 공동놀이의 세 요소를<sup>8)</sup> 넘어선다.

두레굿이 공동제의에 해당된다면, 함께 먹는 끼니와 참도 공동배식이라 할 수 있다. 공동배식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두레꾼들은 차별 없이 참과 끼니를 먹는다. 평소와 달리 음식의 질과 양이 모두 균등하다는 말이다. 같은 질의 음식을 같은 조건에서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배식은 음식의 공유를 보장한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밥 한술을 뜨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권하는 것이 인정이다.

공동노동 조직에서는 공동놀이와 공동휴식도 소중한 것이다. 두레는 공동휴식과 공동놀이를 보장한다. 그런데 요즘 직장은 그렇지 않다. 일자리의 지위에 따라 일의 내용도 다르고 쉬는 시간도 다르다. 아랫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휴식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조차 차별 받는 경우가 많다.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 야근을 하거나 잔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있는가 하면, 출근 날인만 하고 하루 종일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놀이는 휴식보다 더 불공평하다. 일터에서 공동놀이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년에 몇 차례 야외회나 공적인 행사 외에 직장에서 공동놀이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놀이의 기회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두레에서는 일의 시작과 끝, 휴식을 공동으로 한다. 풍물을 앞세워 길놀이를 하거나 농요를 부르며 신명풀이를 즐기는 놀이도 한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큰 농가의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왜지나칭칭을 부르며 한참

6) 주강현, 『한국의 두레』 1, 집문당, 1997, 110~111쪽에는 두레의 유형을 일감에 따라 크게 농사 두레와 길쌈두레로 나누었다.

7) 주강현, 위의 책, 114쪽.

8) 주강현, 위의 책, 109쪽. “두레는 공동모임·공동노동·공동놀이의 삼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말뜻을 지닌다.”



놀이판을 벌여 일에 찌들린 몸과 마음을 풀어버린다. 두레꾼들끼리 휴식에 차이가 있거나 놀이를 차별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휴식과 공동놀이는 공동노동이나 공동배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두레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놀며 함께 굿을 한다.

놀이판을 벌이고 굿을 하려면 풍물이 필수적이다. 두레에는 반드시 풍물이 있다. 두레굿은 곧 풍물굿을 뜻한다. 풍물이 없는 두레는 제대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풍물 없는 두레는 ‘병어리두레, 품앗이두레, 소리 없는 두레, 작은 두레’라고 한다.<sup>9)</sup> 두레풍물은 일과 더불어 놀이와 굿을 가능하게 만든다. 두레풍물은 일꾼들이 일터에서 치는 놀이이자 제의로서 두레굿이다. 두레굿은 제의적 의식 없이 풍물을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제대로 굿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논둑에 농기를 세우고 풍물을 칠 때에 술을 뿌려서 농신에게 간단한 제의를 바친다.’<sup>10)</sup> 서낭신을 모신 당산에 가서도 굿을 친다. 두레꾼들이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도 당산에 가서 들당산굿을 치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올 때도 당산에 들러 날당산굿을 친다.<sup>11)</sup> 마을의 풍요를 비는 당산굿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는 현대종교처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따라 은총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되는 것이다. 두레는 신앙공동체 구실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두레굿패들이 교회의 목사이자 사찰의 승려와 같이, 두레성원들이 기대하는 소망을 대신 빌어주는 까닭이다. 따라서 두레는 신앙공동체로서 두레꾼들의 신앙활동까지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두레는 일터와 일자리, 노동력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놀이, 음식과 향연, 신앙생활까지 서로 대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 자기 토지의 소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거기서 수확되는 소득도 사적으로 소유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농사일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노동력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두레는 일손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손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독점해서 문제되는 일도 없으려니와, 일손이 전혀 없는 특수한 농가의 경우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폐농하는 일은 없다.

공동노동을 하는 까닭에 자기 논이 모만 잘 자라길 기대하며 일을 하거나, 자기 농사만 잘 되기를 기대하며 빌지 않는다. 노동력 공유의 두레노동은 자기 땅과 남의 땅, 내 농작물과 남의 농작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누구 땅인가 상관없이 늘 같은 양과 질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까닭이다. 노동력 투

9) 주강현, 같은 책, 114쪽.

10) 주강현, 「마을공동체와 마을굿·두레굿 연구」, 『민족과 굿』, 학민사, 1987, 78쪽.

11) 이보형, 「마을굿과 두레굿의 의식구성」, 『노동과 굿』, 학민사, 1989, 90쪽.

입이나 수확의 양을 두고 토지 소유에 따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자연히 두레곳에서도 공동체 전체의 풍요를 빌게 되는 것이다.

마을에서 가장 큰 일인 논농사나 길쌈, 상여 운구 등에만 공동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을의 길 닦기나 다리 놓기, 동사 짓기 등 공동체의 복지에 관한 일에도 두레와 같이 공동노동으로 해결한다. 마을에서 날이 정해지면,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 공동노동을 한다. 장성한 아들이 없는 과부댁에는 물론 노동력 제공에서 면제가 된다.

이 밖에도 유희 노동력을 무상으로 공유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문화적 장치들이 많다. 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다질 때, 마을의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큰 바위를 들어 올렸다 놓으면서 집터 다지기를 하는데, 품삯을 받지 않고 공동으로 한다. 밤에 쉴 틈을 이용하여 놀이처럼 일을 거들어 주는 관행이다. 마을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셈이다.

집터 다지기처럼 개별노동이나 가족노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공동노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랜 풍속이다. 이엉을 엮어 지붕을 이거나 기와를 이기 위하여 옷살미를 할 때도 마을 어른들이 함께 거든다. 때로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하여 이웃끼리 의논하여 밤새 도둑집을<sup>12)</sup> 지어주기까지 한다. 주민들이 공동체 성원으로서 이웃 일을 곧 자기 일로 생각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노동력 공유 관행은 상당히 다양하다. ‘남의 집에 베 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도투마리 한 번은 감아주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 속곳 벗고 죽는다.’고 한다.<sup>13)</sup> 그러니 베 매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일손을 거들어 주는 문화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을 거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공유하는 장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과 기술이 다양하다. 의사와 산파, 약대, 점쟁이, 일관 등 병이 나면 치료해 줄 사람, 아기를 받아줄 산파, 낱을 잡아주는 일관 어른,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빌어주는 사람, 잔치가 있을 때 풍물을 쳐주는 풍물재비, 혼례식에 흥기를 불러줄 어른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마을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일을 청할 수 있다. 그 일만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한 사람 손을 따주었다고 하여 돈을 받거나, 이웃집 할머니가 아기를 받아주었다고 사례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고맙다는 인사말이나 소박하게 인정을 나누면 그만이다.

12) 임재해, 『민속마을 하회여행』, 도서출판 밀알, 1994, 134~135쪽 참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집 없는 사람에게 며칠만에 지어 주는 집인데, 주로 담틀을 이용한 토담집이다. ‘도둑집’이라는 말은 마치 도둑이 들 듯 새 집이 마을에 순식간에 들어선 것을 빗대어 일컫는 것이다.

13) 임재해, 『베 매는 풍속과 새 전통』, 『까치구멍집 많고 도둑없는 집』, 한국학술정보, 2002, 547~548쪽.

그리고 보면 마을에서 필요한 일의 총량 가운데 개별 노동으로 가능한 일은 개별적으로 모두 충족하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사람들이 공동노동으로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특수한 일에서 예사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까지, 농번기의 정기적 공동노동에서 특수한 상황의 일시적 공동노동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노동력은 융통성 있게 공유된다. 일손이 부족해서 문제되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되는 일을 크게 줄이며 노동력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두레와 같은 공동체노동이 가능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회에서도 재산의 사적 소유는 인정하면서도 일자리와 노동력을 독점하지 말고 일자리와 노동력을 융통성 있게 공유하는 두레노동의 체계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 3. 놀이 공동체 - 놀이시설의 무상공유와 기회균등

지금 우리 사회는 일보다 놀이가 더 문제이다. 놀이를 잘못하여 온갖 범죄가 일어난다. 향락이 지나쳐서 도처에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고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한다. 일을 잘못해서 신세를 망치는 경우보다 놀이를 잘못해서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 한때 정부를 요동치게 했던 ‘바다이야기’도 놀이와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모두 놀이와 연관되어 벌어지는 사회적 부작용이다. 건강한 놀이 문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놀이의 수준이 사회적 문화수준을 결정한다.

화려한 놀이터와 대단한 규모의 놀이시설, 값비싼 전자놀이감, 무시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향락사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놀이를 수단으로 먹고사는 사람과 가게, 업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다. 놀이기구를 팔고, 놀이시설을 제공하며, 놀이터를 운영하는 각종 놀이산업이 도시의 가장 변화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공간을 아무나 범접할 수 없다. 경제적 여유와 여가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용 가능하다. 모두 돈을 들여야 즐기거나 누릴 수 있는 까닭에 경제적 수준과 여가생활의 여유에 따라 천차만별의 놀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일터와 일자리 못지않게 놀이터와 놀이 수준이 사람차별을 더 극심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에서는 놀이를 공유한다. 놀이터도 공유하고 놀이기구나 시설도 공유하며, 놀이시기조차 공유한다. 마을에서 놀이터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집집마다 마당이 놀이터를 제공하고, 골목도 놀이터 구실을 한다. 마을 동구목이나 당산목 아래가 중요한 놀이터이다. 마을 앞의 개울은 여름철 물 놀이터이며, 마을 쭈도 여름철 놀이터로서 시원한 정자 구실을 한다. 어느 것도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마을사람들

이라면 누구나 또래끼리 공유하는 공간이다.

마을광장이나 제방이 여름철 놀이터라면, 텃밭이나 텃논은 겨울철 놀이터이다. 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데 차별이 있거나 경비가 들지 않는다. 누구나 또래끼리 점유해서 놀 수 있는 열린 놀이터이다. 마당 없는 집이 없듯이 동네 놀이터 없는 동네가 없다. 놀이터에 접근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없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놀이공간들이다.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집과 마을에서 자급자족된다. 흙이나 돌맹이, 막대기, 풀잎, 사금파리, 새끼줄 등의 자연물과 주변의 사물에서부터, 팽이, 딱지, 제기, 연, 썰매, 널, 그네, 줄, 동채 등의 제작된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은 없다. 모두 제 손으로 또는 공동으로 만들어서 놀 수 있는 놀이감이다. 흙도 다양하다. 강가의 모래흙은 모래흙대로 두꺼비 집짓기 놀이감이며, 산기슭의 진흙은 진흙대로 공작품을 만드는 놀이감이다.

어른들이 공동놀이에 쓰는 대형 놀이도구들도 구입하는 법이 없다. 모두 자급자족한다. 동채나 쇠머리, 줄당기기 줄, 그네 등 한결같이 마을사람들끼리 모여서 직접 만든다. 재료도 공동으로 추렴하여 충족한다. 동채를 만들고 줄을 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놀이이자 의식이다. 따라서 어느 것이든 사적 소유란 없다. 아이들 가운데 팽이나 딱지, 썰매 정도를 사적으로 소유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거나 또는 딱지를 많이 따서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을에는 상품화된 장난감은 물론 장난감을 파는 가게조차 없다.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놀이기구도 공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독점하지 않고 구입해서 공유하는 것이다. 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풍물이다. 풍물은 제법 값이 나가는 기물이다. 그렇지만 풍물과 풍물굿 관련 비품들을 마을 경비로 마련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자라도 풍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즐기는 것이 풍물인 까닭이다. 또 어떤 마을이라도 풍물이 없는 마을이 없을 만큼 마을공동체에서 풍물은 필수적 공동악기이자 마을재산이었다. 마을 유사가 공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전통마을의 음악문화와 놀이문화는 요즘의 도시 수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도시이자 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자. 동네마다 공동악기가 갖추어져 있는가? 공동악기가 갖추어져 있다면 동네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연주할 역량은 있는가? 아니 회갑잔치나 혼인잔치 또는 대보름 명절에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가 있기는 한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동네 악기를 공적으로 마련해 주어도 동민들의 저마다 악기를 연주

할 능력도 없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네잔치를 벌일 만한 문화적 전통도 상실하고 말았다. 서울의 동네문화가 시골의 마을문화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악기를 연주하며 즐기는 음악문화는 시골 마을이 더 낫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아이들 장난감들은 모두 상품화되어 있어서 경제력에 따라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새롭고 값비싼 놀이기구들이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어서 늘 소유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 장난감도 만만찮게 비쌀 뿐 아니라, 성인들의 놀이기구는 어지간한 봉급생활자들은 손쉽게 구입하기 벅찰 정도이다. 볼링장이나 골프장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값비싼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끼니를 거르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화려한 장난감들은 그림의 떡이다.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은 물론 놀이감까지 모두 상품화되어 버린 까닭이다.

놀이시간도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 봉급생활자가 아닌 부유층들은 놀이기회가 무한하게 열려 있다. 언제든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빈곤층들에게는 공휴일도 휴가도 없다. 주 5일제는커녕 일요일조차 쉬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한 까닭이다. 출퇴근 시간조차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놀이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없다. 놀이회의 불평등이 놀이수준의 불평등 못지않게 심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마을문화에서 놀이시간은 널리 공유된다. 연중 세시풍속에 따라 놀이시간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은 물론 놀이유형까지 평등하게 공유한다. 안동사람들은 설과 대보름에는 닛새를 놀고 단오에는 사흘을 놀았다. 명절에 노는 날짜는 마을사람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다. 대보름의 줄당기기나 동채싸움, 뚝다리밟기, 단오의 그네나 씨름 등 놀이 종목까지 한결같다. 줄당기기에 참여하는 데 빈부 차나 신분 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채싸움이나 강강술래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힘깨나 쓰는 일꾼이나 머슴들이 더 큰 역할을 한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강강술래 앞소리꾼 노릇을 한다. 능력껏 놀이의 주체 구실을 하는 것이다.

단오놀이인 그네나 씨름도 민주적으로 공유한다. 그네가 사유화되어 있고 씨름터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나무에 공동으로 그네를 매고 마을 쭈에다 함께 씨름판을 벌인다. 비록 사유지에다 그네를 매거나 씨름판을 벌여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을사람 모두의 놀이기구이자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네 잘 타는 사람, 씨름 잘 하는 사람이 주체이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체에 따라 놀이를 독점하는 법이 없다. 남녀의 성별에 따라 놀이의 차이가 있긴 하나 놀이의 차별은 없다. 그러

므로 마을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놀이를 평등하게 즐기는 아름다운 놀이문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 놀이도 민주적이다. 왕따가 없다. 같은 또래라면 누구든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숨바꼭질 할 사람 요요 붙어라”하고 엄지손가락을 펴들고 있으면, 누구든 자유의사에 따라 거기에 붙어서 놀이에 동참이 가능하다. 더러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하는 경우에 짝이 맞지 않으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다가 친구가 한 사람 더 오면 짝을 맞추어 놀이에 참여한다. 기다리기 싫으면 짝을 이룰 친구를 찾아서 데려오면 된다. 놀이 도중에도 얼마든지 새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아예 짝이 생길 가능성이 없을 때는 기다리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약한 편에 혼자 남은 친구를 들어가게 하여 균형도 맞추고 소외되는 친구도 없도록 한다.

편을 가를 때도 일방적으로 가르지 않고 서로 힘이나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편을 가른다. 누가 어느 편에 갈지 알 수 없다. 힘이 센 몇 사람이 조작하여 자기편을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 독점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한 마디로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놀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놀이든 마을 또래들끼리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균형을 보장하게 된다. 별도로 심판을 두지 않아도 승부를 가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시사회는 대부분의 놀이공간이 상업화되어 있다. 놀이기구나 놀이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아이들에게는 아예 놀이터가 없어서 문제이다. 마을공동체의 놀이문화를 보기로, 마을단위로 놀이터와 놀이공간, 놀이기구, 놀이감을 무상으로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놀이기회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더 자상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일이자 사회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경우도 일자리와 지위에 따라 일의 내용에는 차이가 나더라도 놀이만은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민주적인 문화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러자면 상업적인 놀이문화를 공적인 공동체놀이 문화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훌륭한 보기가 마을공동체의 놀이문화이다.

#### 4. 굿 공동체 - 서낭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공유

종교 없는 사회는 있는가? 정치적 억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사회는 어느 사회든 종교가 있다. 다만 종교의 체계와 조직, 수준, 신앙의 밀도 등이 사회에 따라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서로 다른 종



교를 믿을 뿐 종교 없는 사회는 없다는 말이다. 종교야말로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규정지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없는 사회는 있는가 하는 질문은 곧 문화 없는 사회는 있는가 하는 질문이나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사회를 이루는 한 그 안에는 어떤 식이든 문화가 존재하게 마련이듯이 종교도 존재하게 마련이다.

종교는 문명종교와 민속종교, 원시종교로 분별되고 분과학문에서 기울이는 관심도 다르다. 인류학에서는 원시종교(primitive religion), 종교학에서는 기성종교(civilized religion), 민속학에서는 민속종교(folk religion)를 주 대상으로 연구한다.<sup>14)</sup> 원시사회에도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전통마을에서도 전승되는 토착종교가 있다. 마을에서 전승되는 종교는 민속종교에 해당된다. 학계에서는 주로 민속신앙이라 한다.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기반으로 한다. 신앙생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제의이자 굿이다. 굿은 우리 민속신앙의 전형적인 제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노래와 춤으로 신을 즐겁게 하는 ‘가무오신(歌舞娛神)’ 형식의 제의를 특히 굿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축문을 읽고 헌작을 하여 신을 섬기는 ‘독축고사(讀祝告祀)’ 형식의 제의는 ‘제사’ 또는 ‘고사’라고 한다. 굿이 무교문화의 전통을 지닌 제의라면, 상대적으로 제사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닌 제의이다.

마을사람들은 일공동체이자 놀이공동체이듯이 신앙공동체라 할 수도 있다.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을 함께 섬기는 까닭이다. 마을 수호신을 동신 또는 서낭, 서낭신이라고 한다. 서낭신은 당나무나 동신당 또는 누석단에 깃들여 있으면서 마을을 지켜주고 경제적 풍요를 보장해 주는 구실을 한다. 서낭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마을을 처음 개척한 입향시조신으로서 지역신이자 공간신의 의미를 지니고, 둘은 마을과 마을사람, 마을의 살림살이를 두루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공동체신이자 생업신이기도 하다.

서낭신은 마을을 세운 시조신이라는 점에서 고조선의 단군과 같으며, 마을의 모든 문제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마을사람들의 하느님이나 다름없다. 마을의 당나무는 환웅이 깃들여 있던 신단수 구실을 하며, 서낭당은 주민들의 신앙생활 공간인 동네 사원이나 교회 구실을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정월 대보름이나 사월 초파일 또는 5월 단오와 같은 명절에 정기적으로 서낭당에 제의를 올린다. 서낭신을 섬기는 하회마을 산주의 신앙생활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매달 초하루 보름마다 서낭신에게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14) John, C. Messenger, 'Folk Religion', Richard M. Dorson ed., *Folklore and Folklif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217~218쪽 참고.

그러므로 마을사람들은 정기적인 마을굿 또는 동제를 통해서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보장받는 셈이다.

마을에 따라서 독축고사 형식의 동제를 올리는가 하면, 풍물재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무오신 형식의 마을굿을 하기도 한다. 마을굿이 동제보다 더 이른 시기에 형성된 본디 제의 양식으로 짐작된다. 마을굿에서 동제로 양식적인 변화를 거쳤으되, 여전히 풍물재비들의 가무오신 전통은 다양하게 남아 있다. 마을굿이 흥한 마을에서는 풍물패를 아예 ‘굿패’라고 하고 또 풍물 연주를 ‘굿 친다’라고 한다. 동제 때 풍물굿의 참여가 잦아진 경우에도, 동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초에 걸립풍물을 친다. 동제를 마치고 파젯날 음복을 하며 대동회를 개최한 뒤에 본격적인 집돌이 풍물굿을 하게 된다. 이른바 지신밟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신밟기는 마을굿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공유 기능을 발휘한다. 첫째, 지신밟기는 집돌이 풍물굿으로서 굿패들이 서낭신을 모시고 집집마다 찾아오는 까닭에 서낭대 앞에 상을 차리고 직접 제의를 올리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동제는 제관 외의 마을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제의인데, 지신밟기는 마을사람들을 모두 주체로 끌어들이는 공동체굿의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제의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제관 중심의 간접 제의의 한계를 극복해 줄 뿐 아니라, 주민들을 동제의 주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째, 주민들을 제의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낭신이 직접 집을 찾아와서 잡귀잡신을 몰아내고 복을 빌어준다는 사실이다.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신이 서낭당을 떠나서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인데, 서낭신과 더불어 풍물패들이 집안의 지신을 밟아주는 집안굿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마을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활동의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제보다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신밟기가 마을굿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신밟기를 통해서 동신신앙이 발휘하는 사회적 통합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풍물재비들이 서낭신을 받들고 집돌이 지신밟기를 하는 것은 동제의 제의적 상징성이 지닌 공동체의식을 넘어서서, 서낭신을 구심점으로 마을을 이루는 집들을 대등한 성원으로 묶어 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풍물패들이 먼저 당굿으로 시작하여 마을을 돌면서 샘굿을 친 다음 가가호호 방문하여 집돌이굿을 모두 마치면, 다시 당굿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sup>15)</sup> 이러한 집돌이 방식이 동신을 중심으로 마을의 모든 집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꿰어주는 까닭이다.

집돌이 풍물굿으로서 지신밟기 구조는 마을굿의 한 부분이면서, 마을굿

15) 김인우, 「풍물굿과 공동체적 신명」, 『노동과 굿』, 학민사, 134~135쪽에 지신밟기의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나 동제 구조와 일치하는 동시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신밟기의 구조와도 만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먼저 전체 마을굿이나 동제의 순서를 보면, ‘당굿-집돌이-당굿’ 또는 ‘당굿-집돌이’의 마을굿형이 있는가 하면, ‘당제-집돌이-당제’ 또는 ‘당제-집돌이’의 동제형이 있다.<sup>16)</sup> 하회별신굿을 고려할 때, 마을굿의 기본형은 서낭당에서 서낭신에게 먼저 제의를 올리고 신내림을 받아서 집돌이를 한 다음, 다시 서낭신을 서낭당에 모시는 제의를 올리는 것이다.<sup>17)</sup> 그러므로 마을굿의 구조가 사실상 집돌이 지신밟기 구조와 다르지 않다.

마치 지신밟기를 하면서 당굿을 시작으로 ‘가가호호 집돌이’를 하듯이, 집을 찾아가서도 문굿을 시작으로 마당굿-조왕굿-터주굿-성주굿-마당굿의 순서로<sup>18)</sup> 집구석의 가신을 일일이 챙기며 도는 ‘집안돌이’를 한다.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을 일일이 찾아서 굿을 쳐준다는 점에서, 마을의 집돌이와 집의 집안돌이 방식이 일치한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을 도는 것처럼 지신밟기에서도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집안을 도는 것이 마치 자동자기복제의 논리에 의한 프렉탈(fractal)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마을 단위의 집돌이 지신밟기가 마을주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동중대회’ 구실을 한다면, 집 단위의 집안돌이 지신밟기는 한 집안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는 ‘가중대회(家中大會)’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국중대회와 동중대회처럼, 가중대회는 한바탕 떠들썩한 집안굿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신신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지신밟기는 마을굿의 한 양식이면서 동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동중대회’와 함께 ‘가중대회’의 기능까지 보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굿은 동신신앙으로서 마을공동체 전체의 복록을 추구하는 종교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집집마다 주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빌어주며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굿을 좌도로 모는 유교문화의 오랜 핏박 속에서도 동신신앙의 전통이 최근까지 지속되었으며, 반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반촌 양반들도 민중들의 마을굿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마침내 종래와 같은 반상의 신분체제가 무너지자, 오히려 양반들이 나서서 하배들의 마을굿을 적극 끌어안고 서낭신앙의 주체 구실을 하기도 한다.<sup>19)</sup> 그것은 마치 조선왕조가 억불숭유정책을 쓰면서도 고승들을 국사로 삼았을 뿐 아니라 왕실 사찰까지 별도로 두어 사실상 불교의 종교

16) 이보형, 「신(神)대와 농기(農旗)」, 『노동과 굿』, 학민사, 1989, 110쪽에 마을굿을 ‘당굿형’, ‘당굿-가가순방형’, ‘당굿-가가순방-당굿형’, ‘당굿-가가순방-본제형’으로 나누었다.

17) 임재해, 「하회탈놀이의 연행양상과 낙동강 유역의 탈놀이 전승」, 『한국연극의 쟁점과 새로운 탐구』, 연극과인간, 2001, 176~180쪽에, 하회마을의 별신굿을 검토한 결과 ‘당굿-집돌이-당굿’이 가장 온전한 본디 모습이 아닌가 한다.

18) 이보형, 「마을굿과 두레굿의 의식구성」, 88쪽 참조.

19) 임재해, 「마을 설화의 전승양상과 공동체문화의 함수」, 『口碑文學研究』 20, 한국구비문학회, 35~46쪽에서 현리 양반들의 동신신앙 전승양상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적 기능을 인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조선왕조가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반촌의 양반들도 마을의 서낭신을 섬기는 공동체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반들이 동신신앙을 인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신앙을 유교적 이념이나 양반의 권위로서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마을사회를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판단을 한 까닭이다.

둘은 양반들도 서낭신의 영험과 신이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굿이나 동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마침내 동제를 스스로 맡아서 지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양반들도 서낭신이 마을의 안정과 평안은 물론 자녀 출산과 혼인 및 대학입시 등 가정의 대소사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sup>20)</sup> 오히려 그 동안 하배들에게 동제를 맡겨 놓았던 일을 후회하기까지 한다.

문경의 현리 양반들은 예전에 하배들에게 동제를 맡겨 둔 것을 후회했다. 왜냐하면 동제를 지내면서 자기들 잘 되라고 빌었지 양반들 잘 되라고 빌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양반들도 동신의 영험성을 뒤늦게 믿게 되자, 그 동안 하배들에게 동제를 맡겨 둔 사실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배들을 극도로 의심하고 하배들이 동신에게 비는 내용을 들어봤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누가 뒤에 가서 들어본께(들어보니까) 이래더래요. 그래 저한테 아주 나쁘게 한 사람은 우에든지 그 택으는 썩 떠나그러(떠나도록) 해 달라고 서낭님한테 그렇게 빌더라네.<sup>21)</sup>

결국 하배들이 마을을 떠나서 동제를 채씨들이 지내게 되었지만, 하배들이 더불어 살아도 맡길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양반들도 하배들 이상으로 동신의 영험을 믿게 된 까닭이다. “따라서 하배들의 동신신앙이 마침내 동제를 좌도로 여기던 양반들의 동신신앙으로 완전히 반전”되어, 하배들의 신앙에서 양반들의 신앙으로 상승되기에 이르렀다.<sup>22)</sup>

마을사람들이 일정한 동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반상의 분별없이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을공동체에 중요한가 하는 것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유교문화는 신분차별을 엄격히 했으나, 마을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상부상조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차별을 넘어서서 주민들을

20) 임재해, 앞의 글, 37~40쪽에, 서낭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아들도 낳고 시집도 보냈다는 서낭신의 영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21) 임재해, 「생활사 이야기, 어제와 오늘」, 「민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현리마을」, 한국학술정보, 2003, 711 쪽.

22) 임재해, 위의 글, 44~46쪽 참조.

하나로 묶어주는 동신신앙의 공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신신앙이 마을공동체에서 종교 일반의 목적과 기능을 잘 발휘했기 때문이다. 같은 신을 섬기며 같은 종교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역과 민족, 국경까지 뛰어넘는 결속을 가진다. 이러한 종교의 기능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기독교문명권과 이슬람문명권의 단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 마을이 같은 신을 섬기며 신앙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안정과 평화, 결속에 절대적인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신신앙은 기성종교보다 더 진전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른바 기성종교는 거대 교단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제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성직자의 차별적 지위와 경제적 이권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민중신학이나 민중불교가 별도로 거론될 만큼 계층 간의 갈등까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끊임없이 종교적 교리와 금기를 강요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 지출까지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동신신앙은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신앙으로서 제의의 의무를 지닌 제관은 있되, 특권을 지닌 성직자가 별도로 없으며, 제관의 선출 또한 민주적 합의에 따라 해마다 결정되는 까닭에 독점되는 법도 없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마을신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신앙주권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주권은 신앙의 자유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를 뜻한다. 신앙 또는 종교의 자유는 기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종교를 선택하는 데는 자유이지만 일단 선택하고 나면, 선택한 종교를 신앙하는 데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체제가 끊임없이 특정 신앙행위를 요구하고 신앙생활에 따른 의무와 금품을 강요한다.<sup>23)</sup>

신앙생활이 게을러도 채근 당하고 선교활동도 적극적이지 않으면 비판당한다. 조금만 계율에서 벗어나면 불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다. 자유로운 경전해석도 불가능하다. 기존 해석과 달리 경전을 독창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으로 몰려서 교수도 해직당하고 목사도 파문 당한다.<sup>24)</sup>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보다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의무의 강요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종교의 선택은 자유롭되 신앙활동은 자유롭다고 하기 어렵다.<sup>25)</sup>

*마을민속에서 신앙주권은 이러한 수준의 종교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공동체 성원들이 마을의 동신을 만들고 동신의 정체를 설정하며 동신을 섬기는 제의를 창출하는 주권을 말한다.*<sup>26)</sup>

23) 임재해, 『마을민속 조사연구 방법』, 237쪽.

24) 임재해,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와 민중의 문화주권』, 158쪽.

25) 『마을민속 조사연구 방법』, 237쪽.

26) 위의 책, 같은 곳.

주민들이 스스로 신앙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동신에 대한 신앙활동이 자유롭다. 동신을 절대시하지도 않으며 동신을 믿지 않아도 그만이다. 마을 사람들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동제날짜를 바꿀 수도 있고 동제방식도 달리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동제를 중단하기까지 한다. 누군가 당나무를 훼손해서 서낭신의 별을 받아 병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해도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서낭신의 이름으로 징벌을 가하거나, 이단으로 규정하여 파문시키는 법도 없다.<sup>27)</sup> 위로부터 주어지는 교단종교의 통제가 없는 까닭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열린 구조의 해방신앙이다.

따라서 제관과 같은 사제자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처럼 신도들 위에서 군림하며 신앙활동의 의무를 부여하고 헌금이나 보시를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제에 필요한 경비를 제때 모금해서 쓰고 동제 다음날 즉시 정산하여 보고한다. 게다가 제관은 생기복덕에 따라 누구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성직자이다. 제관은 많은 금기가 따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다. 성직자들끼리 자리다툼을 하는 기성종교와 다르다. 기성종교에서는 사회적 지체나 경제력에 따라 신도회장이 결정되기 예사이다. 동제의 제관이나 축관, 도가 등은 어디까지나 생기복덕에 맞아야 하고 집안에 흥사가 없는 집이어야 한다.

마을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사제자로서 자질과 종교적 조건 외에 신분적 특권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마을 부자들은 마을곳에 따른 경비를 특히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따를 뿐이다. 마을곳을 할 때도 그러려니와, 별신굿을 할 때는 마을이 아예 민중의 해방구가 된다. 하회별신굿은 제의적 반란이라 할 만큼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뒤집어엎고 기존질서와 규범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까닭에 마을을 축제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교단 중심의 선교활동과 기성종교의 신앙생활보다, 오히려 마을 민중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낸 동신신앙과 자발적인 참여의 마을곳 공유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종교문화라 할 수 있다.

서낭신을 섬기는 공동체신앙 외에도 마을에는 종교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다. 길흉사에 따라 날을 잡아주는 일관, 사주와 점을 봐주는 점쟁이, 토정비결로 일년신수를 봐주는 어른, 굿을 맡아주는 무당, 무엇이든 잘 빌어주는 비손할매, 객귀를 잘 물려주는 할매, 묘 터를 잡아주는 풍수 등 마을에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직능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이웃하여 산다. 일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무상으로 일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마을문화는 주민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종교복지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7)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와 민중의 문화주권』, 158쪽.

## 5. 잔치 공동체 – 개인의 의례를 공유하는 마을잔치

사람들은 누구나 나서 자라다가 늙어서 죽는다. 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고비마다 공동체의 승인을 얻는 규범적 의례를 하게 마련이다. 정해진 의례를 거침으로써 마침내 성인이 되고 부부가 되며 노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의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도 일생의례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종교 없는 사회가 없는 것처럼, 의례가 없는 사회도 없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일생의례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그야말로 통과의례인 것이다.

전통사회의 관혼상제는 유교문화의 중요한 의례로서 흔히 4례(四禮)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민중들 사이에서는 관혼상제 못지않게 돌이나 생일, 회갑도 중요한 의례로 여겼다. 따라서 관혼상제라는 ‘주자가례’ 또는 ‘사례’의 전통으로 일생의례를 주목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출산과 회갑 등 중요한 일생의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이며, 둘은 제례는 혼례나 상례와 같은 일생의례가 아니라 제사의례로서 사실상 제의이기 때문이다. 의례와 제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리고 셋은 관례처럼 일부 지배층에서 했던 복잡한 의례 중심의 논의로 빠져들어서 중요한 민중들의 일생의례 현상을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일생의례는 제례와 달리 마을문화이자 자연문화이다. 일생의례 가운데도 의식절차는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의 범주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일생의례를 치르면서 서로 부조하고 잔치하는 이바지문화는 마을을 넘어서기까지 한다. 한 마디로 동네이바지이자 마을잔치로 공동체행사가 되는 것이다.

도시에서 이바지는 교환가치를 수단으로 거래되도록 모두 상품화되어 있다. 현금 부조에 현금을 주고 산 예물을 주고 식당 음식을 구입해서 베풀어 먹인다. 게다가 현금을 주고 의례공간을 빌리고 현금을 주고 의례진행을 의뢰하기까지 한다. 아이들 돌잔치이든, 청년들의 혼인예식이든, 어른들의 회갑잔치이든 한결같다. 큰 식당이나 예식장, 호텔, 회관 등을 빌리고 음식을 주문하며, 식순을 진행하는 주례사나 진행자까지 별도로 모신다. 축하하는 사람들도 현금부조나 현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선물한다.

따라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의례 수준이 천차만별을 이룬다. 의례공간이 식당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주례자와 식순부터 차이가 크다. 식순에 가수의 노래나 악단의 연주가 들어갈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기도 한다. 당사자의 예복도 몇 십만 원을 주고 빌려 입는 경우와 몇 백만 원을 주고 맞추어 입는 경우까지 그 차이는 수 십가지로 세밀하게 나누어진다. 부조도 하객의 능력과 상관없이 의례상대에 따



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의례 당사자나 하객들 모두 지출이 큰 반면에 상업자본가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그러므로 예식산업을 시작으로 각종 의례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은 많은 하객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거금의 부조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모든 의례를 마을 안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동체 성원들끼리 공유한다. 의례의 의식은 물론 의례의 잔치까지 대등한 수준에서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외부의 장사꾼이나 상업자본가들이 끼여들 여지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의례공간은 물론 모든 의례용 기구나 물품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잔치에 쓸 음식들도 이웃의 부조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혼인잔치를 보기로 들어보자.

혼인잔치는 신부집 마당에서 한다. 차일을 치고 명석을 깐 뒤에 대례판을 차린다. 차일과 대례판에 차릴 소품들은 모두 마을 기물로 공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리가 높은 큰상이나 제기, 목기러기, 표주박, 호로병 등을 ‘동기(洞器)’로 갖추고 있다. ‘동기’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밥상과 밥그릇, 수저 등 잔치용 배식 기구들은 물론, 신랑신부가 타고 갈 가마와 신랑의 사모관대, 신부가 입을 원삼과 족두리 등을 다 비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신랑 신부가 혼례를 치르기 위해 특별히 예식용 복식을 구입하거나 빌리지 않아도 좋다. 가마는 물론 가마꾼도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다. 품으로 부조를 하는 정도이다.

수많은 하객들이 몰려와도 반상기와 수저가 대량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부엌일을 하는 아주머니나 상을 나르는 젊은이들도 모두 몸 부조로 족하다. 음식도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장만하는 정도면 그만이다. 국수잔치를 하는 경우에는 준비가 더 간단하다. 하객들이 종일 먹고 마시는 술과 감주, 묵, 두부 등 잔치음식들은 부조음식으로 충분하다. 이웃에 잔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분수껏 해서 부조를 한다. 메밀 농사를 넉넉하게 지은 집은 묵을 한 함지박하고, 엿기름을 많이 한 집에서는 감주를 한 독 준비하며, 콩 농사를 많이 한 집에서는 두부를 한 판 만들어 잔치 전날 저녁에 잔칫집에 전달한다. 밀주 단속이 뜸할 때는 누룩으로 술을 담아 부조한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이웃에서는 밥을 할 쌀을 한두 말씩 부조한다. 부조는 필요성의 원리에 따라 잔칫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따라서 의례에 쓰일 집기나 기물들은 동기로 항상 비치되어 있고, 마을잔치를 할 음식들은 마을사람들의 부조를 통해서 그때마다 자동으로 확보된다. 결국 잔칫날 하루 종일 먹고 마실 음식을 집집마다 부조로 넉넉하게 모아서 다시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잔치이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모아 두고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는 잔치방식은 뷔페식당에 견줄 만하다. 그러므로 잔치의 규모와 수준은 마을사람들의 부조 내용과 총량에 따라 결정되는

까닭에 경제력에 따라서 층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잔칫집에서도 경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아서 부담도 적다. 평소의 부조가 곧 마을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보장보험’에 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즘 혼례식에 견주어 말하면, 마을에 공용 예식장과 신부 드레스와 꽃바구니, 신랑 택시도는 물론, 혼례식에 이용할 승용차까지 늘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모셔올 주례 선생님을 비롯하여 의례에 필요한 서식(書式)을 쓰거나 진행을 도울 인력이 이웃에 더불어 살고 있어 걱정이 없다. 그리고 마을잔치를 위한 대량의 음식도 이미 뷔페식당에 주문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잔치 전날 저녁에 마을사람들의 음식부조가 들어오면 잔칫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객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

회갑잔치나 장례 때에는 의례의 특성상 혼례와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회갑잔치 때는 풍물패가 필요하고 장례 때는 상두꾼들이 필요하다. 회갑 때는 반드시 풍물을 치며 한판 놀이를 벌인다. 마을에는 항상 풍물이 동네 기물로 갖추어져 있고 풍물재비들은 언제라도 풍물을 치며 잡색놀이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회갑잔치 때는 평소와 달리 잡색놀이를 드세게 한다. 회갑을 맞은 어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곱사나 곱배팔이, 문둥이 등 병신 잡색들을 많이 출연시켜 흥을 돋우며 기어코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풍물재비들의 특별한 공연은 마을사람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이자, 주민들의 문화창조력이다. 삶을 창조적으로 누리는 문화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된다.

장례 때는 운구를 위한 특별한 장비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 주검을 운구할 거대한 가마인 상여와 혼백을 운반할 영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상여를 운반할 상두꾼과 묘지에서 산역을 할 인력들이 수십 명 있어야 한다. 마을에는 곳집과 상두계가 조직되어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순조롭게 해결한다. 곳집에는 상여와 영여 및 산역에 필요한 곡괭이와 연장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초상이 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의 비품이다. 마을마다 장례용 운구차와 산역에 쓸 포클레인이 공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두계는 두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규모나 상여의 크기에 따라 30~50호 내외의 가구가 참여하는 상두계를 조직한다. 작은 마을에는 온 마을이 하나의 상두계를 이루고 큰 마을에는 2, 3개의 상두계가 조직되어 있다. 계원들 가운데 초상이 나면, 상두계원들이 모여서 상여 조립에서 상여 운구, 묘지의 산역, 덜구 쪼이기, 봉분 만들기까지 장례와 관련된 일을 모두 감당해서 마무리한다. 운구와 산역은 집약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시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만, 상두계가 있는 한 걱정이 없다.

운구를 할 때 상여 앞소리를 부르고 무덤을 다질 때 덜구소리를 메길 앞소리꾼도 마을에서 공유한다. 앞소리꾼은 죽은 사람의 일생을 회고하는 앞소리를 불러서 ‘곁에 사람 눈물 나고 먼 데 사람 듣기 좋게’ 노래한다. 상두꾼들은 뒷소리를 받으면서 상여를 메고 가는 지루한 노동을 흥겨운 놀이로 전환시킨다. 상여소리나 덜구소리를 메기면서 유족들과 일가친척들을 끌어들이 문상하게 하는 구실도 한다. 이때 망자가 저승 가는 노잣돈 구실로 돈을 뜯어낸다. 걷어 들인 돈은 상두계의 공동경비로 비축한다.

운구 당일 아침에는 문상객들 외에 덩으로 많은 상두꾼들에게 일시에 음식을 대접하려면 동기로 준비해 둔 반상기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상두꾼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밥상에 빈 그릇들과 수저를 갖추어 들고 온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라 상을 들고 와서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아침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그 밥상을 물려받아 아침을 먹은 다음 상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러한 상두계의 운영으로 장례에 필요한 풍부한 노동력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동배식, 공동경비 마련이 동시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상례는 흥사이기 때문에 생일이나 혼례, 갑례와 달리 잔치라 하기 어렵다. 큰일 또는 이바지라고 할 수 있다. 주검을 두고 흥청망청 잔치 기분을 낼 수 없는 까닭이다. 과연 상례 또는 장례는 잔치가 아니었는가. 잔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잔치 기능을 발휘했다. 이미 상례를 이바지나 큰일로 일컫는 의미 속에 잔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부조로 음식을 모아서 마음껏 나누어 먹고 마시는 향연이라는 점에서 상례 또한 잔치적 요소가 짙다. 혼인잔치나 회갑잔치와 상례에서 베푸는 향연의 규모나 방식,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다.

오히려 상례나 장례에서 잔치 또는 축제적 요소가 별도로 있어서 주목된다. 호상인 경우에는 운구 전날 저녁에 일종의 축제식 전야제를 한다. 빈상여놀이 또는 대돋움이라 하여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앞소리를 메기며 놀이판을 벌이는 것이다.<sup>28)</sup> 상주와 사위를 상여에 태우고 장난을 치는가 하면, 마을을 돌면서 상여놀이를 하여 곡소리가 나던 마을을 노래 소리와 놀이로 흥겹게 전환시킨다. 죽음의 의례를 노래와 놀이를 통해서 축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향연의 잔치와 축제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물고 거리를 없애 주는 공동체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을사람들은 상례의 잔치와 장례놀이를 통해서 공동체문화를 무상으로 공유하며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것이다.

출상 전야의 상가에서만 놀이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지에서 산다위와 같은 모의적 집단성행위 놀이,<sup>29)</sup> 명당발복을 상징하는 진사놀이, 장지

28) 임재해,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比較民俗學』 12, 比較民俗學會, 282~287쪽에 빈상여 놀이의 다양한 명칭과 놀이의 기능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29) 전경수, 「死者를 위한 儀禮的 輪姦: 湫子島의 산다위」, 『한국문화인류학』, 24,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 301~322쪽에서 추자도의 장례 산다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에서 끝도는 문상객을 놀리는 가래장구 지우기<sup>30)</sup> 등 여러 가지 놀이가 벌어진다. 진사 모시기는 장지에서 상가로 돌아오는 길에 하는 놀이이며, 상가에서도 지속된다. 장인 묘지가 명당이어서 금방 진사가 났다면 사위를 진사처럼 거짚으로 꾸며서 상가까지 끌고 내려와 외양간에 소처럼 몰아다가 묶어놓고 진사님 진지상 올린다고 쇠죽을 퍼준다. 그러면 장모와 처가 식구들이 쫓아 나와 술상을 푸짐하게 차려낸다.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놀이판을 벌인다. 상두꾼들 중심의 작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자, 상가의 침울한 분위기를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로 전환하는 구실을 한다.

진도의 다시래기나<sup>31)</sup> 풍물을 앞세우는 운구행렬을 보면, 상례는 물론 장례도 과거에는 축제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축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다. 상례나 장례의 의례절차는 마을을 넘어서는 일반적 규범이지만, 실제로 상·장례를 치르는 공동향연과 공동노동, 공동놀이는 마을 잔치로서 축제 형식을 띠면서 마을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전승되는 독자성이 있다. 따라서 상례까지 포함해서 일생의례는 공동체의 잔치로 인식할 만하다.

가족들은 의례의 절차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마을사람들은 의례절차보다 잔치를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당사자들의 의례를 아무리 절차에 맞게 잘 치러도 마을사람들이 공유하는 잔치를 골고루 푸지고 흥겹게 하지 못하면 훌륭한 혼례나 회갑, 장례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생의례는 어느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자 가족적인 것이지만, 잔치는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까닭이다. 마을사람들은 일생의례를 계기로 마을잔치를 벌여서 공동체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의례와 잔치를 비롯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장치를 공동으로 마련해 두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공동으로 향유하는 공유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 공유체제에서는 지체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같은 가마를 타고 장가들고 같은 상여를 타고 묘지에 가서 묻힌다. 빈부에 따른 차별 없이 같은 원삼과 족두리를 갖추어 시집가고 같은 상두꾼들에 의해 저승길로 간다. 모두 무상으로 공유하는 까닭에 상하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경제적 차이와 신분적 차별은 있어도 공동체문화를 공유하는 데에는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 의례와 잔치 문화는 사회적 보장성과 민주적 평등성, 역사적 지속성, 문화적 독창성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무상 공유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문화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빈부에 따라 세밀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현실문화와 달리, 마을공동체 안에서는 빈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더불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

30) 임재해, 앞의 글, 287~290쪽에서 '진사 모시기'와 '가래장구 지우기'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31) 鄭炳浩, 「진도 다시래기」, 『重要無形文化財概說 - 演劇篇』, 문화재관리국, 1986.

도록 배려되어 있는 것이 마을문화의 생활세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부의 층차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의례와 잔치 상황에서 특히 차별화 되어 천차만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대 산업사회의 시장경제 체제를 두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무상 공유의 공동체문화를 누렸던 전근대적 농경사회의 마을공동체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삶을 누렸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 6. 마을문화의 가치와 조사의 필요성

마을문화의 조사 필요성은 마을 민속문화가 지닌 가치에서 비롯된다. 만일 마을문화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 마을문화는 위의 4가지 가치 외에도 5가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공동체 문화로서 가치이고, 둘은 전통문화로서 가치이며, 셋은 문화다양성 가치이다. 그리고 넷은 생태문화적 가치이며, 다섯은 문화자원으로서 가치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있는 까닭에 마을문화 조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첫째, 공동체 문화의 가치는 민주적인 민중문화의 이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제3세계 문화실천운동은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이루는 민중문화 운동의 본질을 공동체 문화로 표방하고 있다.<sup>32)</sup> 공동체 문화의 더 중요한 상황은 문화를 아무런 대가없이 서로 공유하며 공동으로 생산하고 향유하며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빈부나 지적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 공동체 문화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누구나 문화생산 주권을<sup>33)</sup> 행사하고 문화수용의 주체가 되며 문화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정의와 문화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민주적인 문화가 마을공동체 문화라 할 수 있다.

공동체는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는가 하면, 타인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정서적 일체감’을 가지며, 한정된 ‘지역적 집단성’을 이루고 있는 사회를 일컫는다.<sup>34)</sup> 그러자면 첫째 지리적인 영역과, 둘째 사회적인 상호작용, 셋째 공동의 연대의식을 갖추어야 한다.<sup>35)</sup> 이러한 공동체의 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사회가 농촌마을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문화로서 마을문화를 조사하고

32) 「머리말」, 『共同體文化』 창간호, 도서출판 공동체, 1983 참조.

33) 임재해, 「민속예술의 본질적 성격과 인간해방 기능」, 『比較民俗學』 23, 比較民俗學會, 2002, 66~75쪽에서 문화생산 주권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34) 신용하, 「서설: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 慎鍾廈 編, 『공동체 이론』, 文學과知性社, 1985, 14~15쪽 참조.

35) George A. Hillery, Jr.,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1955년 6월), 118쪽, Dennis E. Poplin, 김경일 역, 「공동체의 개념」, 慎鍾廈 편, 『공동체 이론』, 文學과知性社, 1985, 16쪽에서 재인용.

보고하는 일은 긴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통문화로서 가치이다. 민속문화는 민중이 전승하는 전통문화이다. 문화유산으로서 전통문화 가치는 새삼스레 논의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문화창조의 원천이 바로 전통문화의 창조력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길잡이 구실을 하는 것이 전통문화의 슬기인 까닭이다. 따라서 오랜 역사가 국가의 자랑이듯이,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은 민족의 긍지이다. 문명국가들이 저마다 문화유산 보호정책을 펼치고 박물관을 통해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도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마을문화는 특히 민중적 전통문화이다. 지배집단에 의한 귀족적 전통문화는 강대국의 외래문화를 수용한 것이 일반적인데, 민중적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자생적 문화창조력에 의해 형성된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상당히 잘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사람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양반들의 전통문화를 보게 되면,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아류로 간주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지배집단의 전통문화는 중국문화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다. 하지만 민중적 전통문화인 마을의 민속문화는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창조한 까닭에 우리문화다운 고유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문화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조사하고 전승하는 일이 긴요하다.

셋째, 문화다양성으로서 민속문화의 가치이다. 생태계가 생물종 다양성이 확보되었을 때 건강한 것처럼, 문화생태계도 저마다 다른 문화의 민족적 독창성과 지역적 특수성, 역사적 시대성 등이 개성 있게 공존하여 문화다양성을 이룰 때 건강하다. 문화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새로운 문화창조력도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까닭에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을 중요한 문화 가치로 존중한다.

현대 도시문화는 표준화되고 국제화되어 획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에서 생산되는 대중문화는 국적을 초월하여 대량으로 보급되는 까닭에 문화제국주의 문제와 관련되어 지탄을 받고 있다. 대중성은 소품종 저품질 대량생산의 시장논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세계에서는 문화다양성이 살아나기 어렵게 되었다. 고급문화도 공적으로 교육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까닭에 표준화가 두드러진 반면에 다양성이 약화되고 창조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대중문화보다 일반화의 폭은 매우 좁지만, 지식인 집단 내부에서 표준화되어 통용되는 국제문화가 고급문화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속문화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 마을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처럼 일방적으로 보급되지도 않으려니와 고급문화처럼 교육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레 생산되어 다음 세대에 전승되거나 이웃지역에 전파되는 까닭에 구조적

으로 표준화나 대중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마을에서 형성된 마을 고유의 고급문화나<sup>36)</sup> 대중문화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마을 고유의 민속문화는 반드시 존재한다. 마을 단위로 자생된 토착문화가 바로 민속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을 문화조사 사업은 문화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

넷째,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가치이다. 마을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고 오랜 동안 농사일을 해왔다. 농업은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서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생명산업이다. 한 톨의 씨앗으로 수십 배 또는 수 백 배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까닭에, 공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지속 가능한 산업이다. 공업과 서비스업은 자원의 수탈과 환경의 오염, 생태계의 교란 등 지구생명을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있지만, 농업은 자연 적응적이고 자연 친화적일 뿐 아니라 자연생명을 섬기고 위하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마을문화가 살아 있던 마을공동체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자연자원의 수탈은 자행되지 않았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생의 이치와 자연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의 이치가 생태학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물을 밥’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살림의 문화’이자 ‘생명의 문화’가 바로 민속문화라 할 수 있다.<sup>37)</sup> 그런데도 ‘농민과 농촌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식인이나 환경운동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sup>38)</sup> 문제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미래’의 문화로서 마을문화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자원으로서 마을문화의 가치이다. 마을문화든 전통문화이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들은 오늘의 현실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문화자산이자 문화자원 구실을 한다. 문화자원은 문화상품의 생산이나 이윤추구를 위한 문화산업 활동의 긴요한 밑천이 될 수 있다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아마 마을문화가 즉각 문화자원 구실을 한다면 문화 기획자들이나 문화상품 생산자들의 관심이 대단했을 것이다. 하회마을처럼 민속마을이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마을의 본디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마을문화도 상품이 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제대로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마치 금광석과 같아서 얼른 알아보지 못한다. 금불이가 소중한 것만 알았지 그 재료인 금광석의 효용성을 알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 노다지로 내버려 둔 셈이다. 이제는 마을과 함께 문화자원의 노다지도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문화를 널리 수집하는 일은 곧 문화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확보하는 셈이다.

36) 전통적인 반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을의 독자적 고급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37) 임재해, 「농촌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성격과 문화중 다양성 가치」, 『농업 그 다양성의 재발견』,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 국제학술심포지움(2002. 10. 16-18), 436쪽.

38) 김종철, 「땅의 옹호」, 『녹색평론』 66, 녹색평론사, 2002년 9~10월호, 6쪽.

마을문화가 문화자원 구실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의 자원이 된다는 말이다. 마을의 토박이말에서부터 마을의 신화와 전설, 일화, 민요, 속신, 신앙, 놀이, 세시풍속, 일생의례, 의식주생활, 농기구, 각종 생업기술 등 민속문화 각 분야의 자료들은 문화지식 정보 및 예술창작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리정보체계(GIS)는 진작 개발되어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알맹이는 충분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다. 아직 백지도 상태라 할 만하다. 지리정보체계를 실속 있게 채우는 일도 문화조사 자료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문화산업의 시각에서 보면, 토박이말이 광고에 이용되는 한편, 전설이 축제의 자원이 되고, 민요가 손전화의 컬러링으로 상품화되며, 세시풍속이나 일생의례가 문화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조사한 『한국구비문학대계』가 문화원형 사업에 널리 이용되는 것도 좋은 보기이다. 따라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상품을 겨냥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자료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종래의 조사보고서 방식에서 나아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쉽게 검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속이 문화자원으로서 특히 소중한 까닭은 다른 문화자료와 달리 입체적으로 연행되며 역동적 가변성을 지니는 까닭이다. 민속은 연행되는 순간에 진짜 민속으로서 살아 기능한다.<sup>39)</sup> 음성자료와 시각자료가 함께 살아 생동하는 것이 연행되는 민속자료이다. 다시 말하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함께 갖추어진 동영상 자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문화자료들은 저작권이 있어서 무상으로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을문화는 공동체문화로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까닭에 부지런히 조사하여 수집하고 정보화하면 이용 가능한 자원이 무진장이다.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은 문자자료에 머물거나 사진자료가 고작이다. 음성자료나 영상자료는 이용하기 어렵다. 단군신화를 인용하거나 향가를 거론할 때 문자자료밖에 쓸 수 없다. 단군신화가 구연되고 향가가 노래되는 음성자료나 영상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속자료는 생활 속에서 전승되는 까닭에 기록으로 보고하는 문자자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실제로 민속이 연행되는 상황을 음성자료와 동영상자료로 갈무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기록으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가 개발되어 손쉽게 자료를 실제 모습대로 담

39) Roger D. Abrahams, 'Personal Power and Social Restraint', Americo Paredes and Richard Bauman eds., *Toward New Perspectives in Folklore*(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2), 28쪽.



아들 수 있다. 풍물을 치는 실제 상황과 동제를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료화하고,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상여소리를 녹음해서 저장해 두면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생생한 문화자원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자원의 축적을 위해서도 마을문화를 널리 조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마을문화의 현실과 조사의 절박성

문화자원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을문화의 조사활동이 연구활동보다 더 중요한 작업이다. 문화연구는 뒤에라도 할 수 있지만 민속문화 자료조사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 없다.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문화는 전승과정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까닭에 조사할 때마다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효과가 있다. 민속문화를 민속문화답게 조사하려면 상대적으로 마을문화의 전통이 잘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조사는 아무리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 우리가 마을문화 연구보다 마을문화 조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을문화에는 아직 알지 못한 문화적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절감해야 한다. 마을문화는 경쟁논리의 시장주의 체제에서 공생논리의 공동체 체제로 가는 대안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자연 적응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이치를 일깨워 주며, 새로운 문화창조의 자원으로서 오랜 전통 속에 축적해 왔던 인류의 놀랄 만한 슬기들을 저장하고 있는 문화지식 창고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을문화를 줄곧 외면해 왔다.

오히려 마을의 전통문화를 타파하고 새마을로 만드는 것이 살길인 줄 착각했다. 그것은 마치 마을사람들이 공동우물로 사용하던 샘물을 모두 묻어버리고 수돗물을 마시다가 뒤늦게 생수를 찾는 격이다. 우물을 다 파괴해 버린 뒤에 생수를 사 마시는 어리석음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도 마을민속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민속문화의 단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해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마을마저 거대한 경로당으로 바뀌면서 이제 폐동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처지이다.

지금 이 분위기로 2-30년 지나가면 폐하는 거야. 애들이 출생도 안 하지, 젊은 사람들도 50살 5-6명, 70살 먹은 사람도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이 어른이 15년 산다면 남아 있는 사람은 열 가구 내외지.<sup>40)</sup>

40) 임재해, 「생활사 이야기, 어제와 오늘」, 『반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현리마을』, 한국학술정보, 2003, 737쪽. 문경시 산양면 현리마을의 채종선(남, 71) 어른의 말씀(2002년 3월 10일)이다.

한 때는 120여 호가 살던 마을이다. 그때는 한 집에 보통 7-8명 살았으니 인구로 말하면 적게 잡아도 900명 정도나 되는데, 지금은 독거노인 아니면 부부노인이 대부분이어서 2002년 현재 42가구에 81명이 살고 있다.<sup>41)</sup> 약 30년 사이에 마을 인구가 9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 해에 출생신고하는 사람이 먼 전체에 10명 정도라고 하니, 출생인구는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리는 반촌이자 부촌으로서 새마을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까닭에 특별히 불리한 여건으로 볼 수 없는 마을이다. 따라서 이보다 여건이 못한 마을은 그 전망이 더 어둡다. 안동 하회마을은 지금 문화관광지로 북적대는데도 인구 감소의 추세와 노화 현상은 심각하다. 최근 30년 만에 인구가 6분의 1로 감소했고 50대 이상의 인구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 하회마을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 관광지로서 여건이 상당히 좋은 마을이다. 그런데도 10년 단위로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고 최근에는 감소율이 더 높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생명력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마을해체가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마을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마을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농촌이 망하고 마을이 죽으면 도시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지구가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sup>42)</sup> 마을공동체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공생적 인식이 절실하다. 지구가 자연생명이라면 마을공동체는 사회적 생명이다. 그러므로 농촌마을의 소멸은 마을생명의 죽음이자 공동체사회의 죽음을 뜻한다. 이 불편한 진실을 가리거나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국가의 죽음에 관해서는 애국주의를 내세우면서 대단히 열렬하게 나서면서도, 마을의 죽음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무관심 속에 불편한 진실은 위협적 진실로 증폭되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위기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생태학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다른 생물종도 덩달아 수십 종이 죽게 되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중요한 구성 조직인 마을이 죽는 것은 사회생태학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죽어가는 마을에 대한 시급한 문화적 대안이 마을문화를 조사하여 그 삶의 자취나마 남기는 일이다.

41) 김미영, 「현리의 가족생활과 친족생활」, 『반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현리마을』, 한국학술정보, 2003, 62쪽.

42) James Lovelock 지음, 김기협 옮김, 『가이아 - 지구의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라』, 김영사, 1995. 이 책에서 말하는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생명으로 규정한다.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노인이 돌아가실 적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고 한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전통에서는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sup>43)</sup>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전수되는 지식과 지혜는 곧 민속문화의 양식이다. 민속(folklore)을 가장 소박하게 정의하면 민중(folk)이 생활 속에서 전승하는 지식과 지혜(lore)를 말한다. 따라서 민속의 구전 지식은 학교와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지배층의 지식(knowledge)과 다르다.<sup>44)</sup> 모든 민속적 지식과 지혜는 사람들의 생활과 더불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통적 지식과 문화적 정보를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인들이다. 그러므로 노인 한 사람이 박물관과 도서관에 맞먹는 문화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런데 문화의 세기에 한류문화를 누리는 우리의 문화 인식은 어떤가. 마을은 구전 지식과 지혜를 전승하며 살아온 수많은 노인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하나는 수십 개의 박물관과 도서관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많은 문화도서관과 문화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망가지며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도서관의 문화정보와 박물관의 문화유산이 봄날에 잔설(殘雪) 녹아내리듯이 날마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다.

따라서 지금 시급히 마을문화를 조사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조사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마을조사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과 사명감으로 마을문화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존정책은 물론 생산적인 문화정책의 1순위가 중장기적인 농촌마을의 문화조사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문화정책을 펴기 위해 다양한 문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대한 보고서를 간행했다. 일제는 1910년대 초에 이미 전국의 지명조사를 하여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54책을 간행하였다. 최근에 이 자료는 지역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본자료로 주목받아, 본격적인 해제집과 영인본이 함께 간행되기 시작했다.<sup>45)</sup> 일제는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속조사를 실시하여, 『부락제(部落祭)』,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 『조선민속자료집설(朝鮮風俗資料集說)』,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豫言)』 등

43) 강신표, 「民族誌의 축복,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학」, 교수신문 批評 제392호 2006년 4월 3일자 5면.

44) Munro S. Edmonson, Lore: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Folklore and Literature,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1쪽.

45) 신종원, 『강원도 땅 이름의 참모습 -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2007.



본격적인 민속지를 다수 간행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정책을 펴는 30여 년 동안에도 식민지 문화조사 사업을 줄기차게 펼쳤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후 60여 년이 지나도록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민족문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sup>46)</sup> 가장 바람직한 조사시기는 해방 직후였다. 일제강점기에 왜색문화 보급정책과, 민속문화 탄압정책으로 민족문화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민속조사를 실시하여 일제에 의해 전승이 중단된 민속은 물론, 일본문화로 오염되기 이전의 우리 문화를 본디대로 조사하여 되살리는 사업을 벌여야 했다. 그래야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은 물론, 일제의 문화적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문화적 독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지금문 문화의 세기이다. 마침 우리문화가 한류바람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 문화정책 당국인 문화관광부에서도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문화다운 정체성을 찾는 정책을 펼치며, 100대 민족문화 상장을 선정하고 한스타일을 국가브랜드로 표방하고 있다. 문화의 세기를 이끌어가고 한류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문화자원화라 판단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마을문화 조사도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문화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문화자료를 축적하고, 사라져 가는 민족문화 자원을 보존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문예창작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8. 마을문화의 세계와 인문학적 가능성

마을은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사회적으로 자립적이며 정치적으로 자치적이고 문화적으로 자족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였다. 따라서 마을문화를 통해 “세계 차원의 문화학을 창조적으로 구상하고 인류문화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sup>47)</sup> 그러므로 “마을문화가 인류문화의 희망”이라<sup>48)</sup> 생각하며 마을민속 조사를 통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문화의 대안을 찾는 문화이론을 구상하고 있다.<sup>49)</sup>

문화의 세기에 가장 소중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문화 창조력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생명이 창조력에 있기 때문이다. 창조력이 바로 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낳는다. 민족문화의 정체성도 민족적 창조력에서 비롯된다. 정치는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발전일 수 있고, 경제는 모방을 해도 발전이 가능하

46) 김태곤, 「민속과 문화정책」, [http://www.kcaf.or.kr/zine/artspaper90\\_04/19900417.htm](http://www.kcaf.or.kr/zine/artspaper90_04/19900417.htm)

47) 임재해, 『마을민속 조사연구 방법』, 민속원, 2007, 261~262쪽.

48) 위의 책, 13쪽.

49) 위의 책, 262쪽.

지만, 문화는 표준화와 모방에 의존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창조성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한 문화적 창조성이 살아 있는 모습살이가 바로 마을공동체이다. 도시인들이 잃어버린 문화생산 주권을 마을사람들은 민속문화를 통해 주체적으로 누리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문화 창조력을 되살리고 문화 민주화를 실현하며 저마다 자신의 문화주권을 누리기 위해서도 마을민속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꿈꾸는 문화적 공감대는 문화다양성이다. 문화 창조력의 자원과 문화다양성의 현장은 시골의 전통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생산 주권을 누리며 자급자족의 문화생활을 하는 마을공동체의 문화는 위로부터 주어지고 이웃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치받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까닭에 서로 다른 개성과 전통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마을마다 개성 있는 동네문화가 있고, 독특한 가락의 동네음악이 있으며, 마을서당을 섬기는 동네신앙도 있다. 마을이 하나의 자족적 세계였으므로, 공동체가 필요한 모든 문화들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전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을의 민속문화야말로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가장 풍부한 자산이다.

세계는 도시화와 함께 국제화, 표준화, 대중화되고 있다. 도시 속에서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대도시일수록 거대하게 커지고 현대화가 진전될수록 국제적 표준화에 더 가까워져서 문화적 독창성을 잃어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민속학자나 문화인류학자들의 현지조사는 으레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답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전통마을에서 한국문화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날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따라서 마을문화는 민족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자, 미래문화의 자원과 전망을 갈무리하고 있는 창조력의 원천이며, 문화 다양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화 교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문화산업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마을에도 이미 대중문화와 도시문화가 상당히 침투되어 있어 본디 문화의 개성을 상당히 잃고 있으나, 마을의 민속문화는 여전히 마을문화다운 독자성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와 달리 서로 안면을 트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느슨하게나마 일과 놀이, 믿음을 함께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sup>50)</sup> 그러므로 마을문화는 문화의 세기에 인문학문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50) 도시의 대중문화가 침투하고 기계화에 따른 농업노동 형태도 크게 달라졌지만 아직도 품앗이와 같은 노동교환 관행이 지속되고 함께 관광을 떠나며 마을의 서낭신을 공동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농촌 마을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Ⅱ 마을 발표

### 1부

1. 구리시 마을문화자원 전승 현황  
박명섭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2.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는\_고양 진발마을  
한진수 / 고양신문 국장
3. 동막이 추억 가득한\_고양 노루뎛마을 이야기  
이옥석 / 고양신문 기자

# 구리시

## 마을문화자원 전승 현황

박명섭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 1. 구리시 연혁



동구릉 전경

- 삼한시대 : 마한지역에 속함(기원전 3세기 무렵)
-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 백제지역 - 고구려 지역(광개토왕, 장수왕) - 신라지역(진흥왕)
- 고려시대 : 양주 또는 남경 관할 지역
- 조선시대 : 양주목, 경기도 양주군(1896, 고종 32)
- 일제강점기 :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1914, 구지면+망우리면)
- 대한민국 : 양주군 구리읍(1973) - 남양주군 구리읍(1980) - 구리시(1986) 승격
- \* 8개 동(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2동, 수택 1·2·3동)
- \* 194,298명, 74,699가구(2017. 1. 31 현재)

### 2. 구리시 문화재

- 국가 지정 : 동구릉(사적 193호), 건원릉 신도비(보물 1803호), 건원릉 정자각(보물 1741호), 송릉 정자각(보물 1742호), 목릉 정자각(보물 1743호), 명빈묘(사적 364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사적 455호), 석장(石匠, 국가무형문화재 120호)
- 경기도 지정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무형문화재 15호), 나만갑신도비(경기도유형문화재 126호), 아차산3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205호), 석장(石匠, 경기도무형문화재 42호), 경기 검무(劍舞, 경기도무형문화재 53호)
- 등록문화재 : 한용운 묘소(등록 제159호)



건원릉 신도비



송릉 정자각



건원릉 정자각



목릉 정자각





명빈 묘



아차산 일대 보루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



석장(국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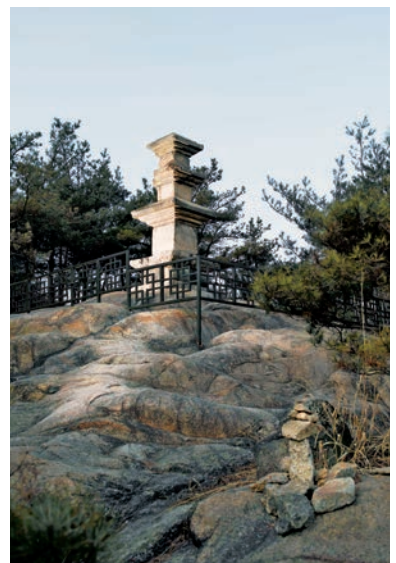
나만갑신도비



경기 검무



석장



아차산 삼층석탑



한용운 묘소



갈매동도당굿



갈매동도당굿



갈매동도당굿 전수관



우미내 반신석상 들어가는 입구



우미내 반신석상 전경

### 3. 구리시 마을문화자원

#### 1) 갈매동도당굿

- 갈매동도당굿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을굿
- 1995년 8월 7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
  - \* 구리갈매동도당굿 보유자 : 조순자, 허용업
- 상당(上堂)과 하당(下堂) 형식
  - \* 상당은 산신당(山神堂). 도당산 중턱에 있으며 당집은 없고 나무만 있다.
  - \* 하당은 도당(都堂). 마을 뒤편 도당산 초입에 있다.
  - \* 당집은 1935년 건립되었으며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내외분을 모신다.
- 짝수 해 음력 3월 1일~3월 3일 마을 산신과 도당신에게 제를 올리고 굿을 한다.
  - \* 음력 2월 1일 굿을 주관할 당주와 숙수, 도가, 화주 등을 뽑아 제를 준비한다.
- 제의 절차 : 예고제 - 부정풀이 - 당집 청소 - 나무 준비 - 조포 모시기 - 안반고사 - 산치성 - 서낭맞이 - 유가(遊街) - 본굿 - 회계 정산
- 2건의 제의 관련 문서가 전한다.
  - \* <무진 3월 5일 산치성 절차> 문서(1928년 문서)
  - \* <단기 4293년 3월 축문 기입 산치성 절차> 문서(1960년 문서)
- 예전엔 갈매동 담터마을 도당굿도 매년 성대히 올렸다.
  - \* 담터 도당굿은 도당할머니를 모신다.
- 현재 마을 내에 갈매동도당굿전수관이 운영되고 있다.

#### 2) 교문동 우미내마을 서낭제

- 검문소를 지나 위커힐 쪽으로 가는 비낭고개(서낭고개) 오른쪽 녹지에 당집이 있다.
- 당집에는 여자 반신상이 모셔져 있다.
  - \* 여자 반신상은 장자못 전설에 나오는 부잣집 며느리의 상이라 전한다.
  - \* 본래 있던 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한강에 버렸다 하며 그 이후 새로 석상을 모신다.





우미내 반신석상

- \* 현재 당집 반신석상 주변에 무속인들의 도구가 많이 비치되어 있다.
-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 안에 택일을 하여 당집에서 마을 대동고사를 지낸다.
- \* 최근 들어 전통이 많이 약화되었다.
- \* 마을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고사를 지냈으며 제주(祭主)는 마을 통장이 겸했다.
- \* 예전에는 아차산 기슭의 옛 장영자 별장 안 도당나무에서 산제를 먼저 지내고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냈다고 한다.

### 3) 사노동 산치성

- 사노동 산치성은 매년 10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제를 지낸다.
- \* 사노동의 안말, 두레물골, 양지말 주민들이 모두 참석했다.
- \* 두레물골 서쪽에 산제를 지내는 산치성터가 지금도 있다.
- 예전에는 도당굿과 산신제를 지냈다.
- \* 도당굿은 일찍이 사라지고 지금은 소박한 형태의 산치성만 올린다.
- \* 산치성터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예로부터 아무나 손대지 못했다.
- 사노동에 아주 오래 전에 장승이 2기 있었다.
- \* 일제 강점기 초기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
- \* 목장승으로 가로변에 있었던 노변장승.
- \* 마을 앞쪽 퇴계원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큰 길가에 '장승백이'라는 지명이 전한다.



우미내 반신석상 옆 무속도구들



우미내 반신석상 외부모습



사노동 산치성터



사노동 마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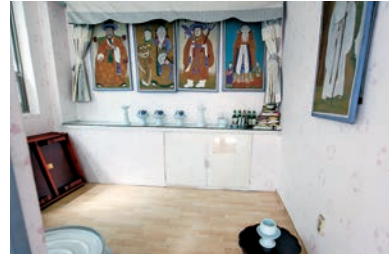
사노동 산치성터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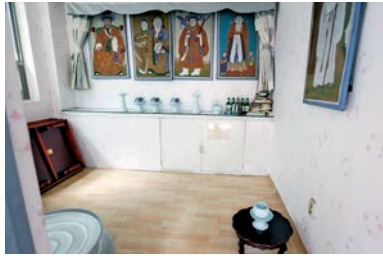
수누피 치성각(산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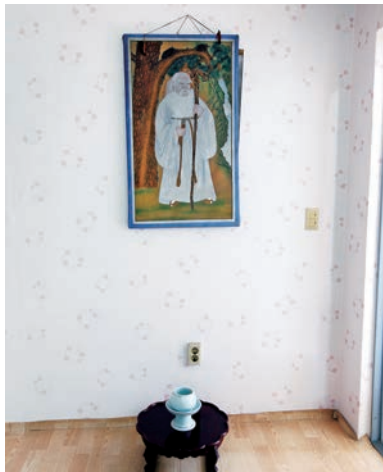
수누피 산신각 가는 길



수누피 치성각 내부



수누피 치성각 내부



수누피 치성각 내부



수누피 치성각 산신도

#### 4) 수택동 수누피마을 산신제

- 수택동 수누피마을 산신제는 예전에 조상할아버지, 조상할머니, 군웅할아버지, 군웅할머니, 신 할머니가 있었다.
- 예전에 마을에 산신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 \* 현재 노인정 옆 건물에 있는 당집(치성각)에서 무당이 제를 올린다.
- 매년 음력 10월 1일 밤에 마을 공동으로 당고사를 올린다.
  - \* 따로 제관을 뽑지 않고 인근의 무당과 당집 관리인을 중심으로 제를 올린다.
  - \* 예전엔 5~6명의 무당이 사흘 동안 굿을 했다고 한다.
  - \* 지금은 원하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빌며 절을 올린다.
  - \* 당집 안에는 산할아버지와 산할머니 등을 그린 그림이 있다.



수누피 치성각 무속도



수누피 치성각 무속도



수누피 치성각 무속도



수누피 치성각 무속도

#### 5) 토평동 별말 산신제

- 토평동 별말산신제는 현재 경로당 옆 축대를 쌓아 올린 돈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서 산신제를 올린다.
  - \* 느티나무는 두 그루로 도당낭구, 서낭낭구라 부른다.
  - \* 예전에 모셨던 아카시 나무가 장마에 떠내려가 없어졌고, 이후 돈대에 새로 심었다. 그 후 도당굿 전통이 약화되었다.



- 매년 음력 10월 1일 산치성을 올리고 있다.
- \* 예전에는 우물고사와 도당곳을 함께 지냈다.
- \* 우물고사는 매년 음력 7월 초하루 복중 더위에 지냈으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 6) 교문동 한다리마을 대동고사

- 교문동 한다리마을 대동고사는 매년 음력 10월 1일 밤 마을에서 간단히 제물을 준비하여 대동고사를 올리고 제사는 마을통장이 맡아서 했다.
- 예전엔 할아버지나무와 할머니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나무가 사라졌다. 그 후 동네 안쪽 들어가는 길모퉁이에 향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었다.



한다리마을 입구



한다리마을 도당나무



별말 도당나무



한다리마을 도당나무

## 7) 인창동 동창마을 산신제

- 인창동 동창마을 산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아침에 동네 어른들이 날을 받아 지냈는데 정월 초닷새를 넘기지 않고 제를 올렸다.
- \* 예전엔 마을 뒤 동구릉산(검암산) 꼭대기에 있는 산신바위(치성바위)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산 아래 있는 부군당에서 부군제를 올렸다고 한다.
- \* 부군당은 원래 기와집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불타서 지금의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벽돌건물로 다시 지었다고 한다.
- 현재 마을에 부군신당이 자리 잡고 있다.



동창마을 산치성터(옛날에는 부군당터)



동창마을 우물터



동창마을 부군신당 내부



장자못 전경



장자못



곶장늪



장자호수생태공원

## 8) 장자못 전설

- 장자못은 원래 자연적인 못으로, 새롭게 복원하여 호수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 \* 예전엔 오염이 심했으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구리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 장자못에는 승려에게 박해를 가하여 그 별로 며느리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 \*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장자못 전설과 같다.
  - \* 인근 우미내마을 당집에 모셔진 여자 반신석상이 장자못 전설의 부잣집 며느리라고 한다.

## 9) 사라진 마을제의

### ① 수택동 검배마을 서낭나무 고사

- \* 제를 올렸던 향나무가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으로 사라지며 제의가 중단되었다.
- \* 매년 음력 10월 그믐에 대동고사를 지냈다.

### ② 수택동 이촌마을 산치성

- \* 매년 10월초 도당나무와 우물에 금줄을 치고 3일 동안 도당굿을 했다.
- \* 도당할머니와 도당할아버지가 있었으나 사라지고 없다.

### ③ 인창동 궁말 산치성

- \* 매년 10월초 마을의 당집 세 곳에서 산치성을 올렸다.

### ④ 언재마을 산치성

- \* 매년 음력 10월 3일 밤 11시경 마을 뒷산 바위에서 산치성을 올렸다.

### ⑤ 갈매동 담터마을 산치성

- \* 매년 음력 3월 1일-3일 사이 날을 받아 단골 만신이 도당굿을 했다.
- \* 당집 앞에 참나무가 있었으며 산 할머니로 모셨다고 한다.

#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는 고양 진밭마을

한진수 / 고양신문 국장

## 1.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안곡고등학교에서 잣골 방향으로 가다보면 잣골 지역에 있는 고양 팔현 중 한 사람인 홍이상의 묘와 신도비(고양시 향토문화재 제13호)가 나온다. 그곳을 지나 0.7km를 더 가면 성석동 진밭마을이 시작된다. 현재 성석동(법정동)고봉7통 진밭마을은 창고와 음식점들이 양 쪽 도로를 따라 이어져 있다. 군부대와 물류센터, 카센터, 편의점, 가구공방 등도 논밭을 뒤로 하고 나란히 길가를 가로수처럼 메웠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지만 조금씩 변화를 가지며 현재는 논과 밭이 일부만 남아 있다. 예전의 전형적인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던 마을 구조는 거의 사라지고 개발이 가능했던 논과 밭은 대부분 창고가 들어서 있다. 도로를 따라 마을 왼쪽은 고봉산의 아래쪽으로 주택들과 중간 중간 각 가문의 문중 산이 위치해 있다. 도로 오른쪽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밭이 형성되어 있다. 왕복 2차선 도로는 인근에 창고가 많아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많이 다닌다.

1950년대에는 순수 주택 67여 가구의 마을로 제법 규모가 큰 촌락이었다. 현재는 예부터 그 터를 자리 잡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음식점 등을 포함해 16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이사가 잦은 군인아파트의 군인 가족들은 제외한 숫자다. 시대적 변화로 마을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성석동 마을 일부를 관통하고 이음을 단절시키는 김포-관산 간 대규모 자동차 전용 도로가 건설된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고봉산을 관통하는 터널까지도 만든다고 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가 더욱 심하다.

이 지역의 교육기관은 1945년 광복 전 명칭이었던 성석간이 학교가 유일했다. 이후에는 명칭이 변경되어 1957년 7월 이전까지 현재 진밭마을회관 옆 초가집 2개동의 성석국민학교가 유일했고, 조그마한 초가집 형태로 되어 있었다. 학생 수는 150여명이었지만 교실이 모자라 나무그늘 아래서 나무 꺾꽂이를 책상 삼아 교육을 받기도 했다. 초가집이었던 성석국민학교는 현재 진밭마을회관 자리가



2017년 9월 진밭마을의 모습.  
(앞 토지는 현 전주 이씨 종중 소유지다)





1486년(성화 22년)에 만들어진 함중 어씨의 묘지석. 성석동 지명이 당시는 고양군 북면 구이동리로 되어있다.



1970년대에도 있었던 초가집. 주변 개발로 현재 남아 있지는 않다. (함중 어씨 재실 인근)

운동장이었으며 1957년 8월 24일 지금의 성석초등학교로 옮겼다.

당시에는 마땅히 소풍을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 150여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1박2일의 일정으로 파주 광탄 보광사로 가기도 했다. 공릉을 거쳐 산을 타고 보광사로 향했다. 이곳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과 점심은 절밥으로 먹었다. 점심 식사 후 그곳에서 출발해야지만 저녁에 학교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소풍 장소 중 또 한곳은 마을 앞에서 보이는 고봉산 이었다 (김대연, 이재완님).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원래 진발마을은 이전교를 지나 오른쪽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인근이 진발 이라고 한다. 현재는 고봉산을 바라보고 고양자동차검사소와 군부대 옆 사당골에서부터 이전교를 지나 오른쪽 오래골 까지를 고봉7통인 진발마을로 통칭하고 있다. 현재 성석1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 명칭은 사당골, 아랫말, 동막골 고개, 구석말, 하모시(함못), 별말, 진발, 오래골, 진필(논이름), 웃물(우둔물), 뒷골 등이 있다.

지금 이곳 명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고봉7통) 진발마을이나 함중 어씨 양숙공파조 어세공의 묘지에서 발굴된 531년 전인 1486년(성화22년)에 만들어진 묘지석에는 이곳의 지역명칭이 경기도 고양군 북면 구이동리라고 되어있다. 국가기록원 정보 사이트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자료(1912년 생산)에는 성석1리를 고양군 사리대면 성리로 표기했던 부분을 지우고 벽제면 성석리로 변경했다. 북면 구이동리에서 사리대면 성리로 이후 벽제면 성석리로 변경된 시점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행정구역상의 명칭이 고봉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고양군 구이동면 성동리에서 고양군 구이면 성동으로 바뀐 것과는 조사 내용이 대조적이다.



## 2. 전주에서 순천, 그리고 함종

마을 구성은 고양시 씨족세거사에 의하면 1467년경 함종 어씨가 당시 성석리(구이동리)에 처음 정착 했고, 1480년경 전주 이씨, 1520년경 순천 김씨가 점차적으로 이곳 성석리에 정착하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진발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상 일산동구 고봉동 고봉7통이다.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재의 성석동이 성석 1, 2, 3, 4리였다. 고봉7통 진발마을은 성석 1리에서 제법 큰 마을이었다. 1950년대만 해도 순천 김씨 10가구, 전주 이씨 20가구, 함종 어씨가 10가구 정도 있었고 그 외 성씨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 2017년 10월 기준으로 마을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전주 이씨와 함종 어씨, 순천 김씨가 터줏대감처럼 마을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중 순천 김씨는 학문적으로는 김보연 현 고양시산림조합장의 부친인 김상인 씨가 본인의 집 사랑방을 마을 글방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천자문, 명심보감 등을 가르쳤다. 1950년대부터 순천 김씨가 학문에 대한 깊은 지식과 활용으로 마을 교육기관 역할을 한 것이다.

마을 이름 사당골은 순천 김씨가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사당을 지어 사당골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하모시는 함종 어씨들이 만들어 놓은 연못이 있다고 해서 함못이라 전해져 오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못은 없어지고 마을 이름이 그대로 함못이 또는 하모시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함종 어씨 역양 그자체가 세월이 흐르며 변화되어 하모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설도 있다. 이외에도 오래골 마을명은 “오얏 리(李)의 성씨인 이씨들이 많이 살아 오얏골이라는 지명으로 변했고 시간이 지나며 오래골로 바뀌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전해 내려오는 말이 정설로 굳혀졌다”고 김수정 진발두레보존회장은 말한다.

## 3. ㅏ ㅓ ㅕ 구조

대한민국의 집구조가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지만 성석동은 남동향으로 ㅏ(기역)자형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벗짚 지붕으로 이루어진 가옥구조였다. 현재는 개량된 주택들이 대부분이며 19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도 있다. 어한 전 고양



1970년대 초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뒤로 초가집들이 보인다.



1874년에 지어진 어수관 씨의 집. 1970년대에 지붕 등을 개량해 옛 모습 그대로는 찾을 수 없지만 일부는 남아있다. (2017년 10월)

문화원장(3,4,5대)의 아들이 살고 있는 어수관 씨의 집(1874년 신축)이 대표적이다.

또한 ㅁ(미음)구조의 가옥도 있었는데 대부분 부유한 집이었다. 현재는 ㄱ구조의 집은 없고 대부분 현대식 통자형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되었고, 슬레이트가 아닌 현대식 기와로 개량한 집들도 있다. 현재는 현대식 기와와 편평한 옥상식 구조, 삼각형 경사 지붕과 민자 슬라브 지붕형태의 창고 등이 형성되어 있다.

일산동구 안곡고등학교에서 고봉산 입구를 지나 진밭마을로 가다보면 이전교 삼거리 오른쪽은 현 성석초교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파주 봉일천으로 가는 길로 나누어진다. 이전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150m만 가면 왼쪽에 진밭마을회관이 있고 그 옆에 옛 성석초등학교의 터가 나온다. 지금은 싱크대 수리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전교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500m만 올라가면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진밭마을은 하늘에서 보면 ㅂ자 형태로 되어 있다.

#### 4. 농업지역에서 유통지역으로

진밭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며 대부분이 논과 밭이 있었다. 여름에는 보리, 겨울에는 쌀을 주식으로 했고, 60, 70년대에는 보리농사도 지었다. 마을이 변모하면서 대부분의 창고 형태의 유통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제조와 생산보다는 포장과 유통물류센터가 많다.

이곳에는 2017년 초반 방송을 타 유명해진 진밭 국수와 10여 년 전에 생긴 ‘힐사이드 카페’, 대보름 놀이가 펼쳐지는 논 앞의 ‘유성식당’과 ‘풍천장어’가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인근에는 군부대도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무형문화재 62호 홍석현 환도장(2017년 11월 21일 지정)이 진밭마을에서 전통도검을 제작하고 있다. 환도장으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장이기도 하다. 이곳 진밭마을은 대부분이 육류 · 식료품 · 공산품 · 수산물 유통 등이다. 현재 뒷골 쪽으로는 자연과 조화되어 고즈넉하니 조용한 곳을 찾다 진밭마을로 이주해 오는 외지인들도 많다. 여러 물류센터와 주거지역으로는 자가용만 있다면 생활하기 좋은 곳이다. 다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겁다.



진밭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사진은 농사 재현 모습이다. 2003년 추정.

## 5. 진밭두레 그리고 지신밧기, 대보름놀이

민속놀이, 농악의 대표적인 것은 고양시향토문화재 제42호인 성석농악 진밭두레보존회의 공연과 음력 정월대보름에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이다. 이 두 민속놀이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축제다. 매년 동네 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법 큰 규모다. 행사 준비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농악놀이 물품 보관은 진밭마을회관에 하고 있으며 회관 지하가 연습실이다. 하지만 여름이면 지하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 연습과 물품 보관에 어려움이 많다.

매년 대보름 행사를 하기 전에 진밭두레는 영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올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액운을 쫓고 복을 비는 지신밧기를 해오고 있다. 동네를 다니면서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가정은 제물을 차려놓고 두레패가 고사덕담을 하고 풍물을 울리며 집안을 돌게 한다. 정월에 췌소리를 내면 액운이 없어지고 복이 들어온다는 믿음에서다.

1960년대 진밭두레패의 농악놀이는 6월초부터 마을의 논에 김매러 가면 동네 사람들 30여 명이 모여 농기와 태평소, 팽과리, 제금, 징, 북, 장구, 소고 등으로 농민들의 흥을 돋아 주던 민속 두레패의 놀이다.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논에 나가 김매는 소리를 하면 밥도 먹을 수 있었다.

성석농악 진밭두레패는 일제 강점기 때 해체되었다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다시 만들어졌다. 성석동 진밭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오랜 전통의 단체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전통민속예술 풍물단체로 행주대첩제와 행주문화제, 고양문화원 공연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두레패는 풍물과 춤, 소리 공연 능력을 보유해 길놀이, 12채 가락, 앞은반 풍물놀이, 농사놀이 16마당, 지신밧기, 지경다지기 등 공연물과 농사소리로서 열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 지경소리,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등 소리와 고사덕담 등의 보유 공연능력이 다양하다.

2017년 9월에는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연령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성석동 주민들이다. 젊은이들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다.

2000년 진밭두레보존회가 작성한 제1회 진밭두레 정기 발표



고양군농업협동조합 구파발 주재사무소 개점식에서 진밭두레패가 축하공연 후 사진을 찍었다. 이재완 씨는 1967년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2013년 2월 23일(양력) 진밭두레패가 지신밧기로 마을의 액운을 쫓는 민속놀이를 하고 있다.



2017년 9월 23일, 경기도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경기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진밭두레보존회. 앞줄 왼쪽부터 이승엽 고양문화원 부원장, 방규동 고양문화원장, 김수정 성석농악 진밭두레보존회 회장.

회 추진 계획을 보면 2000년 11월 20일(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동안 일산 까루푸(현재 홈플러스) 미관광장(현 일산문화공원)에서 첫 진발두레보존회 첫 발표회를 가졌다. 사업개요는 우수 전통 민속사업. 진발두레 풍물의 보존과 계승을 위함이었고 사업목적으로는 고양의 진발두레 풍물을 점진적으로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신유희 씨가 보존하고 있던 추진 계획서류로 17년 전에 작성 된 것이다. 정월대보름놀이는 지역주민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지역축제다. 고양시에 가장 큰 규모의 대보름놀이이다. 길놀이 공연과 달마중 만들기, 농사소리 시범, 국악인 공연, 외줄타기 등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농사놀이공연과 대형달집에 소원종이를 묶고 불을 붙이고 태우며 불꽃놀이를 즐기는 축제다. 또한 참가자들은 불강통 돌리기, 연날리기 등을 체험하며 전통놀이를 시민 스스로가 이어가고 있다. 축제를 보러오고 민속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축제당일은 크게 붐빈다. 금년 정월대보름놀이는 2017 경기북부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취소되었다.

진발두레패는 처음 이의순 진발두레보존위원회 위원장이 이끌었고 이후 신유희 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2017년 현재는 김수정 회장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전통인 성석농악 진발두레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 6. 계원군과 어세공, 병조판서공 김지



일산동구 성석동 계원군의 묘 일대.  
2017년 10월

조선 제2대 왕 정종의 4세손이며 백성군(栢城君) 이원(李源)의 아들인 계원군(1469-1554) 이의가 있다. 그의 묘는 고양시향토문화재 제3호며 오래골에 위치해 있다. 계원군 이의는 1483년(성종 14) 계원부수(桂原副守)에 봉해졌으며 1502년(연산군8년) 종친시에에서 일등으로 합격해 명선대부의 품계에 올랐다. 1516년(중종 10년) 계원도정(桂原都正)으로 승진했고, 1530년(중종 24년) 정현왕후의 국장 후 학문과 덕행이 홀륭하다 하여 시릉종친(侍陵宗親)이 되었다. 1531년(정종 25년) 정의대부에 오르면서 계원군(桂原君)에 봉해졌다. 1542년(중종 36년) 종실명경자친림강론시(宗室明經者親臨講論試)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연로종친이라 하여 중의대부 자리에 올랐다. 1554년(명종 9년)에 죽었으며 시호는 장민(長敏)이다. 계원군의 묘 신도비 옆 벽오재는 진남군의 재실이다.



세조 14년(1432)에 출생해 성종 17년(1486)에 사망한 조선시대 문신 어세공의 묘가 진밭마을에 있다. 어세공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공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겸 세자좌빈객 등을 지냈다. 1467년도에는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함길도 관찰사로 난을 평정해 정충출기 적개공신으로 아성군에 봉해졌다.

어세공의 묘는 정부인 경주 김씨의 묘와 쌍분으로 되어있다. 화강암으로 되어있는 묘산비는 갓형으로 크기는 폭 60cm, 두께 22cm, 높이 100cm로 예부터 이 비는 하마비의 역할을 하였는데 고양시에서는 보기 드문 비다. 순천 김씨 입향조인 김수렴은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김유의 증조부인데 그의 막내 아들인 김지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승자총통을 개발하였으며 그의 사후인 1583년 엽진족인 니탕개의 난 때 승자총통으로 많은 전과를 올린 것을 기려서 선조가 병조판서로 추증하였고 그의 아들도 벼슬길에 나갔으나 임진강에서 임진왜란 때 순직했다. 김지의 묘는 사당골에 있으며 정부인 파평 윤 씨가 상하쌍분으로 되어 있고, 김지의 후손들인 순천 김 씨들이 모여살고 있다.

묘산비 : 선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비표.

하마비 : 말을 타고 비석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무덤 안 성현들에 대한 존경심인 듯하다.



함중 어씨의 선산. 멀리 왼쪽에 보이는 제실과 오른쪽에 하마비 역할을 했던 묘산비가 세워져 있다. 어수관 씨는 묘산비의 크기를 실측했다.  
(두께 7치 \* 가로 2자 \* 높이 3자)

## 7. 마을 산제사

진밭마을에서는 봄, 가을 두 차례씩 고봉산신을 주신으로 하는 산제사를 마을 주민들이 수백 년째 지내오고 있다. 고양시의 다른 마을에서도 산제사를 지내왔지만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여건에서, 진밭마을은 제사형식의 산제사를 지내오는 것이다.

산제사를 지내기 전에 마을을 크게 사당골, 하모시와 진밭, 오래골로 나누어 각 자연마을에서 3명의 하주를 뽑아서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그 중 가장 연장자가 상하주, 그 다음이 중하주,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하하주가 되며 직전 산제사를 지내고 나서 차기의 하주를 뽑는다. 하주가 되는 조건은 부부가 건강히 생존해 있어야 하고 우환이 없어야 한다.

하주들은 그믐날 모여서 산제사 터와 우물을 청소하며, 초하루 날은 제일 먼저 산제사 터에 가서 제사에 쓸 \*조라술을 담근다. 그 다음은 집집마다 방문해 성금을 걷어 제수를 구입하고 초이튿날



수 백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진발마을의 산제사 (2013년 11월).

까지 제수를 만들어 초사흘 날 해 뜨기 전에 산제사 터에 모여 상. 중. 하하주 순서로 제사를 지낸다.

제수는 마을에서 정해놓은 물목을 정해 준비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터부(금기사향)가 많은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하주로 선정이 되면 대문 앞에 붉은 흙을 깔고 산제사 기간이 되면 마을에 들어온 손님은 산제사가 끝날 때까지 마을 밖으로 나 갈수 없고 마을에 있는 주민은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지금도 하주로 정해진 경우에 집에서 출산을 하거나 병이나 상을 당하면 산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다음 달 초하루로 산제사 날짜를 바꾼다.

산제사는 해뜨기 전까지 상하주, 중하주 까지 고봉산신을 위해 본 제단에서 지내고 다른 토지 지신에게는 옆에 있는 작은 제단에서 수수깥에 창호지 띠를 끼워 만든 깃대 3개씩과 함께 조촐하게 만든 제수를 놓고 지낸다. 해 뜰 무렵 마을사람들이 모이면 하하주 제사와 차기 하주들이 결정되면 이를 고하는 산제사를 끝으로 지낸다. 그리고 나서 제수를 음복 및 음식을 나눠먹고 제수를 골고루 나눠서 집으로 가져간다. 산제사에 못 오시는 노인들 뒹과 차기 하주들 뒹을 챙겨서 전달한다.

“고봉산신에 대한 산제사는 소홀히 했다가는 큰일 난다”며 “고봉산신이 매우 영험하다”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말씀하신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 1년에 두 번 지내던 산제사를 1번으로 줄여 지냈다가 마을 젊은이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 다시 봄, 가을 두 번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산제사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발전, 마을 주민들의 영달 및 부귀영화와 단합을 기원하는 것으로 기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 졌지만 마을의 대동단결과 친목을 도모했던 옛 조상들의 슬기가 돋보이는 행사로서 그 가치가 크다 하겠다.

\*조리술 - 산신제나 용왕제 등의 제사를 지낼 때 제주로 쓰이는 술

## 8. 마을의 특징

이전교를 중심으로 Y자형 형태의 왕복 2개 차로며 마을 뒤편에는 당대 벼슬가와 각 가문의 문중 산과 사당 또는 재실이 있다.

마을은 주민들과의 단합이 항상 잘되고 있다. 마을회관이 그 뒹을 톡톡히 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징을 한번 울리면 자연스럽



게 마을주민들이 모였다고 한다. 지금은 마이크 등 음향시설이 발달되면서 동네주민들에 게 정보와 알리를 마을방송으로 하고 있다. 매년 8월 마을잔치 단합대회와 함께 성석농악 진발두레 공연도 있다.

잔치에서는 마을 고령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을 극진히 공경하고 있다. 이 날은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부녀자들과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의 상공인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공연을 보여준다. 또한 초대된 상공인들은 마을을 위해 협찬을 하며 상부상조의 형태를 유지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발마을은 비가 오면 물론이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으며 흙을 적셨고, 너무나 흙이 질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진발마을은 “땅이 질고 차져서 진발의 쌀밥을 먹고 죽은 시체가 무겁다”거나 “같은 무게의 쌀을 저울로 달면 다른 지역보다 쌀의 부피가 적었다”는 말이 내려올 정도였다. 그렇게 흙이 찰진 지역이며 지금도 일부 논이나 밭은 진 흙 성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도로가 시멘트 포장과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진흙이 없어 다니기는 편하다.

고봉7통은 점진적으로 마을의 형태는 변하고 있으며 창고와 물류센터가 계속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발은 좋은 곳도 많다. 도로에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환경이 좋고 나무가 우거진 곳에도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도로 주변은 상업 중심으로 한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안쪽으로 마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고봉산을 인근에 두고 둘레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어울리는 듯 각 문중의 재실들이 오랜 전통의 마을임을 알려주고 있다.



김수정 진발두레보존회장(왼쪽)이 마을단합대회에서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17년 8월 26일 이천마을회관)

## 9. 마을의 상징



지덕노체 4H구락부(왼쪽), 이천청년회(오른쪽) 이천마을의 상징이었다. 시멘트와 모래로 만들었다.  
(1970년 초 추정)



농악사랑 이천마을회관, 성석농악 진발두레보존회의 연습실도 이곳에 있다.(2017년 8월)



현재 흙으로 매운 이곳 지명은 쇠귀였다.  
흙이 많이 질어 "이곳에 소가 빠지면 소의 귀만 보인다"고 해서 쇠귀라고 했다. 멀리 고봉산이 보인다.

### 사진 제공

- 김수정 님, 어수관 님, 함종 어씨 문중, 전주 이씨 문중, 진발마을회관

### 조사 자문

- 김대연 님(1946년생) 10월 27일(금)
- 김수정 님(현 진발두레보존회장) 2017년 8월 26일(토), 10월 22일(일), 11월 21일(화)
- 신유희 님(전 진발두레보존회장) 2017년 8월 26일(토), 9월 1일(금), 9월 23일(토)
- 어수관 님(어한 전 고양문화원장 아들) 2017년 9월 1일(금), 10월 11일(수), 10월 23일(월), 10월 30일(월)
- 이계희 님(전 진발두레보존회장) 2017년 11월 1일(수)
- 이재완 님(현 고봉7통 노인회장) 2017년 10월 31일(화)
- 이영찬 님(현 고양향교 전교) 2017년 11월 8일(수), 11월 21일(화)

### 고봉7통(진발마을 2017년 10월 말 기준)

- 거주 인구-720명 / 총 384세대 / 고양시 인구-104만
- 일산동구-292,612명 / 고봉동 전체-18,192명

### 기록 참고 미디어

- 고양군지명유래집(1991년 고양문화원 발행), 인터넷 위키피디아, 국가 기록정보원(인터넷), 고양씨족세거사(201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고양시씨족협의회)

## 기록 후기

김수정 성석농악 진발두레보존회장과 김대연 씨, 어수관 씨는 기록과 사진에 대한 애착이 컸다.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을 중심의 풍경 사진은 찾기 힘들었다. 어수관 씨는 개인적인 인물 사진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진, 한국전쟁 이후의 일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을 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역사적인 사진과 기록물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아쉬웠다. 하지만 이 기록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더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대연 씨는 현재(2017년 10월 27일) 척추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 허리가 완쾌되면 마을기록을 위해 사진을 찾아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이재완 고봉7통(진발마을) 노인회장도 마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다.

고양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고양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후대를 위한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생전에 그분들의 고증과 사진을 조속히 조사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오래된 역사도 좋지만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기록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고 기록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요 역사다.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의 사진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진짜 역사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아닌 사진과 기록을 통한 진짜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록을 위해 협조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고양신문 한진수 네트워크 국장  
2017년 11월 22일(수)

# 동막이 추억 가득한 고양 노루뫼마을 이야기

이옥석 / 고양신문 기자

## 〈목 차〉

1. 노루뫼마을 개관
2. 노루뫼마을 지명유래
3. 노루뫼마을의 역사
4. 노루뫼마을의 산업
5. 노루뫼마을의 성씨 구성
6. 노루뫼마을의 민속
7. 노루뫼마을의 인물

## 1. 노루뫼마을 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의 노루뫼마을(장산마을)은 고양시로 승격되기 이전, 고양군 송포면 구산2리였던 곳이다. 고양시의 서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나가는 삼도꿈(삼거리)에서 약 3~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서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강을 건너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봉성산과 마주보고 있다. 북쪽으로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심학산과 접하고 있는 송포평야의 한 가운데 작은 섬처럼 있는 산인 장산 자락에 펼쳐진 마을이 노루뫼이다. 장산 즉 노루뫼는 해발 약 50~60m 높이에 6천여 평 정도 되는 낮고 작은 산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약 150여 호의 가옥에 380여 세대, 인구 800~1,000여 명이 살고 있다.

노루뫼마을은 크게 윗끝, 아랫끝, 뒷필, 새마을 등으로 구분 짓는다. 윗끝은 장산 머리 부분에 위치한 곳이고, 아랫끝은 송포교 회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뒷필은 장산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데 몇 가구 안된다. 새말은 생긴 지 약 70여 년 되었으며, 전에 4세대가 살다가 현재는 1가구만 있다.

마을 서쪽으로 자유로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며 구산IC를 통해 마을로 진입할 수 있고, 마을 동쪽으로 제2자유로가 지나가며 장산 가좌IC를 통해 마을로 들어올 수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 2. 노루뫼마을 지명유래

노루뫼마을은 장산마을로도 불리지만 노루뫼라는 지명으로 더 유명하다. 산의 생김이 노루가 새끼를 품고 있는 형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노루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한강제방이 준설되기 전에 노루뫼마을 앞쪽인 동쪽의 높은 지대를 제외하고 서쪽 남쪽 북쪽의 삼면이 저지대였다.

한강제방이 생기기 전까지 장산 주변은 넓은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노루, 너구리 등 많은 들짐승들이 살았는데, 여름 장마철이 되면 갈대밭으로 물이 들어차게 되어 장산으로 피하었는데, 유독 노루가 많았다하여 노루장(獐)과 뫼산(山)을 붙여 장산(노루뫼)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노루뫼마을의 역사

고양시는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를 거치면서 큰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특히 1992년 2월 1일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되었으며, 2005년 5월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되었다. 노루뫼마을은 이때부터 일산서구 송산동에 속하게 되었다.

노루뫼마을 변화 발전의 가장 큰 계기는 한강제방 축조라고 볼 수 있다. 을축년이었던 1925년의 4차례에 걸친 대홍수로 서울을 비롯하여 충청도와 경기도 특히 한강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한강제방이 축조되었다. 이후 농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갖춰지면서 노루뫼를 비롯한 송포 송산 지역은 생활형편이 나아질 수 있었다.

벼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내던 이 지역은 일산신도시개발 발표가 난 다음해인 1990년 9월에 발생한 홍수와 한강둑 붕괴로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한강 하류에 위치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노루뫼마을 주민들은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가축을 데리고 장산으로 피신을 해왔었다.

그러나 1990년 새벽에 한강둑이 갑자기 터졌을 때는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어 주민들은 옷가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마을 전체를 침수시켰던 물이 빠지고 나자 노루뫼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결국 마을 집들 대부분을 새로 지어야 했다.

노루뫼마을 인근의 대화리와 주엽리 그리고 그 후 가좌리 등



장산에서 바라본 노루뫼마을(윗골마을)

에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자유로의 구산IC와 제2자유로의 가좌IC가 생기면서 개발에서는 소외되었지만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그 후 고양시 관내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장항 대화 송포 송산동 일원 2천816만6천㎡에 일명‘JDS지구 개발’이 계획되었다가 해제되기도 했다. 또한 인근 일산신도시의 한류월드, 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건설 등이 추진되면서 교통의 요지인 노루뫼마을 역시 지역 개발 및 발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 4. 노루뫼마을의 산업

**농업** 고양시 지형은 동고서저형이고, 서쪽에 해당하는 일산과 송포동 일대 특히 노루뫼마을은 해발 5~8m 정도의 낮은 평야지대였기에 한강범람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곳이다.

노루뫼마을 토양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밀물과 썰물에 의해 쌓인 모래찰흙이다. 2013년 거래문화유산연구원에서 펴낸 『고양시의 고고학이야기』에 보면 ‘구산동 장산마을 주변의 토질은 오랜 침식작용과 한강에 의한 토사운반 작용으로 매우 비옥하며, 여기서 생산된 쌀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구산동을 포함하여 일산서구 일대는 풍화가 심하며, 기반암이 토양화되어 모래찰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모래찰흙은 물빠짐이 좋지만 가뭄이 들었을 때는 몹시 취약한 토질이어서 마을 주민들은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송포평야 한 가운데 있는 노루뫼마을의 주요 농작물은 벼이다. 아끼바리라고 불리는 추청벼를 심었고, 70년대 이후 반강제적으로 통일벼를 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청을 비롯해 고히시까리 등 여러 품종의 벼를 심고 있다.

이 지역은 경기 북부지역이어서 이모작하기 어려운 날씨였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1960~70년대에 보리와 쌀 이모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모내기가 늦어지게 되고, 결국 추수가 늦어지면 베어 놓은 벼를 타작도 못하고 보리를 심었다. 이 사이에 가을철새인 기러기들이 떼로 날아와 베어놓은 벼를 깔고 앉아 흐트러놓고, 벼이삭을 쪼아 먹으며 한 해 농사를 망쳐놓기도 했다. 또한 봄에 보리 추수를 위해 베어 말리는 과정에서 비가 오면 모내기 위해 논에 물을 잡아야했고, 그러다보면 베어놓은 보리가 논에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



한강 제방이 없던 시절, 이 지역은 하루에 2번 조수물이 드나 들었으며 갈대가 무성한 황무지였다. 제방도 수리시설도 없는 때라 가뭄이 심하면 밀물 때 바다물까지 밀려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럴 때는 흙에 벤 간기(소금기) 때문에 작물 재배가 힘들었다. 장마 때에는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콩, 들깨 등 물에 약한 작물의 피해가 많았다. 지금은 한강제방이 생긴지 오래고, 땅의 소금기도 씻겼고,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어렵게 농사짓지 않고 있다.

**어업** 노루피마을에는 서북쪽 자유로와 나란히 흐르다가 구산 배수펌프장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장월평천이 있다. 장월평천은 구산배수펌프장 가까이에 가면 폭이 약 50~100m 정도로 넓어져 셋강이라 부를 정도다. 수리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그 물을 타고 들어온 큰 배가 이 곳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여 쉬어가는 터가 있었다고 한다. 인근 수노루라고도 불리는 거그뽕(거그메, 거북뽕)에도 중선을 묶어뒀다는 곳에 대한 증언이 있다. 노루피마을에 유명한 부자였던 양명호씨도 중선배를 몇 척 보유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과거 노루피마을 주민들은 농업 외에도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선배에 관한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중선배는 길이 13m 너비 4m 10여 톤 급의 범선으로 일종의 소형 안강망어선이며,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어로작업이 가능하여 강이나 바다에 닻을 고정시킨 다음, 그물을 설치하여 물때를 이용 방향을 전환하면서 어로작업을 하였다.’<sup>1)</sup>고 한다.

행주동에 거주하는 강홍강(74세)씨는 행주나루터에 관한 정보가 많다. 나루터와 중선에 대해서는 선친과 선친의 친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 또한 1961년부터 1962년까지 협창토건회사 현장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중선배를 직접 타기도 했다고 한다. 행주산성 아래 돌산에서 돌을 실어 장월 넘어로 가져가 제방 붕괴를 막는 작업을 한 경험도 있다.

그에 따르면 ‘중선배는 최소한 길이 42~45자로 약 15m 정도였으며 돛대가 3개라고 한다. 가운데를 한판(폭이 5m), 앞을 고물, 뒤가 이물이라고 한다. 인천에서 각종 생활품을 싣고 마포까지 싣고 가는데 한 물 즉 12시간에 3시간 올라오고 9시간은 내려간다.



1930년대 우리나라 어민들에 보급되기 시작한 중선배.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서 제작돼 나가사키선 또는 일중선이라고 불렸다.  
(출처-『경인일보』, 2014-04-24 제9면)

1) [네이버 지식백과] 중선배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전통한선 복원), 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출처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우리배.고기잡이』)

밀물이 들어올 때보면 물이 구르듯이 힘차게 들어온다. 음력으로 14~16일 사이 만조, 사리 때인 아침물(아침물은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 밀물이 처음 시작되는 때를 말한다.)에 인천에서 출발하면 점심때쯤 행주에 도착하고, 30분간 밀물이 멈추는‘참’이 있고, 그 후 9시간 내려갔다(썰물이 되었다가)가 다시 저녁물이 올라오면 그 물을 타고 마포에 도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1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중선에는 트럭 5~6대 분량을 싣기 때문에 물살을 이용하지 않으면 배를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황해도 연안으로 갈 때는 9시간 내려가는 썰물을 이용해서 내려가는데 때로 노루피나 거구메 등에 멈췄다가 내려가기도 했다.

중선배를 소유할 정도면 매우 부자였다. 서울의 절두산 앞 밤섬 앞에 배를 짓거나 인천, 황해도 등에서 만들었다. 중선에 황해도 연안으로부터 돌기와의를 싣고 오거나 인천에서 새우젓 등을 많이 싣어 왔다. 마포 용강동, 잠실쪽 등에 돌기와집을 지었다. 행주에 돌기와로 지은 집이 최근까지 있었다.

**부업** 송포동, 송산동 일대에 이르는 한강연안은 1920년대 말까지만 해도 습지였다. 그래서 습지에서 자생하는‘갈당’, 즉 갈대가 많았고, 주민들은 그 갈당을 이용하여 빗자루, 발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현재는 경지개발로 인하여 농경지로 전환되었다. 법곳리에 사는 심명보씨의 증언에 따르면 산이 거의 없던 이 지역에서 갈당은 땀감으로도 유용했다고 한다. 현재 장항습지로 유명한 한강습지에 마차를 끌고 들어가 갈대를 베어 몇 수레를 해와 겨우내 땀감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6차산업** 넓은 송포평야 한 가운데 위치한 노루피의 주요 농산물은 쌀이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비타미나무, 딸기농장,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고, 체험농업으로 전환하여 6차산업화를 시도하며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공장 및 임대업** 현재 주변지역 개발과 교통의 발달 등에 힘입어 창고,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섰다. 아직까지 장산마을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지만 대규모의 책 물류창고를 비롯한 창고임대업과 펄프공장, 기계부속 공장, 열쇠공장, 태양광설치 공장 등이 들어서서 현재 노루피마을에는 집 보다는 창고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형편이다.

## 5. 노루뫼마을의 성씨 구성

약 300년 전 이 마을은 남원 양씨, 전주 이씨, 남양 홍씨 등 약 40여 호가 함께 살았다. 현재는 약 150여 호, 380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남양 홍씨는 타지로 갔고, 남원 양씨가 18여 호 25여 세대로 가장 대성을 이루고 있다.

남원 양씨가 장산마을에 뿌리를 내리게 된 이야기가 양씨 집안에 전해온다. 300여 년 전, 김포군 검단면의 남원 양씨 집성촌에 살던 충각이 고양시 노루뫼 쪽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빛에 이끌려 한 강을 헤엄쳐 건너오게 되었다.

한강을 건너오느라 지치고 갈증을 느껴 우물가에 갔다가 물 깃는 처녀를 만나 그녀에게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셨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처녀와 결혼하여 이 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분의 묘는 현재 양씨의 선산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리에 있다.

## 6. 노루뫼마을의 민속

**송포호미걸이** 송포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된 ‘송포호미걸이’가 있다. 벼농사 짓는 곳이라면 어디나 김매기를 끝낸 후 호미걸이를 한다. 펄럭이는 농기를 세워두고 두레로 협동하여 모내기를 하고, 잡초 제거를 하는 김매기를 끝내고 나서 호미를 잘 씻어 기름을 발라서 기둥이나 높은 곳에 걸어서 내년을 기약하는 행위가 호미걸이다. 이때 마을 주민들은 두레가락을 치며 흥을 돋우고, 막걸리와 떡이나 빈대떡 등을 준비해서 한 해 농사의 첫 작업을 끝낸 것을 기념했다.

**동막이(물막이)** 이 지역에서 연례행사로 실시했던 수리시설을 만들던 행사다. 동막이란 물을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일로, 큰 내를 막아서 물을 가두는 것이다. 둑막이라고도 한다. 모내기 보급과 함께 봄철 물이 꼭필요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물을 가두었다가 모내기를 할 때 사용했다. 노루뫼를 비롯하여 송포, 송산지역에서는 수리시설이 생기기 전, 동막이를 했는데, 한강을 통해 서해바다와 가까이 있었던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조수간의 차를 이용하여 동막이를 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조수에 따라 물이 하루 2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밀물 때 물이 들어와 멈추는 잠깐 사



동막이를 했던 장월평천



오갑문이라 불리는 구산배수펌프장

이에 막아두었다가 가물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물막이다.

동막이가 생긴 것은 일제 말기 한강제방이 생긴 후의 일이라고 한다. 제방이 없을 때는 만조 때 조수물이 들어오면 온 들판이 물 속에 잠기게 되어 물을 막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가물이 심할 때에 밀물이 되면 한강물이 바닷물에 밀려들어올 때 바닷물이 함께 들어와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흉작을 맞기도 했다.

장마 때는 물이 범람해서 농사짓는데 많은 애를 먹기도 했다. 장월평천이 곧게 구산배수펌프장의 오갑문까지 연결된 것도 고양수리조합이 시작될 때 만들어졌다. 옛날 장월평천은 이리저리 꾸불꾸불했다. 그러니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물이 장월평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위로 넘쳐서 논이 물에 잠기곤 했다.

그런데 장월평천을 곧게 만들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오갑문으로 바로 빠져 나가게 되었고, 조수물도 오갑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버리게 되었다.

옛날 꾸불꾸불한 장월평천 오갑문 앞에 자리를 잡고 동막이를 하게 된 것이다. 수리시설이 없어서 모심기를 제 때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가을 농사가 끝나면 바로 동을 막고 겨우내 물을 받아 봄이 되면 그 물을 논에 퍼서 농사를 지었다.

이 물막이 작업은 장월평천에 이어진 농지를 갖고 있는 동리 사람이 모여 하는 작업이었다. 법곶동의 도촌, 서촌, 동촌 구산동의 장산(노루피), 장월, 중촌, 향정 그리고 인접한 파주의 산남 등 7개 동리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 물막이에는 한 가구당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수십명 많으면 백여 명이 동원되었지만 장비는 삽과 지게가 고작이었고 썰음으로 엮은 섬을 준비했다. 우선 동막이 할 자리를 잡은 후 높은 지대의 밭이나 논흙을 동리 사람들이 지게로 퍼서 동막이 할 장소로 운반하여 양쪽에서부터 막아왔다. 그리고 가운데 지점은 섬에 흙을 담아 쌓았다. 이때 조수물을 잡기 위해서 둑 가운데 부분을 약간 낮게 만들어 놓는다. 조수물은 3시간을 밀려들어오다가 잠시 움직임을 멈춘다고 한다. 그때를 ‘참’이라고 하며 약 30여 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조수물이 들어와 움직임을 멈추고 수평을 이룬 ‘참’때의 순간이 되면 흙을 넣은 섬으로 둑 가운데의 낮게 만들었던 부분을 급히 막는다. 이렇게 조수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을 가둔 후에는 부대나 가마니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흙으로 성토를 해야 한다. 동막이를 하는 일은 지게로 흙을 퍼와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동

네에서는 흙을 한 짐 부릴 때마다 썰렁을 한 개피씩 줬다고 한다. 봄철이 되면 동에 고인 물을 퍼(양수)서 논에 물을 잡어 못자리와 모심기에 이용했다.

### 〈가좌리 이영극씨의 동막이에 관한 이야기〉

수리조합 되기 이전이야. 벼 다 끌어들이고, 논에 물 잡기 위해서 각 논자리마다 물꼬를 전부 튼튼히 막어. 그래야 물을 잡거든. ‘강보지킴’이라는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책임을 지고 하지. 한 집에 하나씩 나와야지. 의무감으로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동막이 있는 날은 짚을 몇 단 짚어지거나 영(염)을 묶거나 해서 동막이 장소로 와야 돼. 짚으로 섬을 엮어서 흙을 퍼다가 섬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로 물 나가는 개울을 막는 거야. 개울을 막으면 그게 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겨우내 눈이 오고 그러면 물이 그냥 허허벌판이 되는 거지. 동을 막았으니 그 위루다가 깊은 논, 얕은 논 할 것 없이 다 짝 차는 거지. 그래가지고 봄에 관개를 하면서 높은데다가 못자리를 만들지. 못자리 만들기 위해선 저기 용두레루다가 물을 푸고 그렇지.

동막이를 어디에 했냐면 가좌천에 있고, 고리포라고 도로가 없을 적에는 고리포교에도 하나 있고, 대장구니동 하나 있었고, 히도교, 한산교, 덕이교, 자방창리에 한 군데 있었고, 두신교에 있고, 일고여덟개 있었지. 잡는 부위가 계단처럼 자꾸 밑에다가 잡고 잡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음송굴동은 높이 길이가 4~5미터 되지. 국유지인 구거부지에서 흙을 파는 거야. 그 흙짐을 부리고 부리고 하는 거지. 겨우내 물을 잡게 되면 여기서부터 일산까지 겨냥 스케이트 타고 다녀도 된다고. 여러 군데서 하니까 송포평야가 다 그렇게 되지.

(2013, 『고양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발간)

**장산두레** 우리나라 농촌 마을에는 대부분 공동노동조직인 두레패가 있었다.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협동하여 농사 짓기 위해 결성되는 것인데, 300여 년의 마을 역사가 있으며, 송포평야 한 가운데 있던 노루피마을 역시 두레가 있었을 것이지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2012년 장산두레패 재결성 기념 공연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남사당의 활동이 쇠퇴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던 경기 남사당 상쇠 조삼현씨가 처가가 있던 노루뫼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장산두레패를 결성하여 인근 지역에서 으뜸가는 두레패로 성장시켰다고 전한다.

장산 마을에 두레패가 결성되면서 마을의 협동조직으로서의 두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결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장산두레패의 상쇠는 조삼현씨였고, 이후 일제의 공동체 활동 탄압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시기를 지나 해방을 맞았을 때는 부쇠였던 ‘양영환’씨가 상쇠를 맡아 다시 두레패를 활성화시켰다. 힘이 장사여서 20여 년 전에 기수를 했던 김성복씨가 해방 후에도 기수를 맡아 농기싸움을 이끌었다. 해방 후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기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기에 두레패는 농촌생산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그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5년 후인 1955년 부쇠 ‘이금봉’이 상쇠역할을 맡아 장산두레패를 부활시켰다. 1960년대는 장산두레패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농촌 마을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농업노동 뿐만 아니라 마을 경조사, 주택건축 등의 일에 두레패가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60년대 장산마을 두레패의 상쇠는 부쇠였던 장익성이 대를 이었다.

1970년 말부터 농업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전국 농촌의 젊은 인구는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제초제가 등장하면서 두레의 가장 큰 행사였던 김매기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

었고,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등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장산두레를 비롯하여 전국 농촌에 존재했던 두레는 빠르게 사라졌다.

장산두레패는 약 30년 만인 2011년 말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2011년 어르신 생활문화전승사업’의 영향으로 현 회장인 양재문씨를 중심으로 재결집되었다. 장산두레패의 부활은 장산마을의 고유 가락을 그대로 살려냈다는 것과 30여 년 전 활동했던 두레패들이 그대로 다시 참여하여 두레의 전통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기싸움** 해방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이곳 송포 들판에는 여기저기 농기가 펄럭이고 김매기 작업하는 곳마다 북소리가 한창이었다. 김을 매러 나갈 때 두레패는 농기를 앞세우고 호적을 불며 팽과리, 북, 장고 등으로 마을 두레가락을 치며 흥겹게

일터나 나갔다. 일터에 도착해서 농깃대에 끈 3개를 달아 메서 세 방향으로 잡아 당겨 삼발이 형식으로 농토 바닥에 고정시키고 가지고 나온 악기는 선소리꾼이 치는 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끈에 달아놓았다.

장산마을의 농기는 대략 지름 10~15cm, 길이 6.5~7m의 대나무에 6m 정도의 깃발을 달고, 대나무 맨 위에 장목(뽕털)을 꽂았다. 깃발 머리 부분에 용두(용의 머리장식)를 달고, 깃발 끝에 매듭을 달았다. 깃발의 모양과 장식은 각 동리의 전통에 따라 다르다.

하루의 작업도 거의 끝나고 술이 거나하게 된 상태 귀가하는 길에 우연찮게 각 동리의 농기가 서로 만나는 순간이 있다. 저쪽에 다른 마을 기가 보이면 자기 마을의 위용을 보이려고 신이 나서 풍물을 두드리고 북구춤, 막춤을 추다가 농기싸움을 시작했다.

두레로 모인 주민 중에는 나이 많고 리더십 있는 사람인 ‘영자’와 나이가 젊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 ‘조사’가 있다. 조사가 몇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영자에게 기싸움에 관한 재가를 얻으면, 상대방의 기를 향해 경연을 신청하는 신호인 ‘중북’을 울린다. 북소리는 처음에 큰소리로 땅땅땅 치다가 차츰 소리를 죽여가면서 약 1분 정도 울리기를 3회 반복한다. 이때 상대방에서도 마주 중북을 울리면 기싸움이 시작된다.

서로 풍악을 울리며 서로 다가와서 20~30m 거리에 서로 기를 세운다. 흥겹게 풍물을 치다가 풍악소리가 멎으면 각 두레패



장산두레패 깃발

5~10명이 자기편의 깃대를 잡고 방비하고, 나머지 인원은 상대편 깃대로 달려가서 서로 밀치면서 깃대 맨 위 장목을 뽑는다. 장목이 뽑히면 기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기싸움에서 패한 기는 승리한 기를 향해서 큰 원을 그리며 돌려 깃대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승리한 기는 반절로 화답했다. 이후에는 서로 자기 동리의 풍악을 치며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그날 논김을 맨 주인들은 술과 안주를 갖고 와서 대접했다. 그 후에도 싸움에서 패한 기는 승리한 기를 만나면 정중히 절을 하고 지나치는 것이 풍습이었다.

**고사** 노루피마을에서 무속신앙을 믿는 가정에서는 뒤뜰에 작은 움집모양의 터줏가리를 만들어 뒀다. 내년 농사지를 곡식을 담은 작은 항아리를 한지로 막은 후 터줏가리 안에 넣어두고,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봄과 상달이라고 불렀던 음력 10월 추수를 마치고 팔시루떡과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준비하여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낼 때는 터줏가리와 벽장이나 다락에 만들어 둔 조상신 그리고 장독대, 변소, 창고, 부엌, 대문간 등에 준비한 음식을 놓고 두 손을 모아 빌며 고사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원하는 일이 있으면 원하는 때에 도당나무에 가서 빌기도 하고, 안마당에 떠서 장독대나 앞마당에서 상 위에 정한수를 담은 물동이와 촛불을 올려놓고 빌기도 했다.

**도당굿** 노루피 사람들은 장산의 영험함 때문에 이 산에서 돌맹이 하나, 나무 한 그루도 건드리는 일을 꺼려했고, 산을 달래려고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도당굿을 행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어 왔다.

도당굿은 장산마을 사람들이 약간의 음식을 준비해서 장산 위에 수령 약 300년 된 도당나무인 엄나무에 가서 가정의 안녕과 풍년, 동리의 평안을 빌던 것이 마을 굿이 되었다.

도당굿을 할 때는 동리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날을 정하고 비용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출해서 사용했다. 도당굿에는 재력과 덕이 있는 사람을 상당주로 정하고 상당주가 중당주 하당주를 정해서 굿 전반에 대한 일을 총괄했다.

상당주는 조라술을 준비한다. 중당주는 상당주를 보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하당주는 굿 날짜가 잡히면 상당주와

중당주를 보필하고, 도당나무와 마을 입구에 인줄을 매고 잡인 출입을 금지하고 피를 보는 부정은 물론이고 부부간의 금육까지도 단속했다.

마을로 들어온 무녀 3~4명과 해금, 피리, 태평소, 장구, 징 등의 악사는 도당나무 앞에서 주당을 물리고 부정을 친다. 첫 장구 소리를 낼 때는 액을 쫓는다 하여 주민들의 참석을 금한다. 산장거리, 산신불사놀이, 작두걸이, 산황걸이, 대감놀이, 신장놀이, 성주걸이, 창부걸이 마지막으로 동리 안녕 평안을 빌고 액을 막는 뒤전(뒤끌이)으로 마무리했다.

## 7. 노루뫼마을의 인물

**양주식(양명호)** 노루뫼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양주식(양명호)씨가 있다. 그는 서울 무악재 넘어 땅이 제일 많은 부자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큰 배도 여러 척 있었다고 한다. 송포평야에 큰 폭으로 만든 논은 거의 다 양명호씨 소유였다. 그의 집 외양간에는 논을 가는 소가 3~4필, 1년 새경(품삿) 받는 일꾼이 3~4명씩 있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베풀어서 그의 집 사랑채에는 장사치는 물론이고 오고갈 데 없는 사람들까지 기거하는 등 늘 많은 사람이 붐볐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고달팠다.

그는 새벽이면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아침 식사 짓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집을 눈여겨보았다가 내려와서 큰 아들에게 “창환아 누구네 집에 식량이 없는지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가서 보고 곡식 좀 보내줘라.”고 말했다. 양창남씨는 그 당시 송포면장을 지낸 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늘 잘 들었다. 이 때문에 모내기를 할 때면 온 동리 사람이 모여들어 모를 심었다.

노루뫼마을에 있는 ‘동이논’도 양부자와 관계된 지명이다. 용두리(용머리)에 살다가 다시 노루뫼로 온 조카가 살기 어려워 양부자를 찾아와 도와줄 것을 청하자 제일 좋은 땅 4,000평(20두락)을 주었고, 이 땅을 받은 조카는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 후에 피죽 한 동이를 갖다드렸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동이논’이다.

양주식씨는 지역 주민들도 위했지만 특히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추수 때는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마름이란 사람이 타작마당에 나와 철저히 감시를

했지만 탈곡할 때 나오는 뒷목 즉 북데기에 떨어진 낱알을 감쌌다가  
군자금으로 보냈다. 이 일에 양주식씨가 리더 역할을 하였다.

양명호씨는 동양척식회사 주주 역할을 하면서 일본인이나 그  
앞잡이의 눈가림 역할을 철저히 했다. 항상 사람이 들끓었던 양명호  
씨네 사랑채에는 장시치 또는 직업을 찾아 이곳까지 온 사람들, 이  
곳에 정착하려는 사람, 품팔이 할 사람들도 있었고, 군자금을 갖고  
갈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일제 말기 황군이란 명목으로 소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  
제 모집할 때 노루피마을에는 한 사람도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하  
지만 징용이란 명목 하에 양다성씨에게 징용 영장이 나왔을 때 양명  
호씨는 소유하고 있던 중선배 한 척에 양다성씨를 피신시키고 직접  
배를 몰고 연평도로 피신하여 조기와 소금을 나르는 뱃사람이 되었  
다가 해방 후에 귀가했다고 한다. 노루피마을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존경받았으며, 그의 말이 곧 마을의 법이었다. 그는 해방 후 83세였  
던 1949년 작고하였다.

## 맺음말

노루피마을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했지만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정도였다.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오랜 세월 마을에서 사셨던 분들  
게 이야기를 들었다. 약간씩 다른 증언도 있고, 한 두 분의 증언에  
치중되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 조사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지 난감할 때도 많았지만 일단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했다.  
위의 내용들도 그러한 차원의 기록이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Ⅱ 마을 발표

### 2부

1. 연천의 마을전통 민속놀이  
이준용 /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2. 의정부 귀락마을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3. 개발에 묻혀버릴 아기장사의 전설\_고양 수역이마을  
이난숙 / 내일신문 리포터

## 1. 연천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

- ① 아미산 울어리(향토무형문화재 제10호)
- ② 미산 성주걸이(향토무형문화재 제11호)
- ③ 쌍거리 소리
- ④ 수레울 보막이
- ⑤ 임진강 참계줄 당기기
- ⑥ 수레울 길놀이

## 2. 민속놀이의 메카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 ① 미산면 유촌리(柳村里)

유촌리(柳村里)라는 동리 이름의 유래(由來)를 살펴보면 지금 부터 약 400년 전에 능성 구(綾城 具) 씨가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 었던 곳이다. 이곳에 구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방(吏房) 벼슬을 하고 살았다 하여 구리방골(丘吏房谷)이라고 지어진 이름의 고을도 있고, 지금도 이곳에는 구씨의 묘가 많으며 능성 구씨들이 집성촌을 이루 고 살고 있다.

이곳 중앙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 유촌리(柳村里 : 버드나무 마을)라는 동리 이름의 유래(由來)가 되는 큰 버드나무가 있던 연못(버드나무 연못)이 있었으나, 이 나무는 6·25 직후에 베 어 없어졌다 한다.

연천군의 대표적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산울어리(향토 무형문화재 제10호)와 미산성주걸이(향토무형문화재 제11호), 쌍 겨리 소리, 임진강 참계줄당기기 등 연천의 대표적 민속놀이 6개 중 4개가 이 마을에서 발굴된 곳이다.

특히 아미산울어리는 1979년 유촌리에 거주하던 고 이재순 씨에 의해 발굴되어 인천교육대학교 김순재 교수의 고증으로 학계에 발표가 되었고 1979년 10월 24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된 제20회 전 국민속예술경연대회(현 전국민속예술제)에 처음 출전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마을은 마을 주민 거의 대다수가 농업을 하며 생활하는 시골마을로 봄철의 밭갈이부터 가을철 수확을 거쳐 겨울철 땔나무를 준비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조상대대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유촌리라는 동리의 지명유래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 삼포동(蔘圃洞) : 영산 북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인삼을 경작했던 삼포밭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삼밭골’이라고도 불리워지던 곳이다. 6·25 전에는 300년 전 이 곳에 정착한 여산 송씨들이 집성을 이루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농경지로 변해 있다.
- 풀무골(治洞) : 유촌리 태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부근의 지형이 도가니혈(穴)에 해당되는데, 이 골짜기는 옛날 대장간에서 불을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풀무의 형상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6·25 전에는 청송 심씨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 황공벌 : 마전리와 우정리를 연결하는 322번 지방도 주위에 있는 벌판.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 곳을 지나가던 목마른 중이 (혹은 함경도 상인이라고도 한다)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 샘물 바닥에 큰 황금덩어리가 있어 그후 이 벌판을 ‘황금벌’이라 했는데 차츰 ‘황공’으로 어휘가 변한 이름이며 임진강참계줄당기기의 임진강 지류인 황공천이라는 지명도 이 명칭에 의해서 따 왔다 한다.

### 3. 하천과 관련된 민속놀이의 고장 차탄천

#### ① 수레울과 관련된 놀이의 무대 차탄천

수레울의 유래 : 수레울의 원 명칭은 장진천(長津川)이다.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임금이 친구인 이양소가 연천의 도당골이라는 곳에 은거를 하고 있다는 연천형감의 보고를 받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태종임금이 연천을 방문, 이때 임금의 어가(御車)가 장진천에 빠지며 그때부터 임금의 수레(車)가 빠진 여울(灘)이라 하여 수레여울(車灘)이라 명명하여 이때부터 차탄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 ② 왕림리(旺林里)와 어수물(御水井)

태종 이방원은 어렵게 찾은 옛 친구를 그는 먼 길도 마다않고 서두르다 결국 개천에서 수레가 빠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차탄천(車灘川)이라 불리는 연천읍 주위에 있는 냇가 이름의 유래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주변의 동리 이름도 차탄리이며 연천하면 수레여울(車灘)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군남면 왕림리(旺林里)라는 마을의 이름은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태종이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도당골을 가던 중 이양소가 장진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타고 오던 어가(御駕)를 다시 돌려 왕림리에 쉬면서 이양소를 기다렸는데, 당시 태종이 친히 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고 정자터라 명명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왕림리(王臨里:왕이 임하신 동리)라 지었다 한다.

일설에 의하면 현재 “旺林里(왕성할왕 수풀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변경되었다고 한다. 왕성할 왕(旺)자를 파자(破字) 하면 날일(日)자에 임금왕(王)자가 되니 마치 일왕(日王)을 연상케 하려는 의도에서 동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니 원래의 이름인 왕림리(王臨里)로 고쳐야 할 것이다.

어수물은 전곡읍 은대리의 연천소방서 앞에 현재도 위치하고 있다. 이 우물은 태종 이방원이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던 중 목이 말라 잠시 물을 축이고 간 우물이라 하며 현재도 마을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 | 연천의 전통 민속놀이와 보존의 필요성 |

- ① 농업사회의 발달과 영농의 기계화로 민속놀이의 필요성이 사라지며 그에 따르는 민속놀이는 자연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됨
- ② 문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소득수준의 증대 등으로 이제는 차츰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를 다시 발굴 복원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
- ③ 사라져 가던 민속놀이는 지역 예술제인 경기 민속예술제와 또한 전국민속예술제의 개최와 적극적인 참가로 명맥 유지
- ④ 지역 어르신들의 꾸준한 노력과 고증으로 지역 특유의 민속놀이 재구성
- ⑤ 발굴된 민속놀이는 철저히 원형을 복원, 마을 특유의 민속놀이로 승화 보존하여야 함.

## | 아미산 울어리 |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아미산 울어리

### 아미산울어리의 발굴과 고증

- \* 지 정 일 : 1989. 09. 22
- \* 지 정 별 : 지방 무형문화재 제10호
- \* 발 굴 자 : (고)이재순
- \* 고 증 : 인천교육대학교 (고)김순재 교수
- \* 놀이의 연원 : 울어리는 가을철 추수를 앞두고 마을에서 협동하여 겨울철 땔나무(뿔나무)를 미리 장만하는 두레농사일의 일종이다.
- \* 놀이의 희귀성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음. 예로부터 논이나 밭에서 부르는 농요는 전국 어디에나 흔하지만 땔나무를 하며 부르는 농요는 남북한 통 털어 아미산울어리가 유일하다.
- \* 발굴 과정 : 1979년 인천교육대학교의 김순재 교수는 당시 전국을 돌며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를 연구하는 학자였음.
- \* 발굴 마을 : 당시 미산면 유촌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고)이재순 씨와 우연히 담소를 나누던 중 오랜 옛날부터 ‘아미산울어리’라는 놀이가 이 마을에서 계승 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학계에 발표함



사진은 1983년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아미산울어리



### 놀이의 구성

#### 1) 음악적 구성

- ① 울어리(나무 벨 때 부르는 노래) : 앞소리는 4도, 2도, 2도의 4개음으로 되어 있으나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 ② 길놀이(남여와 영좌의 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귀가하면서 남여를 탄 영좌와 길놀이꾼이 흥겹게 주고받으며 부르는 놀이
- ③ 풍물놀이(등계 타령) : 북, 장고, 팽가리, 징, 호적 등의 악기로 구성된 농악과 소리에 맞춰 한바탕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등계타령이며 새타령의 음 진행 배열과 비슷하나 리듬만이 다르다.





## 2) 놀이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세 마당으로 구성

- ① 첫째마당 : 이른 아침 감발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면서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놀이
- ② 둘째마당 : 나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로 만든 남여(가마)를 만들고 연장자를 대감이라 칭하고 하산하는 놀이로 “쉬이 물렀거라 치웠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라고 하며 예전 사포행차와 비슷하게 길놀이를 한다.
- ③ 셋째마당 : 그날 나무를 한 산주 또는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에 당도하여 술과 안주를 요구하고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놓는 댓가로 한바탕 놀아 줄 것을 청함.
- ④ 넷째마당 : 풍물놀이와 함께 동계타령(일명 닭타령)을 부르며 신명나게 마당놀이를 펼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사람들과 양반도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어울려 노는 마당

## 3) 놀이의 주요 연원

- ① 놀이에 대한 문헌상에 기록은 없으나 영좌, 부사 등의 말을 쓴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전승된 것으로 추정, 해방이전 까지도 연천군 중면, 미산면, 신서면 등의 산악지역에서 세습적으로 연희되어 오다가 연천지역이 북한땅으로 편입되면서 중단, 1979년 미산면 유촌리 원로들의 노력에 의하여 그 원형을 찾아 지금의 아미산 울어리로 복원되어 전수.
- ② 반상의 구분이 엄격하던 당시로서는 양반이 평민들과 어울려 갖이 비뚤어지는 것도 무시하고 함께 어울려 흥이 나게 뛰어 논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행동이지만 마을의 안녕과 화합, 더 나아가 반상의 법도까지 무너뜨린다는 파격적인 내용.

## | 연천 쌍거리 소리 |

###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소를 이용한 농사방법 쌍거리



우리 연천에서는 옛적부터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왔다. 대개 평지가 아닌 비탈진 밭이나 돌이 많은 밭에서는 소 한 마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으므로 두 마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쌍거리라고 한다. 그러나 흙살이 좋고 돌이 별로 없는 논은 소 한 마리를 이용한 쟁기로 논을 갈아 왔다. 현재는 경운기

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능률도 뛰어나고 순식간에 소로 가는 것보다 몇 배나 빠르게 갈 수 있으니 세상은 참으로 좋아졌다.

쌍겨리를 이용한 밭갈이는 주로 가을걷이가 끝나고 보리나 밀 밭을 가는데 쓰인다. 이때 밭을 갈며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를 쌍겨리 소리라고 한다. 이때 한쪽에서는 경부(쌍겨리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가 소 두 마리를 부리며 밭을 갈때 노래를 하는데 이를 일명 게나리 소리라고도 한다.

“이러 외나.” 여기서 외나라는 말은 밭을 가는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말하며 안소라고 하는데 이 안소를 ‘외나’ 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한다. 마라소를 통상 ‘마라’ 라고 한다. 게나리 노래는 길게 낮두리처럼 길게 청승스럽게 한다. 쌍겨리는 세 마당 놀이로 밭갈이, 심금질하기, 농악놀이 등 모두 세 마당으로 짜여져 있다.

게나리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이러! 외나 외나 외나루 이소 외나루 가자! 이러! 마라 마라로 가자! 이러! 이소야 금바로 가자. 장대같이 곧은 밭이랑 활등같이 굽어진다. 네 팔자는 한생 겨리소요. 내 팔자는 밭갈이 하는 경부 팔자란다. 이러 이 소 쌍겨리 갖춰 메고 안탑은 얹어 잡고 마라탑은 자쳐잡고 두리 돌돌자 갈아 보자.”

“이 소들아 어서 가자 초승달은 반달인데 저 넘어 산을 훌러덩 잘도 넘어 가는데 너희들은 네 다리로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이러! 이 소 외나 이 소야 높은 돌은 돌려 딛고 얇은 돌은 넘어가자. 이 소들아 너희들은 늙어 죽어지면 양반상에 올라앉지만 우리 인생 죽어지면 북망산천에 깊숙이 응~ 응(비음) 늙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지.”

“외나외 이 소들아 가대지 말아 흥두깨같이 곧은 밭이랑 다 망가진다. 마려 마라 이 소 일곱발 멩에줄은 얹어 걸고 잣혀 걸고 한 멩에 둘러메니 이것이 한 짝이다. 외나루 이소야 타 나갈때는 이 안소 네가 좀 앞서가고 마라 들어올 때는 이 마라소 좀 나서다고. 이 소 너 잘가고 나 잘 갈면 하루같이 밭 한 떼기가 나잘 한참이면 다 갈고 가자.”

이렇게 밭을 갈고 심금질을 다 한 후에 소를 풀어 놓으면 소는 소끼리 소싸움을 하고 한편에서는 농악을 한바탕 신명나게 하면 이것이 한 마당 놀이였다.



## | 향토문화재 제 11호 미산성주걸이 |



미산 성주걸이는 1989년 9월22일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이 되었다. 예로부터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한 뒤 집을 지킨다는 가신(家神)인 성주를 받아 들여 모시는 안택신앙(安宅信仰)의 놀이인 성주걸이는 집안의 부귀번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유촌리의 고(故) 이재순씨에 의해 발굴된 미산성주걸이의 놀이구성은 전체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마당은 지관에 의해 집터가 정해진 곳에 일꾼들이 풍물을 치며 모여 농악과 춤이 벌어지는 앞 놀이가 벌어지고, 이어 둘째 마당은 집터에 고사를 드린 후 일꾼들이 ‘당겼나 당겼지, 두리산 나린 줄기 - 당겼나 당겼지’로 시작되는 앞소리와 뒷소리의 메기고 받는 것에 맞춰 가래질을 하며 집터 닦기와 힘찬 울동의 지경다지기가 이어지는데 이때 가래질소리와 지경다지기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셋째 마당은 집을 짓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재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 때 일꾼들이 힘을 덜고 농률을 올리기 위해 노동요를 부르며 모든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집이 완공되면 네 째 마당이 시작되는데 주인은 고사떡 담으로 성주받이굿을 드린 후 온 마을 사람들과 새집에 잡귀와 잡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된 술과 음식을 나누며 한마당 어울리는 마지막 넷째 마당놀이를 흥겹게 벌이면서 모든 연희과정을 마친다.

### 성주걸이의 세부내용



지경다지기는 옛날에 경복궁 등 대궐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을 자리를 다지며 시작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로 민가에서도 집을 지으면서 지경다지기를 했다고 한다. 집을 지을 때에는 집터를 선택하고 지관을 불러 삼살방과 골쌀을 피하고 적당한 자리에 집터를 잡으면 집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가래로 집터를 돈다.

이때 가래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주로 가래를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는데 먼저 가래장부를 메기는 사람이 ‘당겼나?’ 하고 메기면 가래줄을 잡은 사람들은 ‘당겼지’ 하면서 받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계명산 내린 줄기 학의 등에 터를 닦네.  
부자 되고 장자될 때 만복이 돌아드네.

절구통 복은 굴러들고 멍석복은 말아드네.  
 두꺼비 복은 뛰어들고 구렁이 복은 기어드네.  
 학의 복은 날아들고 성주복은 뵈셔 드네.

이렇게 주고받으며 가래질이 끝나면 지경을 다지게 되는데 지경을 다질 때는 절구통에 동아줄을 매는데 이때의 동아줄은 짚으로 꼬아서 일곱 가닥으로 매고 한 줄에 세 명씩 잡고 지경을 다진다. 지경을 다질 때는 밤에 광솔불을 켜놓고 수수팔떡을 해놓고 지경을 다진다. 이때에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만는소리는 “에이여라 지경이요.” 하고 메기며 메김소리는 다음과 같다.

이 터전 네 집을 짓고 천년만년 왕가로다.  
 새 성주를 모셔놓으니 성주 본이 어드멘고?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 대솔씨도 닳말이오.  
 소솔씨도 닳말이오, 중솔씨도 닳말이라.  
 삼오십오 열닷말을 연평대평 속 들어가.  
 여기저기 뿌렸더니 바늘솔이 되었구나.  
 중보동이 되었구려 대보동이 되었도다.  
 청장목이 되었도다 황장목이 되었도다.  
 돌이 기둥 길러 놓으니 그 재목을 내리려고.  
 서른네명 연군들이 대산에 올라 대목내고  
 중산에 올라 중목내고 원근산에 촛을 끊어  
 얼기설기 때를 엮어 양기 양천 흐르는 물에  
 둥기둥실 띄워놓고 고사봉아 흘러가는  
 이 물결의 물은 점점 늘어가네.

지경을 다지는 일꾼들이 절구통을 높이 들어 지경을 다질 적에 “에이여라 지경이요.” 하면서 끝을 맺으면 목수들이 집을 짓고 새 성주를 모시는데 무당을 들여 성주걸이 굿을 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지경다지기를 하던 절구통을 엮어 놓은 후에 쌍날 작두를 잘 갈아 절구통위에는 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올려놓고 모말에 쌀을 담아 동이 위에 올려놓은 후 작두를 모말위에 올려놓고 두 사람이 양편에서 작두를 잡으면 무당이 신이 나서 덕담을 하다가 작두위에 선뜻 올라선다.



무당은 작두위에서 덕담을 하는데 “이 터전 네 집을 짓고 부자 성주 모셔노니 좌청룡 좌백호, 우청룡 우백호, 성주 대주거리 몸주 성주 가주거리, 직성 성주, 업성주, 복성주 흙 한 삼 뚝 떠내서 인업 일양 다칠세라. 대지업도 다칠세라.” 하며 신명나는 성주걸이 굿을 한 마당 펼치게 된다.

미산 성주걸이는 1986년도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군민의 날 행사에도 출전하는 등 지방문화재 제11호로 지정이 되었으나 현재는 무당이 거의 없어지고 작두를 타려는 무당도 없어서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가 되었으나 이제는 다시 복원을 하여 연천의 향토문화재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 | 임진강 참게줄 당기기 |

*마을 간의 다툼과 갈등을 놀이로 승화시킨 조상들의 지혜  
임진강 참게줄 당기기*



임진강 참게줄 당기기는 마을 간의 갈등과 다툼을 놀이로 승화시킨 조상들의 지혜로운 놀이이다.

예전부터 청정지역인 임진강에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참게가 많기로 소문이 나있었다. 늦은 봄철에 바다에서 올라와 임진강 상류로 올라간 참게는 가을철 찬바람이 일고 수수가 익을 때가 되면 다시 바다로 내려가 알을 낳고 월동을 하는 어류이다. 연어와 같은 귀향속성을 가진 참게는 이듬해면 다시 자기가 살던 강으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가을철 참게가 하류로 내려가면 농부들은 강에 가로로 밧을 치고 참게를 한 곳으로 유인하여 잡는데 그 수가 하룻밤 사이에 약 2~300마리를 잡을 때도 있고 알도 충분히 통통하게 들어 있어 값도 좋아 농업이 주를 이루던 농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에 아랫마을과 윗마을 간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참게를 잡으려고 다툼이 잦았는데 심한 때는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여 송사로 연결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 마을 간 커다란 갈등의 요인, 자리다툼

그러다가 더 이상 다툼을 없애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참게



발 같이 생긴 줄당기기로 승부를 결정하여 이긴 팀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로 협의를 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의 공감을 얻어 매년 가을철 참게가 내려가기 전 시합을 벌여 그 해의 자리를 정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그 후로는 마을 간의 다툼이 없어졌다고 한다. 마을 간의 다툼을 놀이로 승화시킨 조상들의 슬기가 참으로 지혜롭다고 할 것이다.

이 놀이는 해방 전까지는 연천지방 곳곳에 간간히 이어져 왔으나 해방 후에는 연천이 북한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6.25전쟁 이후 휴전이 되어서도 놀이가 중단되었다가 2012년 연천문화원에서 정월대보름놀이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되었고 이 후 2013년 포천에서 개최된 제 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작품의 참신성과 희귀성을 인정받아 민속상을 수상하였다.

임진강 참게줄 당기기 놀이가 잠시 중단되었던 것은 농촌에서 과다한 농약살포와 환경오염 등으로 참게가 사라지면서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파주 어촌계와 연천어촌계에서 매년 수백만 마리의 참게 치어를 방류하였으나 임진강 어장을 차지한 어부들이 쳐 놓은 정치망에 모두 잡히는 바람에 임진강 참게줄 당기기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놀이의 유형은 먼저 참게같이 생긴 줄당기기를 설치한다. 참게의 다리가 다섯 개라는 점을 착안하여 양쪽의 줄을 다섯 개로 하여 가운데 줄에는 4명이 중간 줄 양쪽에는 3명이 그리고 맨 가장자리의 두 줄에는 2명씩 들어가는데 한쪽에 14명씩 모두 28명이 게임을 한다. 기존의 줄다리기와 다른 점, 또는 특징이라면 기존의 줄다리기는 서로 마주보며 줄을 당겼으나 참게줄당기기는 서로 뒤돌아서서 허리에 줄을 걸고 잡아당긴다는 것이다.





## 임진강 참계줄 당기기의 구성

놀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천가로 달려가 서로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툼을 벌인다. 심지어는 먹살도 잡고 뒥굴기도 하는 등 아수라장이 된다. 이때 양반이 나와서 싸움을 말린다.

양반은 “이 사람들아 지난여름 사이좋게 농사도 같이 지으며 품앗이도 잘하고 지내다가 해마다 이때만 되면 윗동네 아랫동네가 패거리가 되어 싸움질이니 내년 농사는 어찌려고 이러는가? 싸우지들 말고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대로 따르겠는가?” 하면 모두 “예” 하고 순응을 한다. 그리고 양반은 “저쪽에 가면 줄당기기가 있으니 그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이기는 마을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는 싸우지들 말아! 알겠느냐?” 하면 “예” 하고 모두 그곳으로 간다. 이때에는 두 줄로 줄을 맞춰 가는 도중에도 양 팀은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툰다.

줄당기기 놀이는 3판 양승제로 하여 두 번을 이긴 팀이 승자가 되는 놀이로 이긴 마을은 기뻐서 춤을 덩실 덩실 추고, 진 마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된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이긴 마을의 대표가 진 마을의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고 일으킨 다음 위로의 말을 건네며 포옹을 한다.

그리고 이긴 마을은 게 막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참계 밭을 치고 진 마을은 먹을 안주와 술을 준비한 후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음악에 맞춰 신명나는 마당놀이 한 판을 벌인 후 풍년가를 부르며 각기 마을로 돌아간다.

임진강 참계줄 당기기 놀이는 마을 간의 갈등과 다툼을 즐거운 놀이로 승화시켜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고 당시만 해도 품앗이와 두레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마을 사람들의 단결력이 얼마나 농사일에 중요하며 만일 다툼과 반목이 지속된다면 차후 농사일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증명되는 것이 이 놀이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 임진강 참계줄 당기기의 역대 수상내역

2013년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민속상 수상

2015년 제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장려상 수상

2017년 제21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장려상 수상

## | 수레울 보막이 |

보막이가 처음 시작된 것은 농경사회생활에서도 벼농사를 주곡으로 삼아 물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방법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수자원이었다.

그래서 하천이나 도랑을 막아 관개 용수로 끌어들이 일 년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이 보막이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재래식 보막이는 대부분 하천이나 도랑을 가로로 적당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고 물이 고이는 위쪽에 긴 통나무들이나 소나무 거켄을 가로질러 여기에 돌을 눌러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한쪽에 물 흐름을 조절하면서 수심을 높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堡)는 홍수가 날 때마다 유실되어 매년 되풀이 하여 보막이를 하는 것이 통례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음력 정월이 지나 해토가 되는 봄이면 논물을 가두고 연중행사로 보막이를 하였다.

연천의 보막이 놀이는 1994년도 청산면 대전리의 최윤식 옹에 의해 처음 발굴되어 그해 9월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놀이에 구성된 출연진은 기수 10명, 농악(사물놀이) 22명, 농부 28명, 제관 및 선비 17명, 아낙 6명 등 총 87명의 인원이 출연하였다.

행사장막의 첫째마당은 모든 출연진들이 마을을 출발하여 동구밖 여록에 있는 수호신인 성황 및 장승에게 정성을 드려서 치성한다. 이때 농악 풍물패의 한바탕 놀이가 전개되면서 보막이 장소로 이동한다. 둘째마당은 보막이가 시작되는 선창과 후창으로 농요를 부른다.

셋째마당은 보막이가 완성되면 토지신께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를 올리고 풍악을 울리며 즐겁게 한마당 놀이로서 종료된다. 이와 같은 놀이는 마을 공동 노동행위로 농경지가 천수답인 지역에 더욱 성행하였다. 세멘트로 보를 막으면서 해마다 봄철에 행하던 보막이가 사라졌다.





## | 수레울 길놀이 한 마당 |

### 민속놀이의 배경



조선 정조 13년(서기 1789년) 당시 경기도 관찰사이던 서유방(徐有防)은 연천의 차탄천이 늪과 택지(澤地)로 이루어져 장마가 지면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가뭄이 들면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황무지로 버려졌던 곳을 당시 임금인 정조에게 진정하여 오늘날과 같은 하천으로 말끔히 정리를 하여 후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선정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며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유방공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오월 차탄천에 모여 제례를 올리고 한바탕 길놀이를 펼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정조 13년(서기 1789년) 당시 경기도 관찰사이던 서유방(徐有防)은 연천의 차탄천이 늪과 택지(澤地)로 이루어져 장마가 지면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가뭄이 들면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황무지로 버려졌던 곳을 당시 임금인 정조에게 진정하여 오늘날과 같은 하천으로 말끔히 정리를 하여 후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선정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며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유방공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오월 차탄천에 모여 제례를 올리고 한바탕 길놀이를 펼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 근거자료

[서유방의 선정비에 化流一道(화류일도)와 澤及殘縣(택급잔현)이라는 글을 새겨 이 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함]

현재 이 비(碑)는 연천문화원에 세워져 있음.

차탄천(車灘川) 수레울이라고 하며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연천 도당골에 살고 있는 고려 진사 금은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개천을 건너다 수레가 빠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같은 사실은 연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로 노인들에게 일제시대까지 이 놀이가 이어져 왔으나 45년 해방이 되어 연천이 북한에 편입되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 수레울 길놀이 한마당 세부내용

### 행사의 시기

수레울 길놀이는 매년 오월 모를 심기 전 행하여 졌다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공의 선정비를 세운 조선 정조 13년 5월에 이 비가 세워졌음을 근거로 한다. 上之十三年己酉五月日立(상지십삼년기유오월일립)이라는 글귀가 선정비 뒷면에 새겨져 있어서 이 비를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농사철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길놀이를 하고 제례를 올렸다고 한다.

### 행사의 주요 내용

사물놀이패들을 앞세우고 의관을 갖춘 제례관들과 함께 모두 열을 맞추어 지신밟기 등의 길놀이를 하며 풍악을 올리면서 차탄천에 준비된 제례 장소에 도착하면 서유방을 기리는 제례를 지낸 후 준비한 음식과 술을 마시며 한바탕 놀다가 다시 길놀이를 하며 귀가한다.

### 수레울 길놀이의 구성

풍물놀이 팀과 도포를 입은 제주(삼헌관)와 집사 등이 풍악에 맞추어 길놀이를 하며 차탄천의 제례 장소로 향한다. 제례 장소에 다르면 준비해간 제수를 진설하고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며 축문을 읽는다.(이때에는 모두 무릎을 꿇고 축문 읽는 것을 경청한다.)

축문이 끝나면 제주인 초헌관이 앞에 나가 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이 후 종헌관과 아헌관이 모두 차례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하여 제례를 끝낸다. 제례가 끝나면 준비해간 술과 안주를 내어 놓고 여럿이 함께 먹으며 이때에는 풍물놀이 팀이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하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제례 용품을 모두 거두어 귀가할 준비를 하며 귀가할 때에도 사물놀이패들은 풍악을 울리며 돌아온다.





# 의정부 귀락(歸樂)마을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 〈목 차〉

1. 귀락마을의 유래
2. 귀락마을의 민속
  - 1) 세시풍속
  - 2) 민속놀이
3. 토속신앙
  - 1) 가신신앙(家神信仰) - 고사
  - 2) 동신신앙(洞神信仰) - 산신제
4. 귀락마을의 인물
5. 귀락마을에 시집온 두 여인
6. 귀락마을에 대한 기록·보존·활용

전통마을이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 생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사라졌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의정부는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역사적으로는 꽤 이른 시기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이 저해된 면이 있다. 게다가 의정부 관내 몇몇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이어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마을이 잔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곳도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었거나, 도로 건설 등의 이유로 곧 변화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전통적인 생활관습이 남아 있는 마을 중에서 자일동 귀락마을을 소개한다.

귀락마을은 포천군 소흘면과 경계를 이루는 의정부의 최북단 마을이다. 축석고개 철부능선을 넘을 즈음 오른쪽으로 ‘귀락마을[歸樂園]’이라는 커다란 입석(立石)을 볼 수 있다. ‘귀락마을’이란 이름을 들으면 신선이라도 살 법한 이상향이 떠오르는데 실제 마을 모습도 그러하다. 흡사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위치와 아늑한 공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더 특별하다. 하지만 귀락마을의 주택은 대부분 신축되거나 옛 집을 리모델링하고 벽면을 시멘트로 발라 옛 모습을 찾기 힘들다. 예전 99칸이었다는 집(현재 10칸이 채 안 되는 것 같다)만이 지역 민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 주민은 대부분 토박이 주민이며 외지인 두 집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60여 호나 되는 큰 마을이었으며 부촌이었다고 한다. 귀락마을 자금1통장 박선규씨에 의하면 현재는 2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 1. 귀락마을의 유래

귀락마을은 이미 600년쯤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로 알려져 있다. 의정부시 몇 안 되는 자연마을이기도 하다.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조상이 물려준 터전을 지키며 살고 있다. 5일장이면 포천의 상인들이 오가던 ‘거능골’, 바닥이 찰진 흙으로 된 등성이라는 ‘진등’ 등, 옛 이름을 가진 지형이 마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분지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면서도 안개가 끼지 않는 공기 맑은 귀락마을 입구 입석에는 그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 영조 중엽 박해문(朴海文)<sup>1)</sup>이라는 사람이,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에서의 삶을 늘 만족하게 생각하며 지냈다고 한다. 하루는 그의 가노(家奴)들이 마을 이름이 없어서 불편함을 털어놓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청하자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歸鄉) 여생을 즐겁게 보낸다(樂業).”라고 말하여 마을 이름을 귀락(歸樂)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는 이곳의 지형(地形)이 거북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모양 같다고 하여 귀락(龜落)이라 했다고도 한다.<sup>2)</sup>

이 유래담의 마지막에는 “바람도 쉬어갈 듯한 아름다운 귀락마을 섬터에서 세상사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평온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는 구절로 끝내고 있다. 귀락마을 일대는 ‘소풍길’로 지정되어 있는데 ‘소풍길’은 의정부 대표 시인 천상병의 작품 「귀천」에서 이승의 삶을 표현한 ‘소풍’에서 착안하여 이름 붙였다. 말 그대로 어릴 적 소풍 가는 기분으로 즐겁고 가볍게 가볼 수 있는 곳이라서, 마을의 풍경은 소풍길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린다. 한편 귀락마을은 아직까지 자연 생태가 잘 보전된 마을이기도 하다.



귀락마을 전경

1) 『의정부시사』 제6권, 제1편 제4장 「귀락마을 숨은 이야기」를 참고하면, 박해문이라는 이름은 잘못되었으며, 박해(朴海)가 맞다고 한다. 박해는 충주 박씨로, 그의 조부는 한성 서윤(庶尹)을 지낸 박간(朴幹)이다. 박해는 1569년(선조 2) 태어나, 1606년(선조 39)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주서(注書)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에는 한림(翰林)에 올랐다. 그러나 광해군 대에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다시 한림에 복직하여 사서(司書)와 지평(持平), 교리(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평안도 도사 겸도 원수종사관(都元帥從事官)에 임명되었고, 1629년(인조 7) 임소(任所)에서 죽었다.

2)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 2007, 166쪽.

## 2. 귀락마을 민속

###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란 일년 중 계절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는 자연 및 인간사에 관한 행사를 말하며, 민족 단위로 나타나거나 넓은 지역에 있어 향토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생활현상이다. 이러한 대단위는 그만큼 사회집단의 공감에 의해서 채택되고, 그 집단이 낳은 문화로서 되풀이되고 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옛날부터 우리민족의 생활에 휴식이나 활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가 서구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과학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것으로는 여전히 존속하여 전승되고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미 현대인의 공감을 잃어가고 있고, 또 벌써 소멸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있다.

의정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상태에 놓인 것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설날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본래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孝)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설날의 어원을 찾아 설날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로 보거나, ‘선날’ 즉 개사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로 보는 경우도 있다. 혹은 삼간다[근신(謹慎)]는 뜻의 옛말인 ‘싫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새롭게 펼쳐질 한해에 대한 떨림이나 설렘과 함께 한해의 운수가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경거망동을 삼가고 조신하게 새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 ◇ 설빔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새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이 옷을 ‘설빔’ 또는 ‘설옷’이라고 하며, 이 복식을 합하여 설치레, 차려입는 것을 ‘설치레 한다’라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이것을 ‘까치저고리’라고 한다. 옛날에는 설빔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입었으나, 요즘에선 꼭 새 옷을 입기보다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한복을 꺼내 입거나 깨끗하게 손질한 단정한 옷을 입음으로써 예의를 갖추는 정도이다. 새 양

말을 사 뒀다가 신는 경우도 있다. 가족 모두가 이렇게 설빔을 차려 입고 차례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 ◇ 차례(茶禮)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 방에서 차례를 지낸다. 이것이 설날의 세시풍속 가운데 제일 중요한 행사이다. 차례상의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차례상 위에 설음식을 진설한다. 차례는 보통 4대조까지 모시는데, 조상의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거나 신주가 없는 집에서는 창호지에 지방(紙榜; 종이로 만든 神主)을 써서 병풍에 붙여놓고 지낸다. 차례 때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모든 자손들이 종손 집에 모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 차례를 지내는데, 제수(祭需; 제사에 드는 여러 가지 재료)는 술과 떡국이다. 팔월 한가위의 송편차례에 비기어 떡국차례라고도 하며, 메(쌀밥)를 짓지 아니하고 삼색과실이 제상에 오른다.

설날의 세찬(歲饌; 설날에 차례와 세배 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것은 흰 떡국이다. 흰떡국은 차례상에도 오르는데 설날 아침에는 꼭 이 떡국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흰 떡국을 먹었으니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한다.

#### ◇ 세배와 덕담나누기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는데, 이를 세배(歲拜)라고 한다. 집안 세배가 끝나면 일가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는 쪽에선 음식을 차려서 세배하러 온 사람을 대접하는데, 어른에겐 술과 음식을, 아이들에겐 과자나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로의 새해 복을 빌어주는 인사말을 나누는데, 이를 덕담이라고 한다.

#### ◇ 복조리

설날 아침에 조리를 벽에 걸어두면 1년 동안 복을 받는다고 해서 이 조리를 복조리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설달 그믐날 자정 무렵부터 골목에서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 사세요”하고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나와서 1년 동안 쓸 만큼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었다. 혹은 어린 학생들이 집집마다 안으로 조리를 던

저 넣고는 며칠 후에 찾아와서 조리값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집에서 군말 없이 조리 값을 치르는데, 일단 집안에 들어온 복조리는 내물리지 않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집안에 들어온 복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들어왔던 복도 따라 나간다고 믿었던 것이다. 지금은 이 풍습도 사라졌다. 정미(精米) 기술이 발달하여 쌀을 조리로 일어먹는 집이 없어지면서 조리는 더 이상 생활필수품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장식용으로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벽에 걸어두거나 한다.

#### ◇ 세화(歲畵)

설날 여염집에서는 벽에다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서 붙였다. 닭과 호랑이는 길상을 뜻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정월은 인월(寅月)이므로 이를 통해서 재액을 물리치려는 생각에서 나온 민속이다.

#### ◇ 토정비결

연초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던 점복에 토정비결을 보는 일 있다. 토정비결은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예언서로서, 조선조 명종 때 사람 이지함의 저서이다.

### (2) 정월 보름날

#### ◇ 부럼 깨기

정월 보름날 새벽에 날밤, 호두, 은행, 잣, 땅콩 등 굳은 껍질의 과일을 깨무는데 이를 ‘부럼’ 또는 ‘이굳히기’라고 한다. 이 때 첫 번째 깨문 것은 마당에 버리면서 “부럼이요”라고 외친다. 부럼을 깨물면 1년 동안 부스럼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한다. 또 깨무는 소리가 ‘딱’하고 요란하게 나기 때문에 잡귀가 물러간다고 하고, 이[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 ◇ 귀밝이술(耳明酒)

정월 보름날 새벽에 청주를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한다. 이것을 마시면 한 해 동안 귓병을 앓지 않고, 귀가 맑아지며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나 부녀자들도 조금씩 마셨다.



### ◇ 오곡밥

정월대보름 전날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고, 보름날 아침에는 일찍 찰밥을 해먹는다. 오곡밥은 찰쌀, 콩, 팥, 조, 검은콩, 수수 등 5가지 이상의 곡식을 정성스럽게 지은 오곡밥을 해먹는다. 찰쌀이나 멥쌀은 쌀 한 종류로 치고 좁쌀은 대개 차조를 넣는다. 반찬도 다섯 가지 나물을, 국도 다섯 가지 건더기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고 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하루 세 번 먹는 밥을 이날은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해서 틈틈이 여러 번 먹고, 일 년 내내 부지런 하라는 뜻으로 땀나무 아홉 짐을 했다고 한다.

대보름 전날에 오곡밥을 먹는 이유는 농경사회의 대표 작물인 오곡에서 찾을 수 있다. 새해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름달을 향해 오곡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곡밥을 해먹는 것이다. 또 갖가지 나물을 마련해 먹는데에는 겨우내 약해진 체력과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여 다가오는 농사철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숨겨있다. 오곡밥대신 찰밥에 밤, 대추를 넣고 검게 만드는 약밥을 만들어 먹는 집도 있었다.

### ◇ 달맞이(迎月)

대보름날 저녁이 되면 달이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높은 곳으로 모였다. 새해에 맞이하는 첫 보름달이니만큼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복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여 서로 먼저 보려고 다투어 오르기도 하였다.

달맞이를 하러 갈 때에는 불놀이를 하기 위한 다북대(햇대)를 가지고 올라갔다. 다북대는 제비쑥으로 만드는데, 바짝마른 제비쑥을 한웅큼 모아서 짚으로 자신의 나이만큼 매듭을 지어 묶는다. 달이 솟아오르면 다북대에 불을 붙여 두 손에 들고 “달님 절합니다. 달님 절합니다.” 하면서 각자 기원하는 바를 읊었다. 그러면 다북대가 ‘타닥, 타닥, 탁, 탁’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타내려 오는데, 나이 수대로 묶은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마지막까지 태운다고 한다. 다북대와 함께 대보름에는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는 불놀이도 많이 하였다. 통조림이나 아기분유 깡통에 송곳으로 송송 구멍을 내고, 철사를 엮어서 길게 연결하여 손잡이를 만든다. 깡통 안에 불이 잘 붙는 마른 나무나 광술을 넣고 불을 붙여서 둥근 원을 그리며 돌리면 바람으로 인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이때 타고남은 짜투리 불 위에다 설날에 마련해둔 가래떡을 구워 먹는 마을도 있다고 한다.



대보름날 달맞이를 하기 위한 다북대(낙양동)

한편, 달빛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흐릿하면 장마가 질 징조라 한다. 또 달의 사방이 짙으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옅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며, 조금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될 징조라 한다.

### (3) 입춘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로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때이다. 이날은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대문, 기둥, 대들보 등에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이를 입춘첩, 입춘축 또는 춘첩자이라 부르는데 의정부 지역에서는 ‘입춘 써붙이기’라고도 하였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국태민안(國泰民安),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자손만세영(子孫萬世榮) 등이 입춘 축문으로 많이 쓰였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은 글귀를 붙임으로써 한 해 동안 길한 일이 많기를 축원한 것이다.

### (4) 한식일 청명일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3월이 되기도 하나 대개는 2월에 들며, 양력으로는 4월 초순에 든다. 이 날은 조상의 묘에 한식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무덤이 헐었으면 때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改沙草)라 하거니와 묘 둘레에 식목을 하게 되는 것도 이날이 된다. 그러나 한식이 음력 2월에 들었으면 사초를 하지만, 삼구부동총(三九不動冢)이라해서 3월과 9월에는 하지 않는다. 한식과 같은 날 아니면 전날인 청명일 무렵부터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때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채소 씨를 부리는 등 새해 농사가 본격화된다.

### (5) 연등놀이(사월초파일)

사월 팔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고 전해지며,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초파일에는 절을 찾아 재를 올리고 연등을 다는 풍속이 있다. 옛날에는 이날 불교신자이든 아니든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연등행사와 관등놀이를 중심으로 한 민속행사를 즐겼다. 절에서는 석가 탄신일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고, 성불도놀이와 탑돌이 등 성대한 불교적인 놀이를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불교신자들만의 행사가 되었다.

## (6)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을 단오 또는 수릿날이라고 부른다. 단(端)은 초(初)의 뜻이고 오(午)는 옛날 오(五)와 상통하던 글자이다. 단오는 곧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

대개 중국의 음양철학에서 기수를 양으로 치고, 양이 겹치는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을 생기가 있는 날로 명절을 삼았는데, 5월 5일은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생각해 왔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수리치떡을 해먹고 조상들에게 단오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여자는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 등의 놀이로 하루를 즐긴다.

### ◇ 쑥과 익모초

단오 날 이른 아침에 쑥과 익모초를 뜯어 말려 두었다가 약초로 쓰는 풍속이 있다. 쑥을 베어다가 다발을 묶어서 문 옆에 세워두면 재액을 물리친다고 하며, 농부들이 밭에서 일 할 때 약쑥으로 긴 화를 만들어 불을 붙여두고 종일 담뱃불을 댕기는데 쓰기도 한다. 익모초는 산모의 몸에 이롭다고 하며, 또 여름에 즙을 내서 마시면 입맛이 나고 식욕을 돋운다고 한다. 쑥과 익모초는 한약제로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단오에 뜯은 것이 약효가 좋다고 한다.

## (7) 태종우(太宗雨)

5월 10일은 태종의 제삿날인데, 매년 이날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한다. 그 유래는 태종이 붕어(崩御: 임금이 세상을 떠남)하던 해에 마침 가뭄이 심하게 들어 백성들이 비를 갈구하는 것을 보고 태종이 말씀하시기를 “내 옥황상제께 비를 내리도록 청하여 백성을 구제하리라”하고 붕어하자 과연 소나기가 내려 가뭄을 면했다. 이후 태종우가 내리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 (8) 삼복(三伏) 달임

하지(夏至)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고, 이 셋을 모두 합하여 삼복이라 한다. 따라서 초복과 중복 사이의 간격은 10일이지만, 중복과 말복 사이는 입추 관계로 20일 만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이므로 흔히 삼복더위라고 한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계곡이나 물가를 찾아가 더위를 잊고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피서(避暑)라 한다. 이때에 더위를 막고 땀을 많이 흘려 허해진 몸을 보신하기 위한 음식으로 보신탕을 먹는데, 우리민족은 삼복이라고 하면 더위와 보신탕을 연상할 만큼 화제에 오르는 보신용 음식이다. 이 밖의 보신용 음식으로 햇병아리(영계)를 잡아서 배를 갈라 인삼, 대추 및 참쌀을 넣고 푹 고은 삼계탕을 먹기도 한다. 지금도 산간 계곡이나 물가를 찾아가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 복달임은 성행하고 있다.

#### ◇ 봉숭아 물들이기

여자아이들이 봉숭아 꽃잎을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찧어서 손톱에 물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물들이고 싶은 손톱에 짓찧은 봉숭아 꽃잎을 붙여서 형겅으로 싸고 실을 총총 감아서 하룻밤을 지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손톱에 빨간 물이 드는데, 붉은 색은 양색으로 악귀를 쫓는 기능을 가진데서 생긴 풍속이다. 지금도 봉숭아물을 들이는 여자아이들이 적지 않으며, 속설에 봉숭아물들인 것이 첫눈이 올 때 까지 남아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9)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한다. 이날 저녁에 직녀성이 하늘에서 바느질을 관장한다는 관념에서 처녀들은 바느질감과 과일을 마당에 차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늘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어, 서로 사랑 하지만 다리가 없어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안 지상의 까마귀와 까치가 이날이면 은하수에다 오작교라는 다리를 놓아 주어 견우와 직녀가 다리를 건너와 1년에 한 번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봉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튿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전한다.

#### (10)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을 말하며 백중(百種), 백중(百衆), 중원(中元),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이 때가 되면 오뉴월 땡벌아래에서 김매던 일도 끝나는 무렵이라 “어장 칠월 건들팔월”이라는 말이 있

을 만큼 농사꾼들이 한숨을 돌리는 시기이다. 이날은 햇과일, 채소로 조상께 제를 올리고, 농사일을 끝낸 머슴들에게 하루를 쉬게 하여 백중장(場)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취흥에 젖게 한다. 또 민가에서는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방생을 하기도 한다.

#### ◇ 벌초(伐草)

추석을 전후하여 조상의 묘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다듬는 풍속을 말하는데, 조상을 기리는 아름다운 풍속이라 하겠다. 지금도 성행하고 있으나, 다만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8월 중 문중의 일가친척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휴일을 택하여 가문의 친목회를 겸하기도 한다.

#### (11) 추석

8월 보름을 추석, 중추절, 가위, 한가위라 하여, 옛부터 우리는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 그리고 햇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선조의 묘에 성묘하는 풍속이 있다. 지금도 추석 명절을 지내는 풍습은 옛날과 다름없고, 이때만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들로 모든 교통수단이 붐빈다.

#### (12) 상달고사

10월은 입동과 소설의 절기가 있는 계절로, 겨울날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햇볕이 따듯하여 소춘이라고도 한다. 민가에서는 가장 높은 달이라는 의미로 상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정부에서는 옛날부터 상달인 10월에 마을에서는 산신제 같은 동제를 지내고, 각 가정에서는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가신(家神)들에게 고사를 지내곤 했다.

#### (13) 시제(時祭)

명절의 차례(茶禮)와 기제(忌祭)로 4대까지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5대가 넘는 조상들에게는 10월에 묘제를 지내는데, 이러한 풍속을 시제라고 한다.

제물은 후손들 중 세대주 별로 차례를 정해 차리거나, 묘지가 있어 재실(齋室)에서 차리기도 한다. 시제는 조상들의 은공을 기리는 일이지 결코 상례와 같은 슬픈 제사는 아니다. 따라서 각지에서 모여든 후손들은 젊은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일가 어른들께 인사



시키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담을 나누기도 하며, 문중 재산, 묘제 따위를 안건으로 문중의 대동회를 열기도 한다.

#### (14) 김장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하는데, 김장은 겨울철의 반양식이라고 하듯이, 예전의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세시풍속이다. 김장을 담그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입동 전후 3일 이라 하는데, 이 입동이 주로 10월말 경에 들어서 10월은 김장달이 된다. 그러나 요즘은 김치냉장고가 생기고, 채소저장방법도 발전해서 생활환경이 예전과 많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김장시기도 늦어지는 경향이다.

#### (15) 동지팔죽

하지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데,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짓날에는 어느 가정이나 팔죽을 쑤어먹는데, 팔죽은 팔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찹쌀로 단자를 새알만큼씩 만들어 넣고 쏜다. 이 찹쌀 단자를 새알심 또는 웅심이라 하며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광(창고) 등에 한 그릇씩 퍼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팔죽이 재액을 막아 준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중국에 공공(共工)이란 사람의 아들이 동짓날 죽어 역귀(疫鬼: 역병을 일으킨다는 귀신)가 되었는데, 이 역귀는 팔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역귀를 쫓기 위해 동짓날 팔죽을 쑤어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 (16) 설달그믐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음력)을 말하는데, 제석(除夕) 또는 제야(除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거래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이날 다 갚고,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다 받고, 혹시 받지 못하면 정월 보름까지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또 집안의 묵은 약을 모두 태워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질병이 약타는 냄새를 따라 없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묵은 것도 깨끗이 청산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맞이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풍속이라 하겠다.

## ◇ 수세(守歲)

선달 그믐날 밤에 각 가정에서 방, 마루, 다락, 부엌은 물론 외양간, 변소, 대문간 등의 집 안팎을 마치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 두고 밤을 지새우는 풍속을 말하는데,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속담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찌다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분칠을 하여 흔들어 깨워서 거울을 보게 하면서 놀린다.<sup>3)</sup>

## 2) 민속놀이

민속(民俗)의 한 줄기인 민속놀이는 겨레의 생활을 뿌리로 하여 민가에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를 말한다. 따라서 이 민속놀이의 의미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의 생활과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놀이로서 민족생활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며 건전한 민중의 놀이라는데 있다. 우리 조상의 얼과 슬기가 깃들여 있는 민속놀이가 급변하는 현대문명 사회와 무분별한 서구의 유행사조에 밀려 이젠 그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의정부의 민속놀이가 더 이상 잊혀지고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 놓고자 한다.

### (1) 윷놀이

윷놀이는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놀이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이다. 윷놀이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힘께 놀 수 있는, 누구나 즐기고 있는 전승놀이이다.

윷은 보통 밤나무, 감나무, 박달나무로 만든다. 의정부에서는 박달나무로 만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으나 요즘에는 밤나무로 만든 것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손에 잡기 알맞은 매끄러운 나무를 골라 15cm쯤 되게 두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 가운데를 두 쪽으로 쪼개서 네 쪽을 만든다. 윷 말판은 두꺼운 종이나 달력, 나무판자에 그리는데, 도, 개, 걸, 윷, 모의 5수를 4번 해서 4각형을 이루고 중앙을 방이라 해서 말들이 교차 할 수 있게 한다.

3) 이두현 장수근 이관규 공저, 『한국민속학 개설』, 『세시풍속』, 1991.8.25. p.196~p.259.

## (2) 널뛰기

널뛰기는 설날이나 단오, 추석 등에 처녀와 젊은 여자들이 즐겼던 놀이이다. 기다란 널빤지의 중간 부분에 짚단이나 가마니 따위를 괴어 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번갈아가며 발을 굴러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놀이다.

## (3) 제기차기

제기차기도 팽이치기와 마찬가지로 사내아이가 겨울철에 주로 행하는 놀이이다. 제기차기는 겨울철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놀이여서 현재까지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제기를 직접 만들어서 놀았다.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이나 쇠붙이를 한지나 형겔으로 감싸고,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너풀거리게 만든다. 이렇게 술을 만드는 이유는 발로 차올린 제기가 바르게 떨어져서 발에 맞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기차기는 기본적으로 제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차는 놀이이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오락을 즐기는 동시에 체력을 단련할 수 있었다. 한 발로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발로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야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지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 (4) 팽이치기

겨울철에 많이 하는 놀이 중 하나가 팽이치기이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직접 나무로 팽이를 깎아서, 추운 겨울 강가, 연못, 논바닥 등의 얼음 위에서 팽이치기를 하였다. 팽이는 나무를 10cm 정도로 토막을 내서 칼로 아래쪽을 뾰족하게 깎고 위는 평평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팽이를 치기위한 채를 만드는데, 싸리나무 등의 막대기 끝에 못쓰는 긴 천이나 삼실, 신발끈 등을 달아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팽이를 얼음판이나 땅바닥에 놓고, 우선 손으로 팽이를 돌린 다음 팽이채로 쳐서 계속 돌린다. 팽이의 평평한 윗부분에 나이트의 선을 따라서 3가지 정도의 색을 칠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팽이가 돌아가면서 색이 섞여서 예쁜 무늬를 만든다.

## (5)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정초에 많이 행하는 개인놀이의 하나이다. 설날부터 날리기도 하지만,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가 본격적인 시기이

다. 정월에 연날리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일년 사계절 중에서 이때가 연날리기에 가장 적당한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연을 직접 만들었는데, 보통은 대나무 가지를 가늘게 잘라서 연살을 만들고 창호지나 한지를 붙여서 만든다.

또한 연은 민간에서 액을 물리치려는 주술적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최근까지도 정월 대보름날에 연에다 액(厄), 송액(送厄),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글자를 서서 날리기도 하는데, 이를 ‘액연 날린다’라고 한다. 액연을 띄운 후 줄을 끊어서 연을 멀리 날려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의 액운이 연과 함께 멀리 날아간다고 믿었다.

#### (6) 닭싸움놀이

닭싸움은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한쪽 발을 들고 상대방과 겨루는 놀이이다. 아무런 도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 다리를 가부좌 틀듯이 앞으로 들어 올려 한손 또는 양손으로 붙잡은 다음, 상대방을 무릎으로 치거나 몸으로 부딪쳐 상대가 붙잡은 다리를 놓거나 넘어지면 이긴다. 한쪽 발을 들고 균형을 잡는 일이 그리 쉽지 않고, 더욱이 그런 자세로 상대방과 싸움을 하지만 어려운 만큼 재미도 있고 평형감각도 기르는데 좋은 놀이이다.

#### (7) 말타기

주로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다. 먼저 편을 가르고 가위 바위 보로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진편이 마부와 말이 되고 이긴 편은 말을 타게 된다. 진편에서 한사람(가위바위보)이 마부가 되어 벽이나 기둥에 기대고 서면, 나머지가 마부의 가랑이 사이와 앞사람의 가랑이 사이에 연속적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허리를 굽힌다. 이긴 편은 뒤에서 뛰어와 말 등에 올라탄다. 올라타다가 한사람이라도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면 서로 위치를 바꿔서 말을 타던 쪽이 말 등이 된다. 전부 다 올라타기 전에 말이 무너지면 말을 다시 만들게 하고 올라탄다. 양쪽 모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면 마부와 가장 먼저 탄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승부를 가른다. 가위 바위 보에서 진편이 말이 되는 것이다.

## (8) 버들피리 불기

따사로운 봄철 아이들은 버드나무 가지 껍질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 물이 잔뜩 오른 매끈한 버들가지를 골라 손으로 살살 비틀면 껍질과 속이 분리되는데, 굵은 쪽의 껍질을 벗겨서 속대를 잡고 가는 쪽으로 껍질을 당기면 껍질만 분리되어 나온다. 그런 다음 껍질의 아래위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피리를 만들었다. 피리가 굵고 길수록 낮은 음이, 가늘고 짧을수록 가늘고 높은 음이 난다. 한쪽 끝의 겉 껍질을 약간 벗겨내고 이곳으로 피리를 부는데 바람을 불어 넣으면 껍질의 관을 통하여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다.

## (9) 구슬치기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딱지치기와 함께 우리나라 남자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놀이라 할 수 있다. 구슬을 맞히기 위해 놓여 있는 상대방의 구슬을 향해 서서 던지거나, 손가락으로 구슬을 튕기기도 한다. 구슬치기 놀이방법은 다양하다. 땅바닥에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판 다음 순서대로 구슬을 쳐서 튕겨 나오는 상대방의 구슬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많이 하였다.

또는 바닥에 삼각형을 그린 뒤 그 안에 여러 개의 구슬을 모아 놓고 멀리서(1~2m) 굴러 안에 있는 구슬을 맞추는 놀이 방법도 있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를 맞추며 놀기도 하였는데, 일명 ‘짹짹이’라고 불렸다. 본래 구슬치기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이지만, ‘짹짹이’의 경우는 실내에서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놀이 방법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구슬치기를 하여 탄 구슬을 두 주머니에 불룩하게 넣고 다니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고 한다.

## (10)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지금 성인이 된 여자로서 어린 시절에 놀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일반화 된 놀이이다.

공기놀이에는 ‘다섯 알 공기’와 ‘많은 공기’가 있는데, 다섯 알 공기는 손에 잡은 공기 돌 5개를 바닥에 흘뜨리고, 다섯 알 중 한 알을 손가락으로 집어 내 위로 던지고 이것이 떨어지는 동안 바닥에 있는 공기 돌 중 한 알을 집은 후 떨어지는 공기 돌을 손바닥에 받는



한 알 집기부터 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두알 집기, 세알 집기를 한다. 세알 집기를 마친 후 손바닥에 공기 돌을 모두 쥐고 한 알을 위로 던지고 나머지 돌을 바닥에 놓은 다음, 바닥에 공기 돌을 쏘아 쥐고 떨어지는 돌을 받는 네알 집기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돌맹이를 공기로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기를 문구점에서 따로 구입한다. 공기놀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땅바닥, 모래바닥, 심지어는 방 또는 마루에서도 두 명 이상만 모이면 할 수 있는 놀이여서 소녀들 사이에서 성행되는 놀이라 하겠다.

### 3. 토속신앙

토속신앙이란 기층 민간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을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교조에 의한 교리가 체계화된 조직이 있어서 제도화 된 종교와는 달리 인위적 상황이 배제된 자연적 상황속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토속신앙은 가신신앙, 동신신앙, 무속신앙, 독경신앙, 자연물신앙, 영웅신앙, 점복신앙, 민간의료 등의 다양한 유형을 총칭한다. 이 중에서 기층 민간인들에게 가장 전승력을 띠고, 중요시 되는 것은 가신신앙과 동신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 가신신앙

가신(家神)이란 집안지킴이라 부르는 것으로, 가택에 요소마다 신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 믿고 이 신(神)에게 정기적인 예를 올리는 신앙을 말한다.

집안의 조상들이 신이 되는데 조상님이 잘 보살펴 주어야 후손들이 편안하다고 믿으며, 안방의 윗목 벽 밑에 모셔 두고 모신다. 조령신앙(祖靈信仰)이라고도 한다.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고 믿는 가택의 제일 높은 최고신으로, 집의 중심이 되는 대들보 밑이나 상기둥의 상부에 모시며 건축물을 대표하는 성주신, 집안의 터를 관장하는 터주신, 아이의 건강과 출산을 보살펴주는 삼신,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 그 밖에도 집안 곳곳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엌의 조왕신, 대문의 문신 등 여러 신이 있다. 가신의 종류와 성격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신은 성주신을 비롯한 집 안의 신이지만 가신의 계통을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가신은 자연신, 인신, 직능신, 영역신 등 다양하다. 고사를 지낼 때는 다양한 신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 범위를 보면 집 밖의 신도 모셔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신이 모셔지는 장소를 보면, 대청에 성주신, 안방에는 삼신과 조상신, 부엌에 조왕신, 뒤뜰에 터주신, 장독대에 철룻신, 우물에 정신, 광에 업신, 마굿간에 우마신, 대문간에 수문신, 변소에 측간신 있어서 집안의 요소마다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가신의 신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가신의 신체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택을 신축한 이후로 근래에는 가신의 신체를 모셔놓은 집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가신의 신체를 모셔놓지 않았다고 하여 가신을 모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사를 지낼 때면 각 거처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다. 고사는 주로 추수 후 10월 상달에 지내며 정월에 지내는 집도 있고 절기 때마다 가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가정도 있다. 고사를 지낼 때 경기 지역에서는 제물로 붉은설기(팥시루떡), 막걸리, 북어 등을 올린다.

#### ◇ 자일동 귀락마을 조정기 씨 덕

조정기<sup>4)</sup> 씨의 집에서는 예전부터 가을고사만 지냈다. 과거에는 터주가리를 집 뒤에 해놓았으나 근래에는 하지 않는다. 고사는 음력 10월에 하는데 대주의 나이, 생일을 보아 좋은 날과 시(時)를 보아서 지낸다. 날을 잡을 때는 절이나 동네 아저씨에게 물어 본다. 고사를 지낼 때는 쌀을 한 말 한다. 팥시루떡에 호박코다리를 섞어 일곱 켠을 쌓아서 한다. 쌀은 찹쌀과 멍쌀이 들어간다. 팥시루 위에 창호지를 놓고 백설기도 조금 찢다. 예전에는 집에서 쌀을 빻아서 질시루에 찼으나 30여 년 전부터는 방앗간에 가서 떡을 해 온다. 떡은 처음 시집와서 몇 해는 집에서 하다가 그 후로는 방앗간에 가서 하고 있다. 제물은 그 밖에 통북어(성주와 터주 뚫으로 두 마리를 사용하며 고사 후에는 머리를 떼어내고 성주와 터주 앞에 매달아 놓는다), 청수, 막걸리를 올린다. 과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고사를 지낼 때는 대청에 상을 펴고 그 위에 떡시루를 올린다. 잔을 채우고 절을 세 번 한 후 비손을 한다. 이어서 떡을 접시에 나누어 각 방과 창고, 대문 등 집안 곳곳에 놓는다. 안방에는 청

4) 조정기(1952년생, 여) 씨는 25살에 이 마을로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으로 고사를 지낸다.

수와 백설기를 가져다 놓는다. 안마당에서는 제물을 놓고 산을 보고 절을 하고 비손한다. 터주에도 제물로 떡을 다른 곳보다 많이 담아 쟁반에 가져다 놓고 절을 하고 비손을 한다. 다른 곳은 음식만 가져다 놓는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문 좌우에 황토를 가져다 놓았으나 근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사를 지낸 후에는 이웃집에 음식을 나누어준다.

## 2) 동신신앙(洞神信仰)

동신신앙은 생활의 지역과 조건을 함께하는 부락민들이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해 합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산신 서낭신 국수신 장군신 장승 솟대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집안 각 요소마다 신이 있어 집안을 편안케 해주고 집밖으로 나가면 마을신이 있어 마을 전체를 보살펴 준다고 믿으며, 각 집안에 분산되어 있는 신격을 횡적으로 유대관계를 결속시키는 주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타종교가 성행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의 토속신앙은 동신신앙 중 대부분 산신제가 기층 민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 ◇ 자일동 귀락마을 산신제

『의정부 20년사』에는 「귀락마을 노구메 골에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호랑바위가 있어 호랑바위 산신제라고도 한다. 제삿날은 9월 30일이며, 제사형식이나 소지의 내용은 다른 마을의 산신제와 대동소이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보자는 금오동 72-5에 거주하는 최수길(농업, 1994년 당시 64세)이다.<sup>5)</sup>

자일동 귀락마을 동제의 명칭은 ‘산신제’라고 한다. 차도에서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다 보면 창고와 작은 연못이 있고, 그곳에서 우측 계곡으로 조금 가다보면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은 방공호가 보인다. 방공호 있는 곳을 올라가면 약수터 위 능선에 제당이 있다. 이곳은 ‘노구메골’이라고 하며 호랑바위가 있다. 제당은 40여 년 전 시멘트로 만들어놓았다. 그 옆에 지금도 우물이 있어 이곳에서

5) 『시정30년사 하권』, 「제10편 제5장 의정부시 토속신앙」, 1994년. < 금오동 귀락마을 산신제 >의 내용이다.

술을 담근다. 제는 음력 9월 30일에 날을 받아 10월 초하루에 지낸다. 제관은 주민의 생기복덕과 일진을 보아 3명을 선정한다. 과거에는 자시(子時)에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저녁에 지낸다. 제관은 제주 1명, 화주 2명을 선정하는데, 제를 지낼 때는 이들만 제물을 지계에 지고 올라가서 제를 지내고 내려온다. 제비(祭費)는 추렴을 한다. 날을 받으면 마을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에 이미 들어온 사람은 이 기간에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 또한 마을의 돈이 못 나게 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야 할 때도 미리 돈을 준다.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피를 보지 못하게 하며 부정을 꺼린다. 임신이나 월경을 하는 집에서는 제관을 선정하지 않으며, 마을에 초상이 나면 다음 달로 연기하여 그 후에 다시 날을 받는다. 제주의 집에는 대문에 황토를 놓고 원새끼에 술가지를 꽂은 금줄을 친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세 사람이 가며 이들이 추렴도 한다. 돼지를 구입할 때는 살아있는 것으로 거세가 되지 않은 단색(丹色)의 것을 산다. 과거에는 제물로 소를 잡았으며 한때는 소머리와 우족만 사서 올리다가 20여 년 전부터 돼지를 올리고 있다. 그 밖에 백설기, 삼색 과일, 메 한 그릇(큰 그릇에 올림), 술을 올린다. 술은 제장 근처의 우물을 사용하여 담근다. 탕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제일이 되면 제관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산에 간다. 그곳에서 쌀을 씻고 조라술을 담그며, 우물을 청소하고 내려온다. 이어서 구입해 온 돼지를 산에서 잡는다(2년 전부터는 잡아온 돼지를 사용). 저녁에 잡은 돼지를 삶고, 차일을 치고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낸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 제례를 약식으로 하며 무속식이 포함된 혼합형이다. 제물을 진설하고 조라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고 음식을 조금 떼어 버리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된다. 소지(燒紙)를 올릴 때는 가가호호를 호명하며 일일이 올리게 한다.

또한 우마와 개, 차량까지 모두 적어 읽으며 올린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하여 저녁에 모두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담아 집에 가져갔다. 지금도 제관이 음식을 집집마다 나누어 준다. 술을 담그는 제기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밥 짓는 그릇 등 나머지는 20~30여 년 전에 구입하였다. 예전에는 낫그릇을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제복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간다.<sup>6)</sup>

6) 자일동 귀락마을 산신제의 제보자는 최영달(1958년생, 남)씨이다. 최영달 씨는 귀락마을 토박이로 현재 의정부농협조합장을 하고 있다.

## 4. 귀락마을의 인물

### 1) 박해(朴海)<sup>7)</sup>

귀락마을에는 박해문의 것으로 알려진 묘와 비문이 남아 있다. 하지만 비문에 따르면 이 묘의 주인은 박해문이 아니라 박해(朴海)이다. 박해문으로 잘못 알려진 이유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비문이 마모되어 잘못 판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9년 박해의 후손들이 기존 묘비 옆에 새로운 비문을 만들어 세웠고, 이때 가문의 보승(譜乘)을 참고하여 기존 비문 가운데 판독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박해는 충주 박씨로, 그의 증조부는 박인범(朴仁範), 조부는 한성 서윤(庶尹)을 지낸 박간(朴衍), 아버지는 박사건(朴士健)이다.<sup>8)</sup> 그는 1569년(선조 2)에 태어나, 1606년(선조 39)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주서(注書)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는 한림(翰林)에 올랐다. 그러나 광해군(光海君) 대에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다시 한림에 복직하여 사서(司書)와 지평(持平), 교리(校理) 등을 역임한 후 평안 도사(都事) 겸 도원수종사관(都元帥從事官)에 임명되었고, 1629년(인조 7) 60세의 나이로 임소(任所)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귀락마을에는 박해의 후손, 즉 충주 박씨들은 없고 의성 김씨와 밀양 박씨, 천안 전씨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명 ‘판서댁’으로 불린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99칸 저택은 대대로 박해 가문에 이어 양주 조씨, 오씨 등이 소유해 왔다. 따라서 박해와 관련된 마을의 형성과 이름에 관련된 설화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해 묘

### 2) 조지호(趙志鎬)

조판서 댁으로 불렸던 99칸 저택의 조지호(趙志鎬)가 정부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그는 정부 대신에게 “폭도가 도주한 것을 분히 여겨 실부(實父)를 체포하고, 폭도의 가옥을 소각하고, 그 부(父)의 가옥과 촌민 40호 전부를 소각하려 한다.”며 긴급 구제를 호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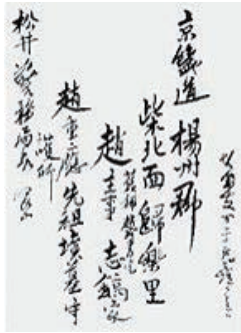


조지호 사진

7) 『의정부시사』 6권, 「4장. 귀락마을의 숨은 이야기」, p121-133, 2014년,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에서 인용.

8)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奎106)을 토대로 작성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박해의 조부는 박연(朴衍)으로 나와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 박연은 나오지 않고, 『선조실록』에는 서윤 박간이 노쇠하여 체직할 것을 청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점은 참고가 된다(『宣祖實錄』 卷12, 宣祖 11年 3月 3日 甲寅).





경찰의 방화위협으로부터 막아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는 문서.

였다. 문서에 조지호 가(家)가 ‘조중응 선조 분묘 수호소(趙重應先祖墳墓守護所)’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던 조중응(趙重應, 1860~1919)과의 연줄을 통해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 경무국에서는 양주경찰서장에게 통첩을 내려, “침소 봉대의 헛된 신고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경찰들을 감싸는 한편 사태의 전말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귀락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구하였는지, 화승총 한 자루를 양주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마을이 전소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과의 격투 끝에 체포를 면하였던 전운룡은 4월 21일, 한 달여 만에 체포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29세였다. 그는 5월 1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약 3년 7개월을 복역하다가 1912년 12월 출옥하였다.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옥에서 병을 얻어, 출옥 후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았다고 한다.

### 3) 조염호와 3·1만세시위

1919년 3월 29일 조염호는 자일리에서 귀락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1년형이 확정되었다.<sup>9)</sup> 「판결문」과 귀락마을 주민의 증언 등을 참고하여, 조염호와 당시 만세시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문」에 조염호의 직업은 농업과 목수[大工]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농업과 목수 일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그의 나이는 지방법원과 복심법원 「판결문」에서는 29세로,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39세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본적 및 주소지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그의 주소와 본적은 경기도 양주군 시둔면 자일리 71번지 3인데, 이것은 귀락마을에 소재한 99칸 저택의 주소이다. 이 저택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충주 박씨의 소유였고, 이후 언제부터인가 양주 조씨가 소유하였고 식민지시기에 오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전운룡 의병 사건이 발발하였던 1909년(융희 3)에는 조지호의 소유였고, 1924년에도 여전히

9) 조염호에 대한 각 재판소의 「판결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의 ‘공훈전자자료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조지호의 소유였다.<sup>10)</sup> 게다가 1920년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지호의 가족사진도 이 저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지호가 사망한 1932년 2월까지 조지호 가문은 이 저택에서 살았고, 이후 해방 이전 어느 시점에 오씨의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곳에 살고 있던 조옌호는 조지호와 매우 가까운 친족 내지 일가였을 것이다. 게다가 조지호의 사촌 형제였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도 있고, 조옌호의 ‘호’자는 조지호와 같은 항렬자를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조지호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족보에서 조옌호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또 조옌호에 대해 증언해 줄 만한 후손도 없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 4) 귀락마을의 산증인, 김한구옹

현재 귀락마을에 거주하는 남성 주민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김한구 씨이다. 80세가 넘는 김한구 씨는 스스로 ‘터줏대감’이라고 부른다. 의성 김씨로 3대째 이 마을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살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포천 출신인 지금의 아내와 중매로 만나 결혼하여 다섯 남매를 두었다. 남매는 모두 외지에 나가 살고 지금은 김한구 씨 부부만이 몇 대에 걸쳐 짓던 농사를 계속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김한구 씨는 마을 살기가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단박 ‘제일 좋은 동네’라고 하였다. 옛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가도 이 마을이 좋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귀락’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재차 하며 그만큼 귀락마을이 살기 좋은 동네임을 강조하였다. 일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조용하였고 나쁜 일 한번 일어나지 않았던 이 마을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이라며 얹은 미소를 머금는다.

귀락마을에는 의성 김씨 외에도 예전부터 전씨·박씨·이씨, 최씨가 거주하였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몇 집이 있긴 있지. 한 너덧 집?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다 토박이들이지. 그대로 살던 대로들 살아. 여기도 그 전에는 사람이 많았을 때도 있으니까 한 삼십 가구가 넘었어.



귀락마을 김한구 옹

10) 『동아일보』기사에 조지호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대 조지호의 주소는 여전히 양주군 시둔면 자일리 71번지이다. 『동아일보』1924년 11월 22일자 기사, 의정부시사 6권에서 옮김.

근데 지금은 시내들 나가지, 시골서 살려 그래? 지금은 동네에 남은 집이 스물일곱 집이나, 그렇게 밖에는 안 돼. 결혼 날 짝만 지면 저희 끼리 벌어 먹구 살려구 하지. 여기서 늙은이들하고 살려구 그러나 요즘에? 근데 여기서 시내까지 차타면 20분도 안 걸리지. 그러니까 괜찮지……. 살기가 그렇게 불편한 거는 아닌데. 버스는 부락이 작아서 마을버스가 하루에 여섯 번인지 일곱 번인지 그래. 그 시간을 봐서 나가는 차를 보고 들어오는 차가 몇 시인가 봐서 시장, 의정부 제일시장에 가지. 제일시장에서 우리는 살 거 사구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가지.(김한구 씨 구술)

귀락마을은 갯바위 마을보다 더 작은 곳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역시 편하지 않다. 하루에 몇 번 오지 않는 버스를 타려면 꼭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도 똑같다. 역시 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갯바위 마을은 마을 전체가 배농사로 바쁘지만, 귀락 마을은 특화된 작물이 없고, 자급자족 수준의 농업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논농사를 짓고 다른 몇 가지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직접 먹으려고 키우는 것이지, 내다 팔기 위한 규모는 아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논농사 그런 거 하지. 옥수수도 저저는 사람들이 먹으려구, 먹을 만치만 하지. 내 땅에 내가 먹으려구 옥수수 하는 거구. 좀 많이 짓는 거는 사람 먹으려구 하는 거 아니구, 소 먹으려구하는 거야. 뭐가 좀 있음 나올까 싶기도 한데, 농사다 뭐다 부수입들도 없어. 몇 해 전서부터 버섯 재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구.(김한구 씨 구술)

야트막한 산, 그 아래 논이 펼쳐져 있는 마을. 자급자족하는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귀락마을은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진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정부시 안의 모든 공간이 최첨단의 도시가 되는 것만이 현명한 발전의 방향일까. 도시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도시 안의 모든 공간이 일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귀락마을의 풍경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귀락마을에서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는가 물으니 김한구 씨는 큰 일이 전혀 없는 동네였다고 답하였다.

큰 사건은 없었고……, 전쟁 났을 때도 이북서 여기를 겨우 하루 저녁에 쳐들어왔어. 저쪽에선 이 자식들이 전쟁이나 하려구

금방 넘어왔지. 그 지정인데 피난 가면 뭘 해? 그 놈들이 금방 앞서 가는 걸. 앞질러 갈 게 뻔하잖아. 탱크구 뭐구 사람보다 앞서 가는 걸? 그 시대에 이 동네에 방공호 같은 것도 없었어.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 6·25사변 때 뗏놈의 새끼들, 중공놈들이 와서 하루 저녁에 의정부까지 쳐들어 왔는데 피난을 어디로 가. 여기는 청년회 그런 거도 없었어. 부락이 워낙 작아서 그런 거 없어. 마을에 일이 있으면 뭘 할 때들 되면 다들 그냥 와서 했지. 외려 그런 게 조직이 됐으면은 이 마을은 그때 망했어. 그런 청년회에 빨갱이들이 섞여 가지구 괜히 사람들 간에 피해보고 의 상하고 그랬어. 그때 잘못해서 죽은 부락들이 많아. 의정부 내에서두 그런 데가 있어 가지구 전쟁 끝날 때 괜히 일부러 붙들려간 사람도 있구 그래. (김한구 씨 구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을의 평화는 지켜졌다. 한국전쟁 때 귀락마을은 그저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의정부는 휴전선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사실을 미처 알기도 전에 북한군과 중공군이 탄 탱크를 먼저 보았다. 귀락 마을은 들어와 뭘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았고, 청년회조차 없었을 만큼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이 조용하였다. 일제강점기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제의 통치기간이 길었지만, 이 마을에 일본 사람이 들어와 산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기질 않았다고 하였다. 그때는 김한구 씨가 어려서이기도 했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느낄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귀락 마을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두 동강 났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귀락 마을 원주민과 의정부시의 밀고 당기는 소통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고속도로 건설은 “마을을 관통하는 원안대로” 추진되어 완성되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채 30년도 안 되는 귀락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분리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큰일이 없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김한구씨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다소 소리를 높였다. 몇 년에 걸쳐 마을 사람들이 나셔서 의정부시와 이야기했지만 결국 처음 계획대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일인데도 몇 마디하고 나서는 이내 그의 표정은 수그러들었

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애써 이야기를 끝내고 만다. 이미 결정된 일을 더 말하면 무엇 하랴 싶은 체념이다. 귀락 마을에서 팔십 평생을 살았던 김한구 씨의 온화한 표정은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닮아 있다. 갈등이라고는 몰랐던 그의 삶이 묻어나온다.

하지만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김한구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주지와 일터가 도로로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귀락 마을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집과 일터를 오가며 걷던 한적한 마을길을 자동차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어찌 보면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보다 귀락 마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는 셈이다.<sup>11)</sup>

## 5. 농촌에 시집온 여성의 삶

의정부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1963년의 시 승격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농가 수의 경우 1965년 1,651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01년 647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기준 1,150가구를 유지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1974년 386가구에서 한우 588마리를, 468가구에서 돼지 4,801마리, 112가구에서 닭 14만 1,750마리를 사육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1년 기준 11가구에서 한우 221마리를, 6가구에서 돼지 131마리를, 4가구에서 닭 2만 5,86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sup>12)</sup>

즉 의정부의 농업과 축산업은 시 승격 이후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다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의정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본장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이 번성했던 1980년대 전후 의정부의 농가에 시집온 두 여성이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며 의정부 농촌에서의 삶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의정부시사』4권, 「제1편, 마을이야기」, p60~p64, 2014,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12) 의정부시의『제3회통계연보』(1975), 『제3회통계연보』(1985), 『제4회의회정부통계연보』(2006), 『제10회통계연보』(2012)를 참조하였다.



## 1) '귀락마을'로 시집온 두 여성

조정녀(1952년생)씨와 김용남(1959년생)씨는 자일동<sup>13)</sup>에서 걸어서 1~2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서로 이웃하고 살고 있다. 조정녀 씨는 인천 소청도에서 5남 3녀 중 셋째, 딸로는 둘째로 태어났다. 이후 가족들이 모두 경기도 시흥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다. 25살에 자일동 귀락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 살 위 남편을 중매로 만나 1976년 시집온 후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김용남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1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둘째는 아들을 보기를 바랐지만 바로 밑은 딸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다.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남편 될 사람의 눈에 들게 되었다.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가진 후 25살이 되던 1983년에 결혼해 귀락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남편은 당시 농사도 짓고 젓소도 키우고 있었다.

조정녀 씨와 김용남 씨의 시댁은 서로 각별한 이웃이었다. 조정녀 씨의 시댁은 한국 전쟁 때 불이 났었다. 그때 남편은 태중에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시어머니가 몸을 풀 곳이 없어 김용남 씨 시댁으로 가서 몸을 풀었다. 즉 조정녀 씨 남편이 태어난 곳이 김용남 씨 시댁이다. 김용남 씨의 남편은 조정녀 씨의 남편과 형제처럼 지냈고, 먼저 결혼한 이웃집 형의 아이들을 자신의 조카처럼 귀여워해주었다. 이후 김용남 씨와 혼인 하여 아이를 낳자, 두 집의 아이들은 네 집 내 집 없이 한 동네에서 뛰어 놀며 자랐다.

조정녀 씨는 시댁의 외숙모가 중신을 서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이 장남이라 부모님은 “가면 고생하고, 뭐하나 할 줄 없는 딸이 이런데 와서 사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중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농사를) 많이 짓는다. 굶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가면 그냥 살려나 보다.”하고 마음을 내서 시집을 오게 되었다. 예식은 시댁 쪽에서는 “의정부에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냥 (서울의) ‘을지예식장’에서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신혼여행 후 시집에 왔는데 “맨 침에는 기가 막혔다.”고 하였다.



조정녀씨와 김용남씨

13) 자일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북면(柴北面) 자일리(自逸里)·귀락리(歸樂里)·금곡리(金谷里)를 합쳐 시둔면(柴屯面) 자일리(自逸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자일동이 되었다. 자일동이라는 지명은 『봉선사본말사약지(奉先寺本末寺略誌)』에 의하면, 600여 년 전 태고 보우(太古 普愚) 스님이 이곳에 천보사(天寶寺)를 짓고 자적유일(自適遊逸)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의정부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culture.ui4u.net>) 지명유래 참조].

조정녀 맨 침에 오니까 기가 막혔어요.

면담자 왜요?

조정녀 멋도 모르고 온 거잖아, 시집을. 아주 진짜, 꼬불, 꼬불, 꼬불, 아주 진짜. 옛날에는 진짜 꼬불꼬불이야. 지금은 길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비 오면 장화 없으면 못 다녀요. 그 정도였고 뭐 아궁이에다 불 때서 밥하고.<sup>14)</sup>

그래도 조정녀 씨의 시집은 기와집이었다. 방은 안방과 건너방 두 칸만 있었는데 새로 며느리를 들인다고 ‘오양간(외양간)’을 개조해 방으로 만들어 거기서 신혼살림을 살았다. 시할머니와 시부모, 시동생과 시누이해서 모두 7명이 함께 살았으며, 결혼한 이듬해인 1977년에 딸을 낳았고, 1978년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김용남 씨는 친정아버지가 경기도 수원에서 건축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본인도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농촌에 살고 있는 남자와는 만날 기회도 없었고, 농촌으로 시집을 오게 될 것이란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귀락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젓소를 키우던 남편과 중매도 아닌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면담자 남편 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김용남 저희가 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4H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도 단위, 중앙 단위 행사를 하는데, 도 단위는 수원의 그 시민회관, 거기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원에 있는 유치원, 몇 개 유치원이 경진대회 할 때 위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왜 선배들이 후배들을 환영의 밤이랄까,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특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찬조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경기도 4H클럽의 경기도 회장을 했어요. 거기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찬조 출연 나가고 하다가, 눈여겨봤대요. 자기 말로는. (웃음)<sup>15)</sup>

14) 2013년 4월23일자 조정녀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15) 2013년4월16일자 일동김용남씨 자택에서 진행된인터뷰이다.

4H(Head, Heart, Hands, Health) 경진대회에서 김용남 씨를 눈여겨 본 남편은 누군가에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당시 남편은 24살, 김용남 씨는 23살이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김용남 씨의 친정 부모님은 반대하였다.

면담자 특히 누가 반대하셨죠?

김용남 다 하셨죠.

면담자 왜(요)?

김용남 만머느리도 힘들지만 시골에 대한 걸 전혀 모르니까. (또) 층층시하(層層侍下)니까. 제일 먼저는 층층시하보다 너무 시골이니까. 너무 시골이니까 반대 하셨죠.

친정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용남 씨는 남편이 “모든 악조건을 다 덮을 만큼 너무 순수했고, 너무 진실해서” 본인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남편도 “도시로 나와 살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친정의 제안도 듣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그 점으로 인하여 친정 식구들의 점수를 따게 되었다.

김용남 우리 아버지가 “도시에서 살면 허락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냐”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그랬대요. “지금은 정말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지만 {앞으로는 농업, 농촌이 각광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도시인 부럽지 않으니}<sup>16)</sup> 노력을 하겠다.”, 자기는 “어른들, 부모님 두고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를 다 이해해주고 다 덮어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조금 흔들렸을 거 아녜요? 근데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나는 부모를 버리고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너 그럼 출퇴근해라. 너 농사짓고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떠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엄마도 그 말에 조금은 괜찮은 녀석이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웃음)

16) { } 안의 내용은 인터뷰이후 검독과정에서 김용남씨가 의미를 좀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추가 설명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고 1983년 의정부 ‘서림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김용남 씨는 남편의 ‘순수함’과 ‘집념’에 반했고 “농촌을 알았다면 달랐겠지만 어떤 곳인지 몰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회상 하였다. 그런데 정작 농촌에서 생활해 보니 그 동안은 ‘환한 곳’에서 살았다면 농촌의 생활은 ‘어두운 곳’에서의 생활이었다.

김용남 도시는 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는 해만 지면 깜깜해요. 주위가 깜깜한 밤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해만 지면 딱 깜깜해지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 주위가 다 산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어두우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문화적인 거는, 문화생활은 일반 농촌보다는 저희 집(시댁)은 비교적 윤택했어요. 윤택했는데, 공원만 나가도 깜깜하고, 도시에서는 해가 저도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만 지면 갇혀 산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었어요.

집안에 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할머니에 시부모, 시동생 둘에 시누이 둘이 있는 대가족이었지만 밤이면 깜깜해지는 농촌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김용남 씨는 남편이 키우고 있는 젖소들에 둘러싸여 “푸른 초원을 거니는 낭만적 시골 생활”을 상상했으나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 어려움은 농촌의 ‘어두움’이었다.

## 2) 어른들 그늘에서 살 때가 “더 좋아”

조정녀 씨는 “시집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해서”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살림을 배웠다. 처음에는 집에서 장작을 땔었는데 1970년도에 들어 연탄으로 바뀌었으며 1980년대부터 가스를 사용하였다. 낫선 일들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낫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잘해 준 ‘신랑 덕’ 이라고 하였다.

조정녀 하기 싫다는 건 없었어요. 시집을 왔으니까 다 해야 될 거 아녜요? 몰라도.

면담자 낫선 데도 불구하고 적응할 수 있었던 건요.

조정녀 그래도 신랑이 잘해 줬으니까 그래도 여지껏 살아왔겠죠?  
버티고.

가난하진 않았지만 농사는 거의 자급자족하는 정도여서 첫째 딸을 낳고 둘째가 연년생으로 게다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는 분유 하나 사 먹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젖소 30마리 정도를 사서 목장을 한 덕에 자녀들 학비며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을 무렵 그만 두었다. 조정녀 씨는 삶의 굴곡은 있었지만 자녀들도 다 대학 졸업시키고 “쌍둥이를 기를 때 힘든 것”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의 삶을 “평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도 남편은 농사를 짓고 있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예전 집에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살며 맛별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손녀딸을 돌보며 틈틈이 김용남 씨와 함께 봉사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다.

김용남 씨는 시집와 보니까, 시아버지가 가스레인지까지 놓고 안쪽으로 목욕탕까지 따로 만들어 도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한 나름의 준비를 해 두었다고 하였다.

김용남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결혼한다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걸 데려와야 해서 그랬는지, 전에는 내가 왔을 때는 {아궁이에} 불 때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와 보니까) {주방을 입식으로 하고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화장실, 목욕탕까지 타일을 붙여서 주거환경이 잘 돼서} 난로 때고, 불 때고 그런 건 몰랐어요.

결혼 후 한 1년까지는 크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오자마자 살림 사느라 고된 것은 없었다. 시집 식구들은 다 좋았는데 특히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누구보다 ‘도시 며느리’를 예뻐해 주었다. 농사일은 주로 어른들이 하고 김용남 씨는 옆에서 밥을 내다 주거나, 벗짚 거두는 일을 돕거나 착유(搾乳, 소의 젖을 짜는 일)를 도와주는 정도였다.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치원 교사를 하였기 때문에 살림을 배울 기회가 없어 밥을 할 줄도 몰랐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살림을 주로 하고 살림에는 ‘선수’였던 시누이가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김용남 시누이가 살림을 워낙 잘하니까 그냥 시누이 하는 대로 시어머니 하시는 대로 따라했죠.

면담자 호되게 혼련은 안 받으셨네요?

김용남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도시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애가 와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신통하구나. 그러셨으니까요. 좋으셨어요. 특별하게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힘들진 않았어요.

시집은 지 1년이 지나면서 농사일은 물론이며 80여 마리 되는 젖소 목장일도 조금 더 거들게 되었다. 김용남 씨가 1984년에 큰 아들을 낳고는 1년 정도 있다가 살림꾼 시누이가 시집을 갔다. 따라서 김용남 씨가 해야 할 살림은 늘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987년에는 막내아들까지 태어나며 집 안팎으로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 갔다.

하지만 농촌이었기에 아이들은 마을에서 이웃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고, 시어머니도 함께 살림을 살아, 김용남 씨 혼자서만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경제권도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김용남 씨는 맘먹느리지만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면담자 그럼 생활비나 이런 건 다 살림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김용남 저희 결혼하고 12~13년은 시아버지가 살림을 살았어요.

면담자 경제권 가지시고? 찬값 다 본인 당신이 쓰시고?

김용남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주시더라고 요. “이제 니가 해라.”하고. 시동생 둘 장가가고, 시누 시집가고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거죠.

김용남 씨의 시부모님은 이렇게 1990년대 중 후반 정도까지 경제권을 가지고 직접 경운기나 택시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다. 이후 김용남 씨가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차를 운전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다. 김용남 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고 2003년 돌아가셨다. 경제권을 물려받음으로써 명실 공히 한 집안의 어른이 되었지

만 김용남 씨는 오히려 어른들 밑에서 살림 살던 때가 “더 좋았다.”  
고 하였다.

면담자 큰살림 사시니까 좋던가요? 경제권 받아서?

김용남 그게 이 시골은요, 다 오픈(open)되다시피 하잖아요. 도시  
처럼 문 닫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시골은 누구네 집에  
오늘 저녁에 반찬 뭐 먹는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살림을 맡아서 집안이 부흥,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까 봐. 그러니까 조  
금 더 힘든 거 같아요. 경제권 받고 나니까. 세 분이 계시니  
까 어른들이 전에는 당신들이 장을 봐 오시니까 당신들이 좋  
아하시는 것도 잘 사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십몇 년  
을 살아도 오늘은 아버지가 뭘 드시고 싶은지, 어머니 할머  
니가 뭘 드시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면 제 입  
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 밑에서 살 때가 더 좋았  
던 거 같아요. 돈 씹씹이도 그렇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김용남 씨의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맏며느리를 아껴주었고 보는  
‘눈’이 많은 농촌 마을에서 며느리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 하도록  
큰 방어막이 되어 주었다. 예를 들면 김용남 씨는 자녀들만은 “시골 애  
같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깔끔하게 씻기고 옷차림도 신경을 썼으  
며, 유치원도 의정부 시내 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차편이 없어서 직접  
오토바이를 배워서 자녀들을 오토바이에 태워 유치원 버스가 오는 축  
석검문소까지 다녔고, 초등학교 들어갈 땐 운전면허를 따서 차에 태워  
통학을 시켰다. “시골에서 유난을 떤다.”는 소리가 나왔을 법한 일이  
었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하나 뭐라 하지 않았다.

김용남 근데 인제 그렇게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요  
어르신들이 이해해 주셨으니까 했죠. 어르신들이 애를, 그 시골 어  
른들도 뭐라 그래야 될까 보수적으로 애를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  
냐 하고 그러시면 못했을 거예요. 주위 분들이 젊은 여자가 맨날 오  
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애 데려다 주고, 차 끌고 다니면서 애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반감  
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단호하게 동네 분들한테  
해 놓으시니까 동네 분들이 말씀을 못 하셨죠.

김용남 씨가 시부모님으로부터 경제권을 받은 후 책임은 무거워졌다. 경제권을 물려받은 직후에 닥친 외환 위기로 인해 사료 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자 김용남 씨는 목장을 처분하게 되었다. 얼마 후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김용남 씨는 농촌에 시집온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게 되었다.

### 3) 외환 위기가 가져온 시련과 남편의 성공 후 찾아온 허탈감

좋은 시집 식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집님이 강한 남편”과 함께, 비록 남편이 농촌 활동한다고 시간이 나면 집에 있지를 않아 그 점이 “속이 상했지만” 큰 일 없이 자식 키우며 평탄한 삶을 살았던 김용남 씨에게도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는 시련의 시간을 가져다주었다.

김용남 인제 목장을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IMF(구제금융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 우유가 때로는 납품이 안 될 때가 때로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송아지 값이 사료 값을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우유 값이나 소 값이 사료 값을 못 따라가니까. 그 사료 짐승은 먹어야 되고 돈은 회수가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사료 살 때 그때 빚은 많이 졌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게다가 당시는 자녀들 학비와 시아버지의 폐암과 시어머니의 재생불량성 빈혈로 병원비까지 많이 들 때였다.<sup>17)</sup>

김용남 더 이상 가다가는 정말 도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목장을 그만뒀어요. 다 팔고 {우유, 쿼터 등 모든 것을} 정리를 했는데도 사료 값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그 안에 {아버님이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을 해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 약값도 안 나오는 상태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당장 생계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결혼 전부터 지역농협조합장을 꿈꾸며 농촌 운동과 새마을운동 등에 열심이던 남편은 초지일관

17) 인터뷰 이후 검토 과정에서 “당시 땅으로 치면 1,000평정도 가격이 들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꿈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남편은 농사와 농촌활동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

김용남 저희 남편은 오직 고지식한 그 진짜 농사꾼이에요. 오직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고 앞만 보지 그 옆에 결눈질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도 고지식하고 남편도 똑같이 고지식해요. 그 말은, 동네 분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 날 때 마다 팔고 땅을 샀으면 우리 동네 전체 땅을 다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김용남 씨는 궁여지책으로 생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목장이 있던 초지에 주말농장을 시작했다.

김용남 {목장 할 때 남편은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와 ‘우유두부(치즈)’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식품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도 해 보고 우리 마을 전체를 ‘생태공원마을’을 만드는 계획도 세우고 다 각도로 노력은 하였지만 주위 여건과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그 꿈도 접었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생각했어요. {사료 값이 빛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제가 남편을 1년 이상 설득했어요. 주말농장을 하자. 그 당시 주말농장이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농장을 하자. 초지를 우리가 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야 판로도 없고 주말농장을 하자, 그래서 주말농장을 시작했어요.

“밭만 만들어 주고, 당신은 농사짓고 하고 싶은 농촌활동을 하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시작한 주말농장 일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다. 농자재를 내어 주는 일부터 뒤치다꺼리까지 모두 김용남 씨 책임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빚에,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으므로 김용남 씨는 여기에 주말농장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까지 해보기로 하였다.

김용남 그래서 인제 주말농장을 시작했죠. 궁여지책으로 주말농장을 한 거예요.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식

당)를 만들었어요. 식당을 만들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도 생기고 또 아이들도 커지니까 {학비와} 생활비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씨는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큰돈은 안 되었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도움이 될 뿐이었다. 식당은 계속 운영하였지만 주말농장은 2~3년 후에는 “시간적으로만 매어 있게 되어” 그만 두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되었던 또 다른 수입원은 오리와 우렁이 농법과 같은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흑미 농사였다.

김용남 식당만 하다가, 저희 남편은 논농사 하면서, 저희는 논농사도 일반 농사를 하지 않고 무농약 농사를 지었어요. 까만 쌀이라든가, 흑미 {홍미, 당노쌀}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약간의 {돈이 되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논에 오리는 수거해 생오리나 시식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판매 했어요.}

김용남 씨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고 있던 절의 신자들에게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 이들의 입소문 등을 통해 판로가 확보되었다.

면담자 판로는 어떻게 했어요?

김용남 아는 분들 통해서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처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절에 다니니까 절에다가, 절에 보살들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까지 갔어요.

현재도 친환경 농사는 예약을 받아서 받은 만큼만 생산하여 팔고 있다. 하지만 식당은 남편이 농협조합장이 되면서 그만 두었다. 김용남 씨 남편은 2009년 겨울 본인이 청년 시절부터 꿈꾸던 농협조합장에 드디어 당선되었다. 장남이 농협조합장을 꿈꾸던 것을 알고 있던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던 그해 여름에 돌아가셔서 시부모님과 기쁨을 함께 할 수는 없었다.



면담자 남편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셨는데요?

김용남 농협조합장이요. 지금 현재 농협조합장이예요.

면담자 높으시네요.

김용남 아, 높으시긴요. 농민 대표일 뿐이에요.

농촌 청년으로 도시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던 아내를 만나 처갓집의 반대와 회유에도 올곧이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에서 살며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는 외고집 남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을 도와 열심히 보조만 해서 남편이 성공하면 그것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용남 씨에게 뜻밖에 찾아온 것은 일종의 ‘빈둥지증후군’과 같은 허탈함이었다.

면담자 보통 그렇게 되면 “아휴 남편은 지 할 일밖에 모르고 나는 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용남 아, 그렇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조합장 되고 나니까, 같이 농사꾼으로 살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게 할까, 돋보이게 할까, 최고가 되게 할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고, 제가 원하는 일이 딱 되고 나니까요, 돌아보면 빈 둥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상까지 갈 때는 정말 거기 가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은 하고 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착역에 딱 닿았을 때 텅 빈 느낌. 어, 나는 뭐야? 이래지는 게, ‘아, 나도 옛날에 괜찮았는데.’하는.

당시 20여 년을 한 지붕 밑에서 산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늘 주변을 맴돌며 농사를 짓던 남편은 출근을 하고 없고, 더구나 아들들도 모두 군대 입대해 있었다. 친정에서 자랄 때도 대가족이었고 시집와서도 대가족 속에 살았는데 집에 혼자 남게 된 것이다.

면담자 허탈(함인가요)?

김용남 허탈도 있고요. 20년 동안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하여튼 그런 노력은 많이 했는데, 남편이 조합장이 돼 버리니까 저하고는 너무 격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힘들었어요. 한 몇 달 동안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김용남 씨의 남편은 바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었다.

김용남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참 남편이 영리했던 거 같아요. 제가 남편이 딱 (조합장이) 되고 나서 몇 달을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저 산 속에 한번 데려가 보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남편이) “왜” 그래서 “소리 좀 한번 실컷 질러보고 와 보게.” 그랬어요.

김용남씨 남편은 “알았다.”고 하며 어느 날 갑자기 김용남 씨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여행지에서 김용남 씨 남편은 “전화도 자주하고 더 많이 신경 써 줄게.” 하고 약속하며 김용남 씨의 ‘허탈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김용남 씨는 많이 좋아졌고 요즘은 조합장 아내로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 4) 두 여성의 삶과 ‘귀락 마을’의 미래

조정녀 씨 역시 1997년 외환위기 때 쪼트를 처분하며 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최근 귀락 마을에 40년 가까이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을 느끼고 있다. 바로 동네 소음이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느껴지는 자연마을이었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주말이면 찾아오는 외지인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조정녀 여기요 처음엔 진짜 조용했어요. 옛날에 시집와 가지고, 진짜 조용한 데였는데 지금은 좀 틀려(달라) 졌어요.

김용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오면요 “니네 동네는 개미도 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그랬는데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네들은 바람 쐬러 들어온다고 그런다고 하지만 뭐 집 앞에서도 차를 그냥 (시속) 40km, 50km 달려 대지 않나, 차를 아무 데나 세워 놔서 그것도 공해를 일으키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리고 그냥 농사를 지어도요 남아나는 게 없어요. 점점 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뭐 심었다 하면 그냥 뽑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외지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서 어수선해지고 시끄럽고, 또 문

을 항상 열어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열어 놓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소풍 삼아 드라이브 삼아 귀락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건 한 7~8년 전부터이다. 팻말을 써 붙여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 더구나 귀락 마을 옆으로 ‘소풍길’이 나서 주말에는 시끄러운 것이 “시내보다 더 하다.”고 하였다. 부엌에 앉아 창 문 밖을 봐도 산이고 들이고, 대문을 열고 나가도 산이고 들인 풍광 좋고 산수 좋은 곳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어도, ‘외지인’ 문제로 조정녀 씨는 “강원도 산골이라도 가겠다”고 말한다.

이곳에 시집와 산지 올해로 딱 30년이 된 김용남 씨는 ‘깜깜한 게 너무 무서웠던’ 새색시에서 이젠 고향 경기도 수원을 삭막하게 느끼고 오히려 귀락 마을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는 중년 부인이 되었다. 김용남 씨 역시 조정녀 씨처럼 외지인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최근 들려오는 개발 소식이다.

김용남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우린 그린벨트 풀어주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린벨트 때문에도 고생을 했어요. 하다못해 사료창고 하나 지붕만 없어도 와서 부시고(부수고) 이랬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근데 아까 99칸, 들어오시는 입구에 집 헐고 막 그랬죠? 글로(그리로) 고속도로가 나요.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의 정부를 생각하면 아직은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나서 그렇게 돼 버리면 따뜻한 온기가 없어질 거 같아요.<sup>18)</sup>

아직도 자연부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귀락 마을 한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조선 영조 때 평안도 도사를 지낸 박해(朴海)가 ‘이곳에 돌아와서(歸鄉) 여생을 즐겁게 지낸다(樂業)’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귀락 마을에 외지인이 더 늘어나고,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자신이 태어난 고향보다 시집온 귀락 마을에서 더 오랫동안 살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

18) 2013년 4월23일자 자일동 조정녀 씨 자택에서 진행된 김용남씨 인터뷰이다.

이며,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도 극복해 내며 살아온 두 여성의 삶과 귀락 마을의 미래는 도시 개발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sup>19)</sup>

## 6. 귀락마을에 대한 기록·보존·활용



귀락마을 체험공작소 건물



축석령 터널

의정부가 도시화되면서 많은 외지인이 이주해왔으며 젊은이들은 의정부의 향토문화에 대해 아는 바가 부족하다. 따라서 의정부의 정체성과 문화적 번영을 추구(追究)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의 향토 문화적 자산인 민간신앙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 민간신앙에 대한 기록, 보존, 활용 방안이 방법론적으로 고민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sup>20)</sup>

이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보존되어야 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신앙은 그 지역 민중이 오랜 세월 동안 전승시켜 온 민중생활사의 실증적 자료이자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이 도시개발과 마을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점차 소실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 1) 기록화 작업

가신신앙의 고사모습과 마을 산신제 행사를 기록(사진, 영상물)으로 남겨놓아야 후손들이 훗날,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 귀락 마을의 동제(산신제)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산신각도 없이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제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즘 흔한 동영상이나 스틸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멀티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 동영상을 이용하여 동제의 준비 과정, 진행 과정, 주민과의 인터뷰, 동제당의 전모 등이 충분히 촬영되어야 한다. 귀락 마을의 가신신앙 역시 자세히 기록하고 동영상을 통해 의례 진행 과정과 인터뷰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밀도 있는 텍스트 자료와 기록 영상을 통해 제대로 된 기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9) 『의정부시사』 5권, 「제3편. 다양한 여성들의 삶」, p 232-249에서 옮김.

20) 이와 관련하여 김덕목, 「문화지방화시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향토문화의 기록보존 활용 방안 - 광명시의 동제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13,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 2) 보존방법

귀락 마을의 산신제 혹은 산치성제는 향토문화재로 보존되어야 한다. 도시화되고 자연촌락이 파괴되면서 의정부의 많은 동제가 단절되었다. 귀락 마을은 다행히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마을의 가신신앙 역시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 따라서 귀락 마을의 산신제 역시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매년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고 주민에게는 향토문화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신신앙도 이 지역의 전형성을 띠는 것을 몇 집의 가정에서 추출하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 3) 활용화 방법

민간신앙은 오늘날 도시사회에서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서구문화 혹은 현대 자본주의 상업문화로 얼룩진 현대인의 삶에 전통적인 우리의 향토문화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인의 정서와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태적 환경에서 배태(胚胎)된 친환경적 민간신앙은, 자연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정서적인 양식을 줄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의정부에 민간신앙을 포함한 향토문화를 담보하는 향토기록관을 건립하고, 그곳 민간신앙 코너에는 전시, 체험시설, 놀이시설 등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의정부 관내의 각 학교에서는 지역학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신앙도 교육해야 한다. 즉 향토문화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박이 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이주민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의정부의 현실에서 토착적인 향토문화는 의정부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요인(要因)이 될 수 있다. 향토문화를 되찾고 유지하는 일은 곧 의정부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 (1) 귀락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활용방법 제안

귀락마을 통장(55년생, 박선규)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향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귀락 마을에 예전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변두리 외진 산골마



을이었다고 한다. 강수옥 할머니(91세, 마을 최고령)에 의하면 마을 위쪽 오솔길을 따라 축석령고개에 올라서 버스를 이용해 의정부 시내를 왕래할 정도였다고 한다. 할머니가 시집을 때(17세, 할아버지 20세)도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설날 같은 명절에는 가래떡을 뽑을 방앗간이 없고, 눈 쌓인 산 골짜기였으므로 시내에 있는 방앗간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농사지은 쌀을 가마솥에 찌서 떡판에 올려놓고 동네 장정들 몇몇이서 번갈아가며 떡메로 치면 아낙들이 떡판의 찌쌀을 뒤집어가며 곱게 찌어질 때까지 찢는다. 절편같이 쪽 펴서 편편하게 되면 두부같이 칼로 잘라 나눈다. 요즘같이 가래떡을 얇게 썰어 떡국을 끓일 수 없어 넓적한 두부편 같은 떡을 썰어 떡국을 마련했다고 통장은 어릴 적을 회상한다. 또한 대보름날까지 저장하려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떡을 물에 담가 놓았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귀락 터널이 생기고 나서는 교통이 많이 편해지고 마을을 드나드는 인적도 많아지게 되었다.

귀락 마을은 큰 동네도 아니고, 고속도로로 인한 윗마을 아랫마을 합해봐야 30여 채도 안 되는 아담한 마을이라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연마을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도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귀락 마을 토박이 분들이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삶이라고 생각되면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 마을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마을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마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보는 게 어떨까싶다.



귀락마을 고택

- ① 귀락 마을 지하차도위에 있는 건물(체험공작소)은 당국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길 바란다. (자세한 것은 사안이 복잡해서 기록하기 곤란함) 마을 통장(55년생, 박선규)의 말에 의하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마을 기금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면 일 년에 한번 정도 어르신들을 타지 관광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을 분들이 모두가 생활이 빠듯해서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다.
- ② 귀락 마을의 주 수입원은 농산물인 관계로, 잉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아침 새벽시장에 두서너 시간 반짝 판매하고 귀가해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③ 귀락 마을 고속도로 주변 등, 놓고 있는 땅에 야생화 군락을 만들면 더욱 아름다운 친환경적 마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꽃들을 이용해 압화공예라든가 체험공예, 생일카드 등 야생화에 대한 활용방법을 찾아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④ 또한, 귀락 마을에 더 이상 카페라든가 술집, 음식점 등과 같은 영업집이 생기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당국에서도 협조하고, 마을사람들도 단합해서 귀락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청정마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⑤ 마지막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협력하여 연구하면 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시정20년사』, 1983년, 의정부시.
- 『시정30년사』 하권, 1994년, 의정부시.
- 『시정40년사』, 2004년 12월,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 『의정부시사』4권, 5권, 6권, 2014년 6월,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의정부시 세종대박물관.
- 이두현 장수근 이광규 공저, 『한국민속학 개설』(신고판), 1991.8.25. 일조각.

## 개발에 묻혀버릴 아기장사의 전설 고양 수역이 마을

이난숙 / 내일신문 리porter

### 1. 장수하는 마을이라 하여 ‘수역(壽域)이’

수역이 마을은 현 행정구역상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에 속한다. 성사동은 옛 지명이 성사리였으며, 성사리는 고양군청이 있는 원당(주교리)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0.5km~3km에 있는 법정리 명칭이다. 성사리가 된 지명의 유래는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옛날부터 이 마을에 있는 성라산에 올라가 별을 보면 별이 모래 같이 많아 보인다고 하여 ‘별 성(星)’자, ‘모래 사(沙)’자를 따서 성사리라고 했다. 또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인 성라산촌(星羅山村)과 사근사리(沙斤寺里)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현재도 이두 마을은 홍도동의 배라산이란 이름과 원당역 부근의 사근절이란 마을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성사리는 아랫말, 배라산, 웃말, 불당골, 사근저리, 수역이, 윗배다리, 원당 등의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사리의 동쪽으로는 원흥리 원당리, 서쪽으로는 주교리, 남으로는 지도읍 화정리와 원당읍 도내리, 북쪽으로는 원당리 주교리와 경계하고 있다.

또 성사 1리~4리 지역은 자연촌락을 그대로 유지하며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5~9리는 현대적 도시로 변모하였다. 지금 성사리는 모두 9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1리는 배라산 [아랫말], 2리는 덩불말[웃말], 3리는 사근절 불당골 오리골, 4리는 윗배다리 수역이, 5리는 살곳이, 6리는 주공 1단지, 7리는 주공 2단지, 8리는 주공 3단지, 9리는 리스쇼핑 주변과 새로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성사1동(星沙1洞)은 옛 성사3~8리가 개편된 동네 명칭이다.

수역이 마을이라 불리게 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가 많다하여 ‘수역(목숨 壽, 지경 域)이’라 불리었다는 것 정설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주변 골짜기로부터 쉼 없이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런 까닭에 ‘물 수(水)’자 ‘흐를 역(曆)’자를 쓰거나 또는 역 자(字)를 ‘지경 역(域)’으로 써서 물이 흐르는 지역 즉 수역이

라 부르게 되었다 설도 있다. 또한 수역을 ‘썰기’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수역이→썰기→썰기에서 비롯된 줄임말이다.

수역이 마을에는 아래와 같이 마을의 논이나 고개를 부르던 명칭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네베미논

윗배다리에서 수역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논 이름으로 논 구조가 단순히 하나의 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베미가 한 개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쇄[왜청골]

이 곳은 윗배다리 마을에서 수역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중에 좌측으로 보이는 골짜기로 그리 크지는 않으나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이 골짜기를 쇠[왜]청골이라 하는 것은 왜청[쇄청]이라는 사람이 이 곳에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능말[골]고개

수역이 마을, 쇠청골 뒤편에 있는 작은 고개로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능골 즉, 원당리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함박논

성사 4리 수역이 마을회관 앞에 있는 논 이름으로 예전 우리 농촌에 가난이 극심할 때 워낙 배가 고파 밥 한 함지박과 이 논 1,000평을 바꾸어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양짓말

수역이 마을 중에서 가장 큰 마을로 다른 곳에 비해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든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지금의 서삼능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는 마을이다.

#### \*수령논

수역이 마을 양짓말 앞에 있는 논 이름으로 수역이 마을 지명소개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물이 많고 수령이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은 지금도 경운기나 소가 들어가지 못해 농사짓기에 불편한 논으로 유명하다.

#### \*홀짜고개[살짜고개]

성사 4리 수역이 마을에서 원당 4리 새말[새마을]로 넘어가는 나지막한 구릉성고개의 이름이다. 고개가 작고 낮다하여 사람들이 가볍게 넘어간다 하여 홀짜고개 또는 넘는다 하여 살짜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음짓말

양짓말에서 사근저리 방향으로 약 200m정도 가면 있는 마을의 이름인데 흔히 건너말이라고도 한다. 이곳이 음짓말로 불리는 것은 양짓말과는 반대로 햇빛보다는 그늘이 많이 든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우전논[왜전논]

우전논은 수역이 마을에서 건너말[음짓말]로 가는 도중 좌측에 있는 논을 부르는 것으로 왜전논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전·왜전은 이 논이 소유가 일본 동양척식회사였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왜뚝물

수역이 마을 양짓말에서 음짓말로 가는 도중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흔히 왜뚝물이라고 부른다. 이는 앞의 우전논[왜전논]과 같이 이 왜전논의 물을 막던 논둑 밑에 있는 우물이라 하여 왜뚝물이라 붙여진 것이라 하며 지금은 마을의 공동우물로 사용하고 있다.

#### \*뚝논

왜전논[우전논]을 달리 부르는 이름인데 예전에 큰 논둑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열두베미논[12마지기논]

수역이마을 입구 네베미논 근처의 논 이름으로 12마지기 논 또는 열두베미 논이라 한다. 이것은 이 논이 크기와 면적을 따서 그대로 이름 한 것이라 한다.

#### \*가재골[굴]

음짓말에서 삭은절이 마을로 넘어오는 길 좌측으로 길 게 이어진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가재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2. 별아산 바위 돌로 공기놀이 하던 ‘아기장사’의 전설

성사동에는 예전부터 ‘아기장사’의 전설이 전해져왔다. 옛날 성사동 별아산 아래에 있는 베라산 마을에 심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 앞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아기 울음소리에 놀라 사시나무 떨 듯 떨었고, 동네 사람들은 큰 울음소리 때문에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이 별난 아기가 자라 두 살이 되었을 때 동네사람들은 ‘아기장사’라 불렀다. 아기장사는 마을 뒤편의 별아산에 올라 큰 바위를 가지고 공기놀이도 하고, 바위에 올라 알아듣지 못할 벼락같은 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기장사가 “용마야, 용마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 날개달린 흰 용마가 날아와 아기를 태우고 달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호시탐탐 조선 땅을 노리던 일본 첩자가 이 소문을 듣고 마을로 숨어들어와 동네 수다쟁이 녀죽에미를 매수하여 아기 장사를 없앨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기장사의 힘이 날개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녀죽에미는 인두를 달궈 잠들어 있는 아기장사의 양쪽 날개를 지져버렸다. 아기장사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기절해버렸다. 며칠 뒤 눈을 뜬 아기장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젖을 먹지도 않고 눈물만 흘렸다. 아기의 부모가 치료법도 찾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다 아기장사가 여덟 살이 되던 해, 파주 보광사의 한 스님이 마을에 들렀다. 스님은 “큰 인문이 될 아이가 가엽게 되었다”며 절로 데려가 나라를 위해 일할 인물로 키우겠다고 제안했다. 몇 년 뒤 왜놈들이 침략해 조선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보광사의 아기장사가 왜놈들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베라산 마을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수역이 마을 지형도



수역이 천

## 3. 산과 개울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성사4리는 고양군청에서 벽제읍 방향으로 약 1km 정도 올라간 원능역 옆의 옷배다리에서부터 수역이(쇄기)마을까지를 이르는 행정리 명칭이다. 현재 이 곳은 1·2·3리의 일부와 함께 아직 도시화 되지 않고 옛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성사 4리는 총 135가구에 509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1972년 수역이 마을(윗배다리) 풍경



1988년 수역이 마을 풍경



1992년 수역이마을 음짓골

그중 수역이 마을은 성사리 주공아파트(현재 삼성 래미안,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즉, 성사 6·7·8리에서 서삼능 방면으로 약 0.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중앙의 논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뒤편으로는 멀리 북한산의 높은 봉우리를 마주하며 가까이 한양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4차선 도로와 교외선 철로가 지나고 있다. 또한 ‘물이 거꾸로 올라온다’는 뜻의 수역이라는 이름이 전해오듯 지금은 자유로가 건설되면서 든든한 제방역할을 하게 되어 수해 걱정을 덜게 되었지만 과거 고양시는 물이 자주 범람하는 지역이었으며 수역이 마을 또한 마을 안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작은 하천 ‘수역이천’으로 물이 범람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작은 개울과 산, 마을이 어우러진 ‘수역이 마을’은 진주 강씨를 비롯한 토박이들이 누대에 걸쳐 살아온 전형적인 전통 마을로 마을 토박이인 원당농협 강효희 조합장의 예전 본가(수역이길 55)는 조부 강석진 옹이 지어 100년간 4대가 살아온 ㅁ자형의 전형적인 전통 한옥으로 ‘빨간 기와집’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앞쪽으로 주꾸미, 보리밥, 두부집, 커피아저씨 등 주거지역보다 ‘수역이

먹거리 촌'으로 불리는 상업지구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어 이전의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웃 도내리(현재 원흥동)에서 시집와 수역이 마을에서 47년을 살았다는 수역이마을(성사26통)통장 장기순씨는 1990년 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금의 두부고을에서 수역이 국수집까지 나란히 길가 쪽으로 난 주택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다고 한다. 이후 상가로 변경된 곳 외의 주택들은 조금씩 보수만 했을 뿐 당시의 집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 4. 진주 강씨 집성촌

원래 이 마을은 진주 강 씨 집성촌으로 이들이 여기에 정착해 뿌리를 내린 지는 약 300 년가량 되었다고 한다. 또 밀양 박 씨와 진주 한 씨 또한 300여 년 전부터 이 마을에 많이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수역이 마을 내에 있는 청재공 박심문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현재 청재공 박심문의 묘를 지키고 있는 20대 손 박종백씨에 의하면 청재공 박심문의 6대 할아버지인 밀양 박씨 규장공 파의 재각(齋閣)이 고양시 주교동 553-1번지에 있으며 재실 앞(원당 우일시장부터 원당 초등학교 인근 일대)이 거의 밀양 박씨 문중 땅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역이 마을에도 밀양 박씨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며 청재공 할아버지의 부인 진주 한씨 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곳에 다수 정착해 살았다고 전한다. 장기순 통장은 진주 강씨 집성촌이라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현재 마을의 진주 강씨는 보라농장의 강효희 원당농협 조합장 맥과 두부고을, 송화식당 대표만 남아 있는 정도라고 한다.



1996년 철거 직전 강효희 원당농협 조합장 맥



'빨간 기와집'으로 불리던 강효희 원당농협 조합장 맥



수역이 마을 마을회관



2017년 10월 수역이 마을 풍경



## 5. 청재공 박심문과 연성부원군 이정화의 묘

### － 청재공 박심문의 묘



청재공 묘



청재공 재실



청재공 신도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 31번지 수역이 마을에 청재공 박심문(朴審問)의 묘와 재실이 있다. 박심문의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신숙(愼叔), 호는 청재(淸齋). 할아버지는 박침(朴忱)이고 아버지는 박강생(朴剛生)이며, 어머니는 윤승경(尹承慶)의 딸이다. 생년은 1408년(태종 8), 몰년은 1456년(세조 2)이다.

박심문은 학행으로 천거되어 사온서직장(司醢署直長)이 되었고, 1436년(세종 18)에 친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기주관(記注官)으로 있다가 함길도절도사 김종서(金宗瑞)가 북방에 육진을 개척할 때 그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야인(野人)에 대한 안무책(安撫策)으로 남쪽지방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할 것을 절도사에게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447년에 평안도판관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1448년에 도체찰사(道體察使)의 종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일으킨 계유정난 때 김종서 등이 살해되자, 크게 분개하여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은밀히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 등과 왕래하면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였다. 1456년(세조 2)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의주에 이르러 성삼문 등 육신이 참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자살하였다. 이에 공의 조카인 휘 대손(大孫)은 북평 절도도사로 의주에 가서 공의 유해를 모시고 유언에 따라 선산 경기도 고양군 원당리 청재공의 조부인 상장군 공 묘에서 남방으로 건너편 포도골에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공의 부인인 청주 한씨도 46살의 나이에 자결하여 같은 묘소에 쌍분으로 모셔졌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세조가 집권하고 있었고 세조는 행여나 있을 단종 복위 조짐에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라 박심문 선생의 자결을 병사(病死)로 숨긴 채 가족들에게 조차도 쉬쉬하고 지내야 했다. 그렇게 300여년이란 세월이 흘러 박심문의 이름 석 자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단종의 매형인 헌민공의 꼼꼼한 기록에 의해서였다. 이 기록이 밝혀지자 순조임금은 4칠신(死七臣)이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생에게 ‘가선대부이조참판’을 추서했다. 그리고 1828년 영월 창절사(彰節祠)에 배향되었으며 1871년에는 고종 황제가 충정공(忠貞公) 시호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이후 공주 숙모전, 진안 이산묘, 대전 숭절사, 진주 충정사, 해남 죽음사(竹陰祠), 장흥 세덕사, 영주 영모정 등 전국적으로 14군데의 사당에서 충정공 박심문

선생을 기리고 있는 것만 봐도 선생의 충절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묘를 관리하고 있는 20대 손 박종백씨는 “원당 주교리의 6대손 할아버지 규정공 파가 매년 10월 성대하게 시제를 지내는 것에 비해 매년 4월 9일 열리는 청재공파의 시제는 그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한다. 청재공의 묘역은 안타깝게도 도굴범들에 의해 대부분 손실되어 원형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비석의 비문도 비바람에 풍화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청재공 묘역 앞 개울이 흐르는 주변 종종 땅도 일부분이 문산-익산 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돼 이전 평화롭고 조용한 재실의 풍경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정화(李廷華)의 묘

수역이 마을과 이웃한 절골마을(원당동 산 32-1)에 이귀(李貴)의 아버지이며 영의정을 지낸 이시백(李時白)의 조부인 연성부원군 이정화의 묘가 있다.

이정화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관(子貫)이다. 1520년(중종 14)에 조광조의 문인으로 사림에서 명망이 높았던 이기(李夔)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5품 충의위(忠義衛) 부사용(副司勇)을 지냈으며 이귀가 두 살 때인 1558년(명종 13)에 죽었다. 사후에 병조판서·이조판서 등의 벼슬을 지낸 아들 이귀(李貴)의 노력으로 의정부 영의정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이정화의 묘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안동 권씨(安東權氏)의 묘와 쌍분으로 구성되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아들 이귀는 선조 대부터 서인 강경파로 활동했으며 광해군 정권 때 실의의 나날을 보냈으나, 인조반정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였다. 인조 대에 이귀는 호위대장,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우참찬, 대사헌, 좌찬성 등을 역임하였고, 그 동안 남한산성의 수축, 호패법의 실시, 무사의 양성, 국방 강화 등을 적극 건의해 이를 실현시켰다. 1626년(인조 4) 병조·이조의 판서를 지내고, 이 해에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인헌왕후(仁獻王后: 元宗妃)의 상기를 만 2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가 대간의 탄핵으로 사직하였다. 이듬 해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강화도에 호종해 최명길과 함께 화의를 주장하다가 다시 탄핵을 받았다. 당쟁이 치열하고 명·청 관계의 외교가 복잡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하였다. 저서로는 『목재일기』 3권이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연성부원군 이정화의 묘



연성부원군 이정화의 신도비



## 6. 문산-익산 간 고속도로 건설로 사라져가는 마을



신촌목장 이윤우대표 댁 옆 고속도로 공사



철거 전 신촌목장

수역이 마을과 절골 마을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5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산-익산 간 고속도로가 지나게 된다. 이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내포리를 이을 총 연장 261km의 고속도로다. 수역이 마을은 청재공묘가 있는 곳에서 배다리박물관 방향의 주택들과 밭이 고속도로 건설에 수용되어 현재 그곳의 주택들은 철거를 위해 비어있는 상태다. 절골 마을도 196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신촌목장’을 비롯해 마을 일부가 고속도로 건설로 사라지게 되었다.

‘신촌목장’의 폐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목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일이다. 신촌목장의 이윤우대표는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이끌어온 낙농업계 원로다. 그는 낙농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깨우고 설파한 ‘우유홍보대사’였으며 대책미비 상태에서의 유제품시장 개방반대에 앞장섰던 투사였다. 축산단체 대표로 개방반대를 강하게 천명하고 전국 축산농가 쉼기대회 등을 주도했으며 연단에서 정부와 농정당국과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우유 값 인상을 촉구 관철함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연안 이씨 판소부감사공파(判小府監事公派) 17대 손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땅에서 55년째 낙농업을 천직으로 알아온 이윤우 대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라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해서 꺼리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1차 산업을 하는 사람이라 땅의 가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는 사람이다. 마음대로 집을 보수할 수도 없어 집은 비가 새고 낡았지만 그래도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였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조용하고 벽촌 같은 동네가 또 어디 있겠나. 고양시 낙농농가가 한 때 500여개가 넘을 정도로 번성했는데 최근에는 40여 개만 남아있다. 신촌목장은 끝까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그만두게 될 줄 알았겠나. 남북통일을 대비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니 대의에 따라야겠지만 아쉽고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절골마을은 현재 이윤우 대표의 집 뒤 연성부원군 등 조상들을 모신 재실이 있는 종종 땅 옆으로 도로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수역이 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에 마을 일부가 수용되는 것에 찬반이 양분되어 있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마을을 지나는

구간을 교량형식이 아닌 토성(흙을 쌓아 올림) 공사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반대 고양시 공동대책위원회 박평수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역이 마을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다. 고양시를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 최초의 환경연합평가서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논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당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문제점들을 제기했을 때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그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했다. 고양시 최성시장도 시민투표를 강구하고 저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또 그것으로 흐지부지 끝났고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국사봉은 단순한 야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심에 위치한 귀중한 자연 휴식처인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그 산도 절개하고 지나간다. 일부 터널이 지나가긴 하지만 절개가 꽤 많아졌다. 또 국사봉 뿐만이 아니다. 견달산도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고 서삼릉 문화재 주변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 지금 현 상황은 큰 틀의 고속도로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수역이 마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민원이 심한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환경운동본부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이 아닌데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형이 되고 수정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연성부원군 묘에서 바라본 절골 마을 풍경



철거 예정인 수역이 마을 주택



철거 예정인 수역이 마을 거리

무엇보다 가장 고립이 우려되는 곳은 수역이 마을이다. 마을 길이 사라져 버려 아주 답답한 동네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성토냐 터널이냐를 놓고 이견이 많다. 주민 일부는 성토공사를 하면 흙이 소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교량공사(터널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소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의 평화롭고 조용한 본래의 마을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게 되었다.

#### ※ 참고자료.

- 고양지명총람
- 고양의 아름다운 이야기 08. 성사동
- 원당농협 우리고장 유래
-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귀 편
- <http://gyujeong.co.kr>(審問 규정6대손)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Ⅱ 마을 발표

### 3부

1. 동두천 탑동마을의 문화유적 발굴·복원연구  
이명수 /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2. 포천 틀뭇이마을 동해세우기  
최창근 /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3.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 역사 문화적 가치  
마지막 도시어부가 있는\_고양 행주동 나루터 마을  
송예진 / 프리랜서 작가



# 동두천 탑동마을의 문화유적 발굴·복원연구

이명수 /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 〈목 차〉

1. 머리말
2. 불원의 역사
3. 역사의 인물 윤비
4. 일제 토지 약탈과 동점마을
5. 동점마을의 돌탑
6. 동두천 동점마을의 윤비 생가
7. 윤비의 삶을 마감한 낙선재
8. 동점마을 암각문 명칭 유감
9. 암각문 열두자와 자연의 원리
10. 맺는말
11. 참고문헌

## 1. 머리말

경기의 소금강(小金剛)소요산 줄기 남쪽에 자리잡은 탑동 동점마을은 조선27대 마지막 왕 순종(純宗)의 비(妃) 윤비(尹妃)가 태어난 고향이다. 11월 오곡백과(五穀白果)의 추수가 끝난 들녘 허전함은 늦가을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윤비의 애절한 사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동점마을은 윤비(尹妃)의 생가터(生家地)와 북벌(北伐)의 명장(名將) 어유소(魚有沼)장군의 사당(社堂)이 있는 곳이며 지행동에는 어유소 생가(生家)가 있었지만 먼 옛날에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시(市)에서는 다시 매입(買入)하여 복원(復原)해야 한다. 처음 열리는 이번 학술회를 통하여 우리 고장이 지닌 전통과 가치관을 재발견하여 이를 발굴 복원(發掘 復原)발전시켜야 한다.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오늘 학술회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 소중히 여기고 다루어야 할 문화 유적지(遺蹟地)가 그동안 무관심속에 잊혀지고 묻혀져가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20여년간 동두천 인물과 유적지에 대해 수십편의 논문(論文) 및 일간신문에 기고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 늦게나마 열리는 학술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동두천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역사의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필자는 동두천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 희망이 보였다. 동두천은 동두천만의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부터 극복하고 전통문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살피나가야 한다. 동두천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그것은 상당히 개연성있는 미래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현이 가능한 미래이며 어쩌면 필연적인 미래라고 할 것이다. 동두천 역사를 다룸에 있어 희망의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狀況)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중대한 공동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공동 인식이란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현대사의 당연한 귀결(歸結)이며 그렇게 되기까지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거쳐가고 있는가 민족사의 흐름속에 우리의 좌표는 어디인가 이러한 우리의 자아(自我)의 위상(位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면 암담한 현실도 희망의 사료가 되지 못할 까닭이 없다. 그러한 시민의 자아의 위상을 확인 우리만의 저력과 남다른 자질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지닌 고유의 정신적 가치와 종체적인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을 통해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主張)은 학술회를 통하여 더욱 정연(井然)한 논리로서 제시해야 할 성질이지만 그럴 수 없는 시급함이 앞에 가로 놓여 있다 그것은 시장 시의원 도의원의 관심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학술회의 주목적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재 해석하고 역사의 방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윤비가 동두천에서 태어나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한 많은 경복궁의 정치사에서 부터 파란만장한 생(生)을 마감하기까지 기록에 의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불원(不願)의 역사

1910년(융희4)8월 22일 을사늑약(乙巳勒約) 한일합병(韓日合併)에 의하여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의해 빼앗겼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한일병합이라고 한다. 일본 명치유신 이후 급속히 근대화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은 일찍이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여 왔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하던 중 운양호(雲揚號)사건을 계기로 강화조약을 맺고 한국에 대한 진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진출은 종래부터 우리나라의 종주권(宗主權)을 주장해 오던 청나라의 세력과 충돌을 일으켜 여러번의 마찰을 거듭하다가 1894년(고종31) 마침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이 승리하여 청나라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으나 다시 러시아의 세력과 부딪히게 되었다. 1904년 일본은 다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 이를 승리로 이끌어 일본은 한국 침략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앞선 험악한 국제정세를 우려하여 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한일의 정서를 강요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얻고 많은 토지와 이권을 장악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하여 일본인 및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의무(醫務)와 재무(財務)의 고문(顧問)으로 삼게하는 이른바 고문 정치를 행하게 되었다. 1905년 11월 일본은 다시 고종과 정부의 고관들을 협박 또는 매수하여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맺어 일체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

부(統監府)를 두어 보호정치를 실시하였다. (1)1907년(융희1) 일본은 영일(英日)동맹 포츠머스 조약 등에 의해 한국에서의 우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니 이로서 사실상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나라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해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밀사를 보내어 보호조약이 군사적 강제에 의한 비합법적 조치임을 호소하고 국제적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 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을 맺어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 전반에 걸친 지배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불온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감 이토오는 순종황제를 강요하여 비밀조서를 내리게 해 한국 군대를 해산 단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방방곡곡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나 일본에 대한 항쟁의 투쟁이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일본은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이를 진압하기에 나섰으며 한편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여러 학교를 폐쇄하였으며 언론과 출판에 가혹한 제한 조치를 내렸다. (2)1909년(융희3) 2대 통감으로 소네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발령받자 내정한대로 기유각서(己酉覺書)를 체결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박탈하였으며 그해 10월 이토오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자 이를 계기로 침략의 야망을 한층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일진회를 움직여 합방 의견서를 작성 정부에 건의토록 하였다. 이에 홍사단 대한협회 등이 궤기하여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허진은 일본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어 합방 의견서는 국민의 의사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일본은 소네 통감을 무능하다. 하여 소환하고 테라우찌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하니 그는 부임하자 합방의 준비로 헌병제도의 강화와 경찰제도를 충실히 착수 한편으로는 언론기관을 탄압하여 대한일보를 정간하고 대한매일신보의 발매를 금지하였다. 이 같이 모든 준비를 갖춘 테라우찌는 일본정부의 지시대로 착수(着手)해 나갔다. (3)1910년 8월16일 테라우찌 통감은 한국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만나 조약안(條約案)을 제시하여 합의를 본 후 이튿날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禧),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등을 불러 개별적인 승인을 얻어 8월 22일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고 오후5시에 순정효황후 윤비의 만류(挽留)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조인(調印)을 끝냈다. 이때 거리에는 15간(間)마다. 일본 헌병과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고 전국적으로 애국단체를 해산하여 수천명의 애국인사들을 구금하고 억압정치에 이르렀다.

이로서 이완용은 윤비의 백부인 윤덕영을 시켜 윤비의 치마폭에 숨겨놓은 어새를 빼앗아 날인케 하니 조선은 27대에 끝이 나며 5백19년만에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일본의 식민지 정치에 휘말리고 말았다.

### 3. 역사의 인물 윤비

역사와 학문은 물질과 같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물질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 인물들을 평가하는 후세(後世)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옷물이란 정확히 아래로 흐르는 것이어서 우리가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도 후손들에 대우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하에 잃어버린 유산은 우리가 고증(考證)을 통하여 본래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잊혀졌던 윤비가 우리 고장 출신이라는 것이다. 우리 동두천에서 국모(國母)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비록 시대를 잘못 태어난 조선(朝鮮)의 마지막 비운(悲運)의 황후가 되었지만 순정황후 윤비는 1894년 음력 8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불현동 동점마을에서 윤택영(尹澤榮)의 2남 2녀중 둘째이며 딸로서는 장녀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사려(思慮)가 깊고 총명하였다. 첫 번째 황태자비 순명황후 민씨가 1904년에 사망하자 1906년 고종(高宗)10년 병오(丙午)에 13세의 어린 나이로 태자비가 된 윤비는 입궁한지 만60년 동안 망국(亡國)의 한(恨)과 일제(日帝)의 통치하에 설움 그리고 광복후 20년 후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으며 윤비는 낙선재에서 적막한 생애의 막을 고요히 내렸다. 계비(繼妃)로 입궐한 윤비는 20년 만에 순종을 여의고 8.15광복과 더불어 40년만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말년에는 불도(佛道)에 의지하며 보냈다. 산천초목 잎새들은 밤새 내린 찬서리에 붉은 옷을 갈아 입고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 맞이에 여념이 없다. 역사의 세월속에 묻혀져야 했던 조선의 비운(悲運) 슬픈 운명의 마지막 황후 윤비를 들추어 그녀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지고 잊혀져 가고 있다. 윤비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생가(生家)터는 허물어지고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그 터에는 토속(土俗)음식점과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조상을 모시고 살아온 김상우(金相雨)씨 가옥(家屋)만이 윤비의 생가터를 지켜주고 있었다. 어질기로 이름났던 윤비는 정치문제에 초연(超然)하지 못했지만

실은 순진한 임금 순종 뒤에서 그를 격려해 주곤했다. 당시 어지럽던 정국(政局)에서 그나마 순종이 지탱해 나간 것도 윤비의 숨은 힘 때문이었다고 한다. 을사늑약을 꾸준히 밀고 나온 당시 창덕궁에서 일본인(日本人)궁내부차관(宮內府次官)이 참석한가운데 어전회(御殿會)가 열렸을 때 친일파들이 순종을 강박(強拍)하여 합방(合邦)할 것을 종용(慫恿)하자 이를 병풍 뒤에서 엿 듣던 윤비는 밖으로 나와 살짝 순종을 불러서 덕수궁에 계시는 상왕(上王) 고종(高宗)에게 이 엄청난 비극의 사실을 전해 주어야 된다고 귀뜸해 주는 한편 순종의 옥새(玉璽)를 빼앗아 비단치마속에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 일본 궁내차관은 몹시 당황하여 국모(國母) 치맛자락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 일제 앞잡이 백부 윤덕영(尹惠榮)자작의 손을 통하여 윤비로부터 옥새를 빼앗아 냈다고 한다. 평생을 나들이 한번 해 본일 없는 그녀는 6.25때는 홀로 낙선재에서 빠져나와 운현궁 까지 걸었으며 허물어진 골방에 숨어 수복되기까지 술한 고생을 하였다. 낙선재에서 한평생을 보낸 윤비는 불교에 귀의하였다. 법명(法名)은 윤대지월(尹大地月)이며 염주를 매만지며 남은 생애를 조용히 지냈다. 가끔 무료(無聊)함을 달래며 T.V 시청을 낙으로 삼고 앞뜰을 걸어다니며 생활했다고 한다. 별로 표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녀도 이은(李垠)씨 부처(夫妻)가 일본에서 귀국 할 때에는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주위에서는 그때가 윤비 생애(生涯)의 가장 행복스럽던 때라고 말할 정도였다. 윤비는 예전에 미리 써둔 유서에서 내가 죽거든 장례는 불교식으로 할 것이며 모두 일체의 곡(哭)을 금하고 1년 상(喪)으로 치르도록 하는 한편 생전에 상궁(尙宮)으로서 함께 지낸 김 상궁을 위해 남은 재산을 써달라고 간곡(懇曲)히 뒤처리를 부탁했다. 자신(自身)을 위해 일생을 바친 김 상궁을 죽음의 순간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거룩한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4. 일제의 토지 약탈과 동점마을

동점마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청풍김씨(淸風金氏) 집성촌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30여년 전 어렵게 이곳으로 피난 온 선조들은 편안한 안정을 되찾고 몸은 고달프지만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고향을 만들기 위해 논,밭을 일구워 놓았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제의 침략 행위로 인해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고요하고 아득한 이곳도 영원히 마음놓고 살아갈 곳이라는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

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침탈된 뒤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아래에 있게 되었다. 1904년 윤비가 황후로 간택되고 1910년 한일합방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은 일제의 앞잡이 이경모를 앞세워 동점마을 토지를 전부 매입하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 지배권을 확립하자 제일 먼저 손을 뻗힌 경제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농업이 경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마당에서 확고한 근대적 토지제도의 정비를 빙자한 농민 수탈은 본원적 자본 축적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한편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 아울러 토지조사령 조선 민사령부 부동산 등기령 부동산 증명령 등을 공포하여 수탈을 위한 권리의 확정과 제도적 보장을 튼튼히 하려고 하였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이 거창한 사업은 그 후 상당한 곡절을 겪으며 착수하면서 9년을 경과한 이래 1918년 10월로서 일단 완결 되었다. 동점마을은 다행히 산골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농토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수탈은 거의 없었고 대신 마포에서는 지주인 이경모라는 사람이 토지세로 곡식을 거두어 갔다. 일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경모는 결국 윤비의 생가마저 철거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불과 1~2년 남겨두고 헤어 났다고 한다. 바깥채는 이 마을 사람 및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져갔으며 계와 기둥에 필요한 자재는 누구네가 가져갔다고 한다. 1992년 당시 필자는 김상열(75)씨와 동점마을의 유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상열씨는 기억을 더듬었다. 윤비의 생가 안채는 조심스럽게 헐어서 그대로 서울 마포에 있는지주 이경모 터에 복원하였다. 고 한다. 그곳을 갔다. 온 분은 김상열씨 친척되는 김상우씨이며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40여칸의 고대광실 이었을 윤비의 생가에 대해 확실한 고증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찾으려고 국립중앙도서관 영풍문고 종로서적 인사동고서적 교보문고를 뒤져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었다. 1900년 초에는 포천현 서면이었으므로 포천문화원 사무국장과 향토사학자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다행히 필자는 어렵게 윤비의 족보를 종로구청에서 찾아냈지만 윤비의 계보에는 주소가 없었다. 그래서 이곳이 윤비의 생가였다는 문헌을 남기기 위하여 그녀가 생을 마감했던 낙선재 또는 정부기록 보존소 등을 찾아봐야 한다.



## 5. 동점마을의 돌탑

소금강이라 부르는 소요산이 자리잡고 있는 동두천 동점마을 해뜨는 동쪽 턱거리고개를 넘어 4km를 가다. 보면 굽이 도는 왕뱅이 계곡물 따라 오르다가 왼쪽 아늑하고 다소곳이 마을 어귀(於口)에는 돌로 치성을 들어 쌓아 올린 돌탑이 있는데 그 돌탑은 동점마을 수호신(守護神)인 양 마을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동점(銅占)은 구리.동의 가게점자이다. 먼 옛날 이곳에 구리 전연성(展延性)과 가공성이 뛰어난 적색 광택이 금속을 캐어내는 동굴이 있었으며 그 앞에 주막이 있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동점마을로 이름이 지어져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점마을에서 17대째 살아온 김상열(74)씨는 본(本)이 청풍(淸風)이다. 이곳에 살아오신 분들은 선조들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 지금부터 400여년 전에 피난 또는 피신 와서 동점이라는 마을이 생겨나게 됐다. 옛날에는 심심산천이었을 동점마을은 삼태기를 닮은 듯 사방으로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네 어귀를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찾기 어려운 곳이다. 아늑하고 작은 마을이면서 들어서는 입구에는 길손을 맞이하는 돌탑이 있어 편안한 마음을 갖게하여 주는 동점마을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돌탑은 외형상으로 다음 몇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곧 사람 머리만한 돌을 쌓은 돌무더기 위에 형쥬 쥬신 폐백 등을 나무나 돌에 걸쳐놓은 형태로 분류된다. 흔히 이러한 돌탑의 명칭은 돌무더기 돌탑, 돌선왕탑, 탑당산, 상당, 국수당이 라고 한다. 함경남도에서는 국시당, 산재당이라 불린다고 한다. 돌탑은 장방형 또는 원형의 막돌을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로 이 돌무더기 맨 윗 부분에는 흔히 거북 모양과 선돌현의 윗돌이 차이가 난다. 곧 돌탑은 밑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잔돌을 쌓아 형성된 돌무더기 서낭당과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이 돌탑을 조성할 때에는 돌을 쌓기 전에 미리 땅속에 오곡을 담은 무쇠솥이나 주걱 등을 묻어 둔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낭당에서 볼 수 없는 신앙의 형태다. 돌무더기 서낭당과 돌탑신앙이 외형상으로는 서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돌탑은 광의의 서낭신앙에 포함 시키더라도 일단 신앙적인 내용에서 구별되는 전승물로 생각이 된다.

## 6. 동두천 동점마을의 윤비 생가

윤비가 태어난 동점마을은 경기의 소금강이라 부르는 소요산 맥 낮은 능선따라 동남쪽으로 뻗어나간 곳 아래 삼태기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때 구리를 캐내는 광산(鑛山)과 주막(酒幕)이 있어 구리동(銅)자에 가게점(店)자를 써오며 동점마을이라 했으며 마을 토속어로 통점, 통지미라 전해오고 있다. 마을 입구가 좁아 1950년 6.25동란때 인민군과 중공군이 지나가면서 6.25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고 한다. 이곳은 해평윤씨(海平尹氏)와 청풍김씨(淸風金氏)의 문중(門中)이 먼 옛날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다. 예전부터 해평윤씨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고 지금은 청풍김씨들이 동점마을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필자에게 이곳 마을이 윤비의 생가였다는 것도 청풍김씨 문중에서 알려주었다. 청풍김씨의 선조들은 조선시대의 명문가(名門家)로 정종(定宗: 2대왕-효종(孝宗: 17대왕)까지 상신(相臣) 8명, 대제학(大提學) 3명, 왕비 2명을 배출하는 등 특히 후기에 번영을 구가했다. 숙종(肅宗: 19대왕)에 이르러 청풍문중은 당시 치열했던 당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세조(世祖: 7대왕) 왕위 찬탈 과정에서 억울하게 숨진 김종서(金宗瑞: 1390~1453)는 단종을 지키려다. 아들 승규와 승벽과 같이 몰사(沒死)하였다. 그 후 후손들은 고향 동점마을로 피난 내려와 윤비 선조들과 이웃을 벗삼아 살아왔다. 이때부터 윤비 가문을 지켜보았던 청풍김씨 문중에서 필자에게 윤비의 생가터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었다. 이곳 동점마을의 생가는 윤비가 간택(揀擇)되어 간 후 부터는 윤비의 생가로 윤 판서댁으로 불려왔다. 윤비의 친정아버지인 윤택영은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1900년에는 영친왕의 부령이 되었고 1906년 딸이 태자빈이 되면서 해평부원군이 되었다. 순정효황후 윤비의 시어머니인 명성황후 민비에 대한 수백편의 논문과 저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윤비의 일대기를 정리한 짧은 글조차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역사학자나 불교 입장에서 볼 때 윤비는 반드시 기억하고 조명(照明)되어야 할 인물이다.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윤비(尹妃)는 조선의 끝자락 27대 마지막 왕 순종(純宗)의 비(妃)로서 1906년 고종(高宗) 10년 병오(丙午) 13세 어린 나이로 태자비(太子妃)가 된 윤비는 일제 침략에 의해 노골화된 세상이 혼탁하고 국가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황후로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슬픈 생애를 보내야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윤비는 1894



동두천 동점마을의 윤비의 생가터

년 음력8월 30일 경기도 동두천시 불현동 동점마을에서 윤택영(尹澤榮)의 2남2녀 중 둘째이며 딸로서는 장녀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사려가 깊고 서당(書堂)에서 학문을 익히며 총명하였다. 윤비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지고 잊혀져가고 있다. 윤비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생가(生家)는 허물어지고 없어져 민초(民草)라는 토속적인 음식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동점마을에 조상대대로 살아오며 윤비의 생가를 지켜본 청풍김씨(淸風金氏) 문중에서 증언(證言)해 줄 뿐이다. 암울했던 그 시절 나라 잃은 슬픔을 몸소 겪어야 했던 윤비는 1910년 국권을 강탈 당 할 때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를 엿듣고 있다가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순종으로부터 옥새를 빼앗아 치마 속에 감추고 밖으로 나왔다. 이를 지켜본 일본 데라우찌 통감은 윤비의 백부 윤덕영에게 옥새를 가져 올 것을 지시하여 윤덕영은 조카딸인 윤비의 치마 속에 있던 옥새를 빼앗아 오고 말았다. 이로써 한국은 유사 이래 최초이 왕권의 실권이란 굴욕과 나라잃은 비극을 맞게 되었다. 여주시에 가면 윤비의 시어머니인 명성황후 민비의 생가가 있다. 동두천시에도 윤비의 생가와 기념관을 건립하여 1910년 한일합방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순정효황후 윤비가 동두천 출신이란 것도 한일합방은 일본 침탈에 의한 무효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력이 약해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와 국권회복과 조국 독립을 외치던 수많은 선량한 우리 애국 동포들이 산야에서 형장에서 피를 흘리며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다. 한일합방이 없었다면 십수년동안 아시아 전역과 태평양을 휩쓸었던 전쟁의 재앙이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토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도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윤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순정효황후 윤비는 동점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잊혀진 채 묻혀있는 윤비의 생가를 꼭 복원하여 동두천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문화적 환경이 풍요롭게 조성되고 동점마을 주민들의 의욕이 새롭게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민속생활 박물관, 역사민속 사료관, 미술 조각 공예관 등 공개시설도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 동두천 시민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이 활성화 되면 지역 관광상품 등 개발하여 그만큼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와 같은 문화재를 각지에서 문화재를 주체적으로 보호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에 움직여 살아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각 지역마다. 매우 강하여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요즘 지역의 각 정책은 문화정책이 중심이 되어 크게 융합되어 가는 경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주체성 자율성을 확립하여 의도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여 활용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마을이 있는 곳을 위해 지역의 조례 혹은 도시계획에 의해 보존지역을 정하여 지역 활성화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생겨나게 하는 종합적인 시책으로 활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동안 지역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각 대상에 착안하여 한정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정하고 보호하는 점적인 보호가 주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된 문화재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을 포괄하여 면적(面積, Graph, 그래프)적인 보호를 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건조물을 보존지구로 제도적 지정하는 것은 고증 자료다. 역사적 자료 민속이나 문화재에 관한 것은 출토된 유적 발견 장소 지역에 있어서 풍속이나 생활 등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우리의 근대 유산 및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현대적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서둘러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동두천시는 내 고장의 역사인 순정효황후의 문화유적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내고장 바로 알리기 위해 향토역사 자료집도 출간하여 대표적인 인물인 윤비가 이 고장의 추앙하는 문화 인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문화 유적유물을 복원 지켜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7. 윤비의 삶을 마감한 낙선재(樂善齋)



순정효황후의 마지막 모습.  
1960년대 초 작고하기 몇 년전의 윤비 황후 시절을  
재현해 보임.

낙선재는 헌종(憲宗)13년(1847)에 후궁 김씨의 처소(處所)로 석복헌은 1848년에 건립되었다. 수강재는 정조(正祖 1785)에 건립되어 1848년에 수리하였는데 헌종의 할머니 순원왕후(純元王后)의 거처라고 전하며 수강궁 옛터에 세웠으므로 수강재라 이름하였다. 이곳은 순종(純宗)이 승하한 후 순종의 계비(繼妃) 윤비(尹妃)가 거처하다. 1966년 승하(昇遐)한 곳이다. 예전에는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입장(入場)이 안됐으며 매시 정각에 여럿이 모였다가 문화유적 해설사이 안내를 받아 입장했다. 이유는 몇십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개인적으로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지금 곳곳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개인 입장도 가능하다. 궁궐지(宮闕志)에 의하면 창궁에 속하는 건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창덕궁(昌德宮)에 속한 이곳은 서쪽으로부터 낙선재 석복헌(錫福軒) 수강재(壽康齋)가 배치되고 전면과물들이 웅기종기 들어 앉아있다. 그래서 낙선재하면 그 주위 건물군(建物群) 전체를 말하며 내부의 구조도 다르고 건립 연대도 다른 낙선재 소복헌과 수강재가 들어서 있다. 이 건물들은 궁궐식이 아닌 사대부 저택으로 지어진 왕실의 처소이다. 낙선재 대문은 낙(樂)을 즐기라는 장낙문(長樂門)이 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선경(仙境)안에는 신선 처럼 경치가 신비스럽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대문이다. 그러나 낙선재는 아늑함 보다는 슬픔의 눈물과 더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 건물은 국상을 당한 왕들이 상중(喪中)에 근신하는 뜻에서 소복을 입고 은거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래서단청도 하지 않은 소박한 건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1917년 대조전에 화재를 측면으로 행각이 둘러싸고 일곽을 이루고 있다. 낙선재 담장안에는 여러채의 건당했을 때 순종황제 내외가 잠시 머물기도 했던 이곳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비의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곳이다. 그리고 비운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고종황제의 외동딸이자 옹주(翁主)였던 덕혜옹주는 강제로 일본의 왕녀로 출가해서 원치 않는 결혼생활에 끝내 정신병까지 앓다. 세상을 떠났다. 영친왕의 이방자 여사 등비운의 주인공들이 낙선재에서 한 많은 삶을 마감했던 곳이기도 하다. 순정효황후 윤비는 순종이 일찍이 승하하자 서른셋에 홀로 되어 조선왕조를 끝까지 지키려 애썼던 윤비 그러나 그 뜻도 못 이루고 일생을 원통하고 애절하게 살았던 윤비는 그래도 중전다운 인품을 남겼던 황후였다. 일제강점기때 옥새를 감추고 내놓



지 않았던 일이며 6.25동란때 낙선재로 쳐들어온 북한 인민군들에게 낙선재는 이 나라 국모인 어머니가 사는 곳이다. 어디다 감히 충을 들고 들어오느냐씩 물러가라 호통을 쳐서 내쫓았던 일화(逸話)도 있다. 윤비는 왕조가 무너지고 순종이 승하한 뒤에도 일제에 항거하며 기어코 낙선재를 지켜낸 일 어느 누구하나 황후라고 돌 봐주는 일 없는 혹독한 가난과 힘든 피난살이에도 황후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고 낙선재를 되찾아 흩어진 왕족들을 기다렸던 황후였다. 윤비는 왕조의 운명과 함께 사그러지듯 노후에 자신의 운명의 길을 불교에 의탁하였다. 한때 윤비는 성북동 홍천사 가까운 곳에서 셋방살이를 한 적도 있었다. 홍천사에는 태조 이성계의 비(妃)였던 신덕황후의 원찰사였다. 윤비는 거의 매일같이 홍천사를 찾아 불경을 드렸다. 왕가의 마지막 황후로서 왕조를 지켜내지 못한데 대한 회한과 왕가의 며느리로서 왕실을 지키지 못한 사죄를 신덕황후를 향해 매일같이 삼배(三拜)의 절을 올렸다. 홍천사 기도 덕분에였는지 이승만 정부와 끈질기게 외로운 싸움 끝에 창덕궁 낙선재를 되찾아 일본에 있던 영친왕 내외와 덕혜옹주를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허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윤비는 자신의 몫을 끝까지 다했던 것이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된 황후에게는 자식조차 하나 없었다. 1945년 광복 후 조국에는 봄이 찾아 왔건만 황후 윤비에게는 더 추운 겨울만 기다리고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가서 경남 도지사 관사에 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곧이어 부산의 한 포교당에서 방 1칸을 빌려 살았으나 이마저도 뒤따라 내려온 의친왕에게 내어주고 묘지기 방으로 전전해야만 했다. 서울 수복 후 상경한 윤비에게 이승만 정권은 창덕궁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으나 궁궐에 속해있는 낙선재(樂善齋)에서 나가 달라고 통보했다. 윤비는 할 수 없이 결국 정릉의 수선재로 내쫓겼다. 1960년 다시 창덕궁 낙선재로 돌아왔지만 망국의 죄를 뒤집어 쓴 채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말년을 외롭게 지냈다.

## 8. 동점마을 암각문(巖刻文) 명칭(名稱) 유감(遺憾)

옛날 책 “채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천지(天地)는 적연(寂然)하여 움쩍하지 않는데 그 작용이 조금도 쉬지 않으며 지구는 돌고 해와 달은 바빠 움직이지만 그 밝음이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로울 때도 긴박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분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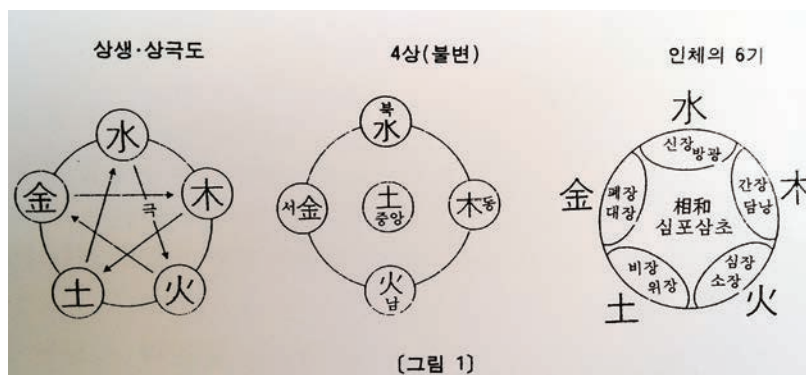
경우에도 의연함을 버리지 않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재빨리 이익을 쟁겨야하는 현대 사회에서 태연하고 신중한 군자의 몸가짐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느긋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최후의 이익을 몰아가는 것이 또한 이익 사회의 현실이다. 옛 선비들이 의연한 마음가짐이 문명의 흠집을 막아준다. 불행으로부터 행복에 이르는 길은 천리의 거리만큼 멀고도 먼 거리이지만 행복에서 불행에 이르는 길은 한 발자국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물질을 떠나 바른 양심 하나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없이 흘러보낸 오랜 세월속에 이제 빛을 보게 될 줄 알았던 암각문 현실은 그것마저 가만 놓아 두지 않았다. 천년 만년 그곳에 나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1998년 수해 때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 돌담 시멘트 위에 폭 박아놓고 말았다. 옛날 선인들이 그 자리를 선택하여 놓은 것은 이제는 망부석인양 누구를 기다리듯 이름과 사연이 틀린 채 그렇게 서 있다. 암각문의 명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암각문내용의 글씨는 충분한 고증과 학설을 통하여 명칭도 정하여야 한다. 그만큼 앞머리 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자는 읽으면서 말뜻이 마음에 와 닿게끔 살아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두천시가 있는 한 암각문도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官)에서 붙여 놓은 암각문(巖刻文)의 명칭(名稱)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바위巖, 새길刻, 글월文이다. 암각문으로 생각하면 그냥 바위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뿐이지 그 이상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다. 암각문 제목이나 내용을 모두 한문 글자로 새겨 넣었기 때문에 글자마다. 뜻이 있어야 한다.

## 9. 암각문 열두자와 자연(自然)의 원리(原理)

동점마을 바위에 아로 새겨진 12자의 글속엔 이 우주(宇宙)와 대지(大地)의 자연 속에 그 뜻이 담겨있는 귀중(貴重)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언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새겨 넣은 것인지 수수께끼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연구를 하면서 그나마 알게 된 것은 자연(自然)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 자연의 원리 원칙이 암각문 열두자 글자 한자 한자 마다.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내용에 해석은 조금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그 해답이 자연인 것이다. 우

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 없이는 한시라도 생명을 유지(有志)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모두가 자연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대가의 지불(支拂)을 안하기 때문에 그 가치성을 모를 뿐이다. 그만큼 자연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란 말이 있다. 자연은 대 우주이며 우리의 인체는 소우주인 것이며 그 뜻이 담겨 있다. 깨달은 사람은 하늘과 땅 인간 도(道)에 대한 이치를 훤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인간사는 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된다. 욕심을 버리면 언제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미소가 있을텐데 알면서도 실현(實現)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고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도(道)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삼라만상은 끝없는 덕과 지혜와 힘으로 우주를 만들어내고 헤아릴 수 없는 미세한 것까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며 그 역량은 헤아릴 수도 없다. 우주를 감싸고 있는 이치로 하늘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成分)을 말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높고 낮음의 방향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다. 지구(地球)가 생기고 자연이 생기고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탄생되니 자라고 병들고 수명이 다하여 죽는다. 해도 그것은 본질인 하나의 안에서 생기고 멸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우주와 자연은 직·간접적으로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고마워 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편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있으며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도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오욕(五慾)과 칠정(七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편하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利己心) 때문에 모든 죄(罪)와 업(業)이 생겨나고 응보(應報)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양심(良心)에 따라 행동한다면 남에게 해(害)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그 당시에도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르쳤고 후세에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서(指針書)를 남겨 놓은 것이다. 자연은 대우주이고 인간은 소우주라는 동양 철학에서 볼 때 자연의 생성(生成)이치와 똑같이 되어 있다. 먼저 자연의 생성 이치를 보면 우주의 만물의 근본 물질인

하나가 자기 땅에 의해 분리되고 음양의 작용에 의하여 목, 화, 토, 금, 수가 생겨난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가 자연과 인체에 작용하는 가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하겠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과 상주의 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겨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이치로 계절이 바뀌며 이로 인하여 현상계의 모든 물질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인체에도 이와 같이 오행에 해당하는 물질적 이치로 생겨나는 변화와 같은 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물의 함유량을 보더라도 자연의 50%가 물인가 하면 인체에도 약 70%가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염분도 수분의 약 13.5%를 함유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혈액속에 염분의 농도가바다속에 염분의 농도와 비슷하고 염마의 자궁속에 양수도 바다와 거의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자연과 인체에는 비슷하지만 이런 형태의 원리가 자연과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는 위 그림을 참고로 하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물체의 변화를 시도하려면 반드시 자극(刺戟)을 주어야 된다. 오행에 속성을 지닌 모든 물질도 서로가 극을 함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자연의 형태를 흐트러짐 없이 보전하는 이치를 상극(相剋:오행설에서 서로 부딪치며 충돌하는 상태)이라고 한다. 자연의 극상(極上)을 보면 먼저 목극토(木剋土)이며 목기의 대표적인 물체는 식물이며 식물은 토기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다. 땅에 입장에서 볼 때 나무에 의하여 자기의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극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무가 없는 땅이라면 그 땅은 단단해져서 불모지(不毛地)로 변하고 말 것이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은 토질도 좋을 뿐 아니라 풍수의 작용도 흐트러짐 없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극의 작용은 땅에서도 하지만 천기(天氣)에서 하며 목기(木氣)는 바람(風)이고 토기(土氣)는 습도가 있으므로 열매가 생기면서 바람에

의해 건조 된다. 토기의 성질은 모든 것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고 수기(水氣)의 성질은 땅을 연(軟)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에도 수기(水氣)는 쉬지 않고 움직이려는 성질인데 토기의 굳어지는 성질에 극을 받아서 물체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천기(天氣)에서 떠 다니는 수기(水氣)를 굳어지게 하여 금기(金氣)인 구름을 만들고 이때에 굳어진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雨)라고 한다. 만약 토기에 이러한 극성이 없다면 아마도 지구의 표면에는 물 한방울도 없을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다. 자연과 인체에는 많은 수분이 필요한 만큼 그 수분을 따뜻하게 해 주는 역할도 한다. 토기의 성질은 뭉치고 굳어지는 작용을 하는데 기운이 부족하여 이러한 작용력이 약해지면 오히려 늘어지게 된다. 우리의 성격도 이와 같이 변하여 책임감이 없는 말이나 행동이 많아진다. 인체내에도 토기가 부족했을 때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며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는 것이다. 증발이 많아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공기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고온 다습한 기후가 됨으로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天二地二人二)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이(二)의 뜻은 음과 양을 말한다. 삼(三)은 생명체의 탄생에 필수적인 조건 세가지를 말한다. 그것은 수기(水氣), 화기(火氣), 목기(木氣)를 말한다. 수기는 물이며 수는 1.6이며 화기는 열이며 수는 2.7인 것이다. 목기는 공기이고 수는 3.8로 되어 있다. 여기에 세가지를 비물질로 보기 때문에 수는 1, 2, 3으로 보면 되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모든 생명체 포함) 똑같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탄생 과정은 각기 달라도 조건은 같기 때문이다.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열이 필요한 것이며 셋째는 공기가 필요한 것이다. 대삼합육생칠팔구(大三合六生七八九)이 구절에서는 육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합하여 육아 되는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하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오행에 배정되는 숫자를 보면 육은 수기에 해당하는데 비물질이 아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계의 물을 표시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수기, 화기, 목기가 한 곳에 응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이 물과 작용인 것이다. 여기까지 육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생칠팔구에 대한 설명은 생은 생명체가 살



아가는 것을 말하고 칠은 현상계의 열을 뜻한다. 첫째 조건이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너무 차가우면 얼음이 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 오행의 상주인데 여기서는 수극화(水剋火)의 이치가 적용된다. 물과 불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생명체가 각각 이치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칠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인 것이다. 다음은 팔(八)이다. 팔이 갖고 있는 뜻은 공기(空氣)이며 모든 생명체들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뿜는 호흡을 해야 만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수가 있지만 호흡은 단 몇 분만 못해도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팔은 공기를 뜻하고 삶에 조건에 세 번째로 표시한 것이다. 다음의 구(九)는 오행에서 금기의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로 구(九)는 네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네가지 조건의 작용에 의하여 하나의 형체가 이 땅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이 우주의 탄생과 지구상의 자연계와 생명체들이 생겨나는 과정과 이치를 설명한 것이고 다음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들이 살아가야 하는 도(道)와 규범(規範)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운삼사성환오칠(運三四成還五七)이다. 이 구절은 문장 그대로 보면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구절이다. 실제로 천부경의 해설서를 읽어보면 방향(동, 서, 남, 북)이나 인체의 사지(四肢)로 풀이 하기도 하는데 인체내의 성(性), 명(命), 정(精)으로 봐야 한다. 또 신(神), 기(氣), 심(心)이다. 성은 정신이며, 명은 성과 정을 연결시키는 고리이며 정은 기운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뜻한다. 신은 영(靈)이며 기는 혼(魂)이고 심은 백(魄)이다. 단전호흡을 할 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상단전에는 성, 신, 영, 작용하고 중단전에는 명, 기, 혼 하단전은 정, 심, 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인체에서 세가지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치를 운산무소(雲散霧消) 구름처럼 흩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며 의심 근심 자취가없어진다는 뜻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인간에게는 선악(善惡)이 공존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다. 원(元)의 뜻은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으뜸이고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하나 하나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형(亨)은 인간의 마음의 진리이며 공부를 하면 하늘의 이치와 땅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利)는 인간이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물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 찾아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정(貞)이라 이 말의 뜻은 가장 으뜸이고 모든 이치를 통달하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가장 옳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다. 성, 명, 정 이 세가지 운동에 의하여 생겨나는 원, 형, 이 정의 능력을 잘 사용하면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고 천당이고 극락인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기 마련이고 선이 있으면 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인류가 현상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며 간단하게 풀어 보면 하나의 생명인자(生命因子)가 현상계에 나타나 한 세상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시작과 끝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형편은 다르지만 본질인 생명인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필자가 권(勸)하고 싶은 암각문 명칭은 표지암(標識巖), 표할 標, 기록할 識, 바위 巖으로 했으면 한다. 그것은 행적(行蹟)과 형적(形跡)으로서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생에 한번 기록을 남길 수도 있으며 사물 뒤에 남겨 놓은 흔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암각문의 열두자에 있으므로 그만큼 중요한 글자인 것이다. 따라서 명칭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하였으면 한다.

## 열 數節

수 구분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具字	在	仁	參	攬	吾	交	處	義	旭	華	土	支
號	하나 일	두울 이	세이 삼	너희 사	다서 오	여서 육	일곱 칠	여러 팔	아홉 구	여열 십	여열 하나	여열 두울
節園	自原	兩性	眞化	肢成	行環	結集	理原	울緣	活運	數具	治定	機能

人本頭體, 兩生

(二體, 三眞三化, 四肢體, 五行體, 六結體, 七原理, 八을緣, 九活理, 十數具,

卯形國, 十二支中心, 宗教標, 意子本, 音字本)과 세계 제일의 10대 자원(人體, 言語, 文字, 文獻, 國土, 三海, 季節, 天理風道, 天脈열, 衣食住)

대자연은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질서 정연하게 우주를 운행하며 지상의 만생에 싹트고 잎 피고 성장하여 꽃피고 결실을 잘 맺어 놓는데 우리 인간들은 천리인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데서 불행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 10. 맺는말



백운사 주지스님과 함께(2000. 6)

지난 세월 선조들의 역사를 창조(創造)하여 왔듯이 우리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遺産)을 이어받아 발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며 책임이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다른 시(市), 군(郡)에 비해 뚜렷하게 보여 줄만한 문화유적(文化遺蹟)하나 없다. 아니 있는데도 발굴하고 보존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태조 이성계 우물터가 그렇고 북벌의 명장 어유소 장군 생가, 마차산의 봉화터(烽火)와 보루(堡壘)소요산의 소요산성(逍遙山城)의 복원과 등산로가 그렇다. 소요산성 올라가는 약300m의 등산로 개설(開設)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길이 없다.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 동두천시 측에 10여년 전부터 건의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미군2사단장을 만나 훼손되어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복원(復元)하려면 미2사단 측으로부터 반환(返還)받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것 역시 2009년도부터 시(市)측에 건의 했지만 아직도 무소식이다. 이외에도 잘못 표기되고 왜곡된 역사가 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역사에 있어 구체적인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살펴 무엇이 잘못 묻혀 있는가를 찾아서 풀어나가야 한다. 어쩌면 마지막 끝자락 윤비의 생가터를 붙잡고 어떻하든 윤비 생가 복원과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가를 애절한 마음으로 텅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지닌 이 시대의 희망과 기대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 관심을 갖고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화적으로 낙후된 도시로서 이웃 시(市), 군(郡) 문화도시이 흐름을 생각할 때 우리도 발굴하고 보존한다면 역사 유적의 복원은 고유의 정신적 자산적 가치로서 새로운 가치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일백년 앞을 내다보고 초지일관(初志一貫)하여 꾸준히 결정된 사항을 추진해 가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결정해 버리고 이내 포기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면 실패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단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노력하며 추진해가는 업무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개성의 시대 차별화 시대이므로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를 힘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예산 확보와 인력 확보를 전 문화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문호(門戶)를 개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윤비의 생가로 들어가는 길목의 대로(大路)의 명칭도 (윤비 생가)로 또는(순정효 황효)로 부터 알려 나가는 기초가 필요한 것이다. 욕심이 있다면 용인 민속촌과 같이 동점마을에 윤비 생가와 기념관 자연 속에 민속촌을 함께 건설(建設)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마지막 순정효황후 윤비의 고향(故鄕)에 관심을 갖고 역사 문화유적을 복원과 관련한 업무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윤택한 문화생활로 높은 정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역사적 문화발전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 문화원과 동두천시에서는 지역 문화유적지를 정비(整備)하여 역사적 가치와 교육의 장(場)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1. 조선 왕비 차림 1999
2. 향토지 동두천 애향동지회 1998
3. 동두천시사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1998
4. 한국역사 한국출판사 조항근 1982
5. 민족의 저항 한국현대사 1969
6. 조선정치사회 집문당 1997
7. 한국풍수명문당 1997
8. 풍수지리 고려문학사 1995
9. 하늘민족청송 1999

## 1. 포천의 개황

포천 땅에 우리민족이 정착한 것은 본 시와 인접한 연천군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과 최근 영중면 영송리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지로 보아 구석기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작동, 가산면 금현리, 일동면 수입리, 창수면 추동리의 고인돌과 포천1고등학교 부근에서 발견된 돌도끼와 화살촉 등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에는 이미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 상석의 중량이 약 32톤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 상석을 통나무와 밧줄을 이용해서 석실 위로 올려놓는데 약 2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여 명의 가용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의 인구는 적어도 1,000명쯤 되어야 한다. 자작동, 가산면 금현리, 일동면 수입리, 창수면 추동리의 고인돌을 중심으로 4개 집단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협력체나 강력한 지배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역사시대부터 이 지방의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古朝鮮)과 성읍국가(군장국가)의 하나인 진한(辰韓)의 전신인 진국(辰國)의 북방경계지역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이후 이 지역에는 한(漢)의 분열책으로 유력한 정치집단이 없었다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기국가시대에 접어들어서 마한의 영향에 속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마한을 중심으로 한 백제(百濟)의 고대국가 발전과 함께 백제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어 진한 땅에서 흥기한 백제가 마한(馬韓)의 전 국토를 병합하고 그 세력을 북방으로 뻗쳐 한의 세력을 축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되자 백제의 세가 포천 전 지역이 그 세력 하에 들어갔다. 그 후 남진정책을 계속하던 고구려가 475년(장수왕 63)에 백제를 공략하고 한강유역의 광범한 지역이 고구려 판도에 들어감에 따라 포천도 이에 속하게 되면서 비로소 고유의 지명을 갖게 되었다. 즉 마흘군(馬忽郡)의 명칭이 붙여졌으며 명지(命旨)라는 별호도 이 때부터 생겼다. 최근



(1994년) 반월성지(半月城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홀(馬忽)이라 새겨진 기왓장이 발견되어 이를 입증하여 준다. 신라 진흥왕(540~576) 때에 신라의 땅이 되면서 견성군(堅城郡)으로 개칭되었으며 757년(경덕왕 16)에 청성군(靑城郡)으로 바뀌었다. 신라말기에 이르러 중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각처에는 군웅이 활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진성여왕(眞聖女王) 즉위 후에 더욱 심하여 북원(北原 : 지금의 원주(原州))에 본거지를 둔 양길(梁吉)은 강원, 경기, 황해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포천은 양길의 세력권에 들어갔다. 얼마 후 궁예(弓裔)가 양길을 누르고 세력을 잡아 901년에 국호를 후고구려(後高句麗)라 하고 수도를 철원(鐵原)으로 정하여 포천은 궁예의 후고구려 세력권에 들어갔다. 918년 궁예가 쫓겨나고 그 부하들이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고장에는 궁예와 고려 태조 왕건에 얽힌 유적 및 일화가 많이 남아 있다. 940년(태조 23)에 고려 태조 창건 이후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에 포주(抱州)로 개칭하였고, 995년(성종 14)에는 십도제(十道制)를 채택하여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고 포천군이라 개칭하여 포천군의 이름이 처음으로 생겼다. 1005년(목종 8) 도단련사를 폐지하고, 1018년(현종 9) 양광도(楊廣道) 양주군(楊州郡)에 이속시켰으며, 1172년(명종 2) 양주군에서 분리하여 감무(監務)를 두고 포천군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후 200년간 큰 변동없이 내려왔다. 1413년(태종 13) 팔도제(八道制) 실시와 더불어 포천현(抱川縣)이라 하고 현감(縣監)을 두었다. 1618년(광해군 10) 포천, 영평을 합쳐 도호부(都護府)를 두고 감영(監營)을 설치하였다. 다시 1623년(인조 1) 포천, 영평으로 분리하고 양주진관(楊州鎭管)에 소속시켰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영평현을 포천현에 병합하고 군(郡)으로 승격시켰으며 1896년(고종 33) 포천군에서 영평을 다시 분할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의 강압적인 한일합방으로 일제치하에 들어갔다가 1914년에 영평군을 다시 포천군에 통합하였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미·소 양군의 진주와 함께 38선을 분계로 한 국토 분단의 비극은 포천을 두 동강으로 만들었다. 창수, 청산, 영중, 일동면의 일부와 영북, 이동면은 소련 군정하에 들어가고 포천군은 나머지 10개면 67개 리를 관할하며 미군정 치하에 있었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포천군청은 한때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9·28수복으로 10월 14일 복귀하였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공으로 다시 철수하였다가 6월 24일 복귀하였으나 청사가 전소되어 포천면 어룡리에 임시 청사를 두었다가 11월 14일 현 군청소재지인 신읍동로 이전하였다. 당시 포천군의 행정구역은 10개 면 67개 리로 구획되었다. 1951년 UN군의 북진으로 38선 이북 지역의 5개 면을 탈환 수복하여 행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군정 하에 북포천이라 하여 북포천군수를 두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12개 면 88개 리로 구획되었다. 1963년 5월 10일 내촌면 화현출장소를 설치하고, 15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포천면 탑동리가 양주군 동두천 읍으로 이속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내촌면 화현출장소가 화현면으로 승격되고 청산면(삼정리, 갈월리, 덕둔리, 금동리 제외)이 연천군으로, 연천군 관인면이 포천군으로 편입되어 행정구역은 13개 읍면 89개 리로 구성되었다. 참고로『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술된 포천과 영평의 변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디 고구려의 마홀(馬忽)인데 일명 명지(命旨)라 하기도 한다. 신라 때에 견성군(堅城郡)이라 고쳤으며 고려 초기에 포주(抱州)라 하였고, 그후 포천이라 개칭하여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 8년에 이를 파하였다. 현종(顯宗) 9년에 양주에 예속시켰고, 명종(明宗)이 양주를 분리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에 현감으로 고쳐 만들었다. 관원(官員)은 현감, 훈도(訓導) 각 한 사람씩 두었다. 방리(坊里)로는 현내면(縣內面), 청량면(淸涼面), 화산면(花山面), 내동면(內洞面), 내북면(內北面), 외북면(外北面), 서면(西面)의 9개 면에 총 호수 2,494호이고, 위치는 동쪽으로 가평현의 경계까지 18리, 서쪽으로 양주 경계까지 30리, 남쪽으로 같은 주의 경계까지 36리, 북쪽으로 영평의 경계까지 26리, 경도(京都)까지의 거리가 97리이다.

영평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평은 원래 고구려의 양골현(梁骨縣)이었는데 통일신라의 경덕왕(景德王)때 동음(洞陰)으로 개칭하고 견성군(堅城郡)의 진현(鎭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9년 동주(東洲 : 철원)에 영속되었다가 예종(睿宗) 1년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원종(元宗) 10

년 위사공신(衛社功臣) 강윤소(康允紹)장군의 내향(內鄉)이므로 영흥현령(永興縣令)으로 승칭(陞稱)되었으며 조선 태조 때 영평현으로 개칭하였다. 화주(和州)로 승개(陞改) 되었고, 문종 때 영평군으로 개칭되었다. 광해군 때 포천현과 합하여 영흥부(永興府)로 되어 감관(監官)을 설치하였다가 인조 때 다시 영평현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평현은 양주진관으로 관직은 현령(縣令)이며, 현북(縣北) 30리에 옛 이름은 유석향(乳石鄉)이고, 지금 이름으로는 화적연(禾積淵)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고 현동(縣東) 30리에 옛 이름은 용곡소(龍谷所), 이름은 와룡암(臥龍岩)이라 부르는 두 마을이 있었다. 방리(坊里)로는 현내면(縣內面), 하리면(下里面), 서남면(西南面), 조양면(助良面), 주침면(注沈面), 북면(北面)의 6개 면이 있으며 도합 호구가 1,435호이고 인구는 남자 3,014명, 여자가 3,067명이다. 위치는 동쪽으로 가평현과 경계가 되고 서쪽으로는 연천현, 남쪽으로는 포천현,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부와 경계하고 경도(京都)까지의 거리는 140리다.

## (1) 포천의 옛 이름의 어원

포천을 고구려 시대에는 마홀(馬忽)이라 하였는데 마홀에 대하여『삼지연(三池研)』에서는 물골[水城] 즉 ‘물이 많은 골(谷)’이란 뜻의 ‘물골’을 음차(音借)한 것이라고 하였다. 골 마(馬)는 물의 옛말 ‘물’ 또 이것의 옛말 ‘매’를 음차한 것이고, 홀(忽)은 ‘골’을 음차하여 썼다는 것이고, 견성(堅城)은 통일신라시대 때 성을 튼튼하게 수축하고 공수(攻守)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연유로 명명하였으며, 청화(淸化)라 한 것은 고려 성종이 정한 별호라고 한다. 지금의 포천이라는 명칭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없고 외부로 흘러 나가기만 한다고 하여 안을 포(抱), 내 천(川)으로 이름하였다.

## (2) 영평의 옛 이름의 어원

영평의 옛 이름이 양골(梁骨)이었다고 한 것은『삼지연(三池研)』에서 ‘터것골’을 음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골 양(梁)은 터(基)의 음차이고 골(骨)은 ‘곧’이므로 ‘것’(거칠다 즉 황(荒)의 어음)의 음차이다. 따라서 ‘터가 거칠다’는 뜻의 ‘터것골’을 한자를 빌어서 양골현(梁骨縣)으로 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 포천디지털 대백과 사전에서 인용)

## 2. 촌락의 형성과정

포천지역에 언제부터 인구가 거주하고 마을이 생겼느냐는 것은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인류가 주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나 자료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포천과 인접한 전곡의 구석기 박물관이나 포천에서 발굴되는 자작리 구석기 시대 움막 거주지, 영송리 지역의 거주지. 근래 한탄강 댐 공사로 수몰지역 지표조사결과 관인면 중리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 등으로 보아 구석기 시대부터 여러 지역에 인구가 거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마을의 생활문화사적 모습은 대개 조선시대의 유제(儒祭)로서 확인된다. 그 이전 시기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촌락(村落, Village)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을(Town)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사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

취락은 인간들이 땅을 점유하면서 만들어 낸 생활 공간 중 하나이다. 취락은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나 사람들의 직업과 기능 및 경관의 차이에 따라 촌락과 도시로 구분된다. 촌락은 도시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고, 주로 농업이나 어업, 광업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촌락은 도시와 달리 인공적인 요소보다 자연적인 요소가 경관에 잘 나타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의 경우 가옥과 도로, 경지, 축사 등의 경관이 나타나는데, 이는 촌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 요소이다. 촌락은 도시에 비해 주민들 간에 동질성이 크고, 기초적인 생활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권이 좁은 편이다. 최근에는 촌락 경제의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촌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촌락은 관광지로서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촌락의 발달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물과 같은 자연적 조건은 물론 방어, 교통 등 다양한 인문적 조건도 촌락이 발달하는 요인이다.

물은 촌락이 입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과거에 촌락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기 쉬운 하천이나 샘물 주변에 입지하였다. 한편, 하천의 범람이 잦은 곳에서는 홍수 시에 물을 피하기 쉬운 곳에 촌락이 위치하기도 하였다. 야생 동물이나 다른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형도 촌락의 중요한 입지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산성(山城)촌과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성벽촌(城壁村)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촌락이 발달하기에 좋은 곳이다. 도로와 도로가 만나거나, 도로와 하천이 만나는 곳 등지에는 촌락이 형성된다. 특히, 나루터는 교통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촌락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개발되는 곳에는 광산 촌락이 형성되고, 온천과 같이 관광 휴양 기능이 발달한 지역에는 관광 촌락이 발달한다. 종교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종교의 발생지에는 종교 촌락이 형성되는데, 큰 사찰 주변의 사하촌, 계룡산의 신도안(지금은 삼군 사령부가 주둔), 경상북도 풍기읍의 정감록촌이 그 예이다.

촌락은 위치, 가옥 구조, 형태 등에서 지역마다 독특한 경관을 나타낸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촌락은 가옥의 밀집 정도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山村)으로 나뉜다. 집촌은 가옥의 밀집도가 높은 촌락으로, 가옥이 밀집한 형태에 따라 괴촌, 노촌, 환촌 등으로 구분한다. 괴촌(塊村)은 가옥과 농경지, 도로 등이 불규칙하게 얹혀 있는 형태의 촌락이다. 이러한 촌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거주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괴촌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우물이나 샘물을 중심으로 산락을 따라 형성된 괴촌이 많다. 노촌(路村)은 도로를 따라 가옥이 늘어서 있는 형태의 촌락이다. 괴촌에 비해 가옥이 훨씬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편, 독일이나 폴란드 등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가운데에 목초지를 두고 그 둘레에 농가를 원형으로 배열한 환촌(環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촌은 분산 촌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농가가 이웃 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의 촌락이다. 미국의 대평원 지대에 나타나는 독립 농가, 남미의 대농장 지역, 독일 북서부의 베스트팔렌이나 슈바르츠발트의 개척 지역 등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지가 협소한 강원도의 산간 지방, 새로 개척된 서해안의 간척지와 화전 경작이 이루어졌던 지역에 산촌이 발달하였다. 산촌이 형성되는 원인은 지형적 특성, 물을 얻는 방식, 농경지의 경영 방식이나 민족성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토지 이용이 조방적인 지역이나 새로운 개척지 등에서는 산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농지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과수원 지역에서도 잘 나타난다.

농촌은 가장 일반적인 촌락의 형태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농촌 인구의 대부분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므로 경제생활의 기반을 토지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농촌은 토지와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편이다. 토지는 거주와 장소인 동시에 생산과 활동 물물 교환의 장소이다.

농촌에서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지역마다 독특한 주거 형태와 관습이 반영된 생활양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적 생활양식이 도입되면서 농촌에서도 도시적 경관이 나타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도시 지역에 경제 활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이상은 위키백과(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중 촌락인용)

### 3. 틀무시 마을의 형성

틀무시 마을에는 4대가의 명문가족이 400년 이상 550년 10대~14대를 내려오면서 서로간에 사돈을 맺어오며, 중앙 정계 재계 학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포천지역 각 기관 의회 관공서에도 이 마을 출신의 인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각 문중의 대표 되시는 분은 서로 다른 문중이 먼저 들어와 사셨다고 하나 역사적 기록이나 문중의 묘지 족보상 입향조의 내력을 본다면 청주 양씨가 제일 빠르게 입향한 것으로 사려 된다.

#### (1) 청주 양씨(楊) 시조

청주 양씨(楊) 시조께서 처음으로 동래(東來)한 것은 고려 30대 충정왕 때 세자위에 있던 공민왕이 원(元)나라 노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하여 원나라 금자광록대부 중서성 정승의 위에있는 양기(楊 起)를 배종대신으로 노국대장공주를 수행하여 고려로 오게 된 것이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가 보내신 대신을 정승(政丞)으로 삼으시고 항상 측근에 두시어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양기 정승은 나라의 정세를 세밀히 파악하고, 중국에 바치는 세공(歲貢)에 국력이 바닥이 나는 것을 보고 중국으로 들어가 매년 받치던 동녀(童女) 5천명, (다른 기록에는 어린 남자아이 고훈(擧丸)말린 것 5말), 말(馬) 3만필, 비단 3만 동(同), 백저포(白紵布) 6만필(匹)을 해마다 받치는 것에 부당성을 설명하고 고려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고 토지가 척박하여 불가하다고 호소하여 전량 삭감을 받아 왔으며, 다음 해에 들어가서는 세공부에서도 완전히 삭제하는 큰 공을 이루신 것이다.

고려조에서는 그의 공훈을 크게 포상하여 삼중대광보국숭록대부 상당백을 봉하고 중화 안악 해주 송화를 식읍(食邑)으로 내리었으나 한 사코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주 양씨로 사성(賜姓)을 하여 청주 양씨가 되었으며 부인은 청주 한씨인데 아버지는 동정 벼슬을 한 한문길이었으며 부인 한씨와 왕의 지극한 호의로 귀화하였을 것이다. 이분이 청주 양씨의 시조가 되시고, 청백리(清白吏)와 벽상삼한창국공신을 봉하였다. 천수를 누리시고 향년 92세로 서거하시니 시호는 충헌이고 묘는 평안남도 중화군에 있고 지금도 관과 민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고 한다. 고려로 귀화하기 전의 중국에서의 楊氏의 내력은 정확치는 않으나 기원 전 2700년 경에는 황제였다고 하며, 그 41세손인 주(周)의 백교(伯僑)가 중국 양씨 가문의 태시조라고 하며, 후한(後漢)때 태위(太尉)직에 있던 백기(伯起) 진(震)의 43세손인 기(起)가 원(元)나라 금자광록대부 위에 있다가 노국대장공주 배종대신으로 고려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후한(後漢)때 태위(太尉)직에 있던 백기(伯起)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東萊太守)로 재직 중에 왕밀(王密)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이로운 청탁을 하려고 밤에 찾아와 금(金) 10근을 바치면서 늦은 밤이니 아무도 모를 것이니 받으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진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거절하니 왕밀이 부끄러워서 그냥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양진사지(楊震四知)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귀신이 안다’ 대신에 ‘땅이 안다’고 하는 기록도 있음).

포천 기지리 (틀무시)에 묘가 있는 병사공은 1400년 9월 생으로(정종 2년) 충헌공의 4남 서평군(西平君 之壽)의 손자가 되신다. 서평군(西平君 之壽)은 광정대부(匡靖大夫)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이며 청백리에 녹선되시었다. 경안공(景安公) 천진(天震)은 서평군의 4남으로 보국대부(輔國大夫) 행호조전서(行 戶曹典書)인데 주청사(奏請使)로 중국에 들어가 수년간 머물면서 고려국의 사정을 상주(上奏)하시어 육부판적(六府版籍)에 올려져 있는 고려국에 대한 세공조항(歲貢條項)을 완전히 삭제하고 돌아오니 나라에서는 안악군(安岳君)에 봉하고 청백리에 녹선 시키었다.

경안공은 슬하에 7남 3녀를 두었는데 병사공 치(治)는 5남이시고 장녀는 세종조의 명재상으로 세계에 최장수 재상으로 기록된 방촌(尙村) 황희(黃喜) 정승의 정실이다.

이와 같이 충헌공 양 기, 서평군 양지수, 경안공 양천진 등 삼대



에 걸쳐 군(君)으로 봉해지고 청백리에 녹선되니, 우리 나라에서 청백리라는 이름을 존재케 한 고려 말 으뜸가는 명문세가(名門世家)이다.

경안공의 5남으로 출생하신 병사공은 용맹과 지략이 특출하여 무관으로 발탁되어 세종 조에 김종서(金宗瑞)를 보좌하여 육진개척(六鎭開拓)에 큰 공을 세워 세종 18년(1456년) 영광군수를 거쳐 함길 황해(咸吉 黃海) 양도 병마절도사에 오르시니 육진을 비롯한 북방 방위(北方防衛)에 전력을 다 하시어 오늘의 중국과의 국경을 획정(劃定)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던 중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의 피바람이 몰아치자 관직을 버리고 포천의 틀무시 산중으로 은거하여 세상과 연(緣)을 끊은 것이 이른바 이것이 두문동으로의 낙향(落鄕)이었다. 1453년 계유년의 희생자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3공과 1456년 병자년의 성삼문. 유응부. 하위지. 이개. 박팽년. 유성원 등 사육신과 생사는 같이 하지 않았을지언정 세종과 단종에 대한 지극한 충성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두문동에 은거하시면서도 매 삭망(朔望)시 영월의 청령포를 향하여 관복을 갖추어 입으시고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포천유림에서도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사육신의 한 분이신 충목공(忠穆公) 유응부(俞應孚) 장군을 모시는 사당 충목단에 병사공 양치 선생과 한남군을 함께 모시고 매년 음 9월 11일 포천의 유관 기관 단체장 중 고등학생 후손 등 1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제향을 받들고 있다. 이래서 포천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받게 되었다.

병사공이 오신 이래로 집성촌을 이루니 양촌(楊村)이라고 한다. 두문동에 들어와 살필재를 담은 문 삼아 은사(隱士)의 삶을 살면서 시작(詩作)에 전념하여, 사십 여년을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 호(號)를 퇴은(退隱)이라 한 것은 물러나 은둔(隱遁)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으며, 이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며, 충절과 의리를 중히 여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절개 있는 공인(公人-武人)이나 걸어간 길이였을 것이다. 병사공 양치 선생은 사십여년을 두문동에 사시다가 1485년 성종 16년 을사년 사월에 86세로 세상을 마치시어, 평소에 흐르는 물소리와 청량한 솔바람과 자귀 소리를 벗삼던 봉수산(烽巖山 일명 天柱山 西麓) 기슭에 안장되어 지금까지 내려온다. 병사공의 묘소에서 남서향 방향 틀뚝이 마을 입구에 볼록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능내(陵內)라고 부른다.

세종대왕의 충애를 받고 한남군 (어) 수춘군 (현) 영광군(璦) 등 3왕자와 박팽년 참판을 사위로 둔 혜빈양씨(惠嬪 병사공 양치공

의 형의 딸)께서 계유정난에 옥새(玉璽 수양대군의 폭군이 옥새를 강탈하러 오자 옥새를 수호하던 헤빈은 옥새를 치마폭에 숨기니 폭군은 헤빈의 다리를 자르니, 팔로 감싸 안았으며, 다시 팔을 자르니, 떨어진 옥새를 입으로 물어 지키려다 목을 치고 옥새를 강탈해 갔다고 함)를 수호하다 한남군과 함께 화를 당하여 시신을 수습하는 이가 없자, 병사공께서 밤중을 이용하여 헤빈의 목을 수습하여 지석도 없고 봉분도 없는 평장으로 모신 것이, 현재까지 내려와 후세에 헤빈 양씨가 묻힌 곳이라 하여 능내(陵內)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다. 註: 현재도 헤빈 양씨의 무덤은 없으며 왕가의 후손에 의하여 일산에 추모단을 모셔 놓았다고 한다.

병사공이 입향한 이래로 등과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으니 현손 양사언은 8개의 큰 고을 도호부사를 역임하였으나 퇴임 후에는 제대로 탈 말 한필이 없었으며, 부인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하며, 불휴의 명문시 봉래집을 남기었으며, 인천도호부사를 역임한 아들 만고(萬古) 감호(鑑湖)공은 시문 천 여작을 남기시었다. (이상은 필자가 마홀의 열에 기고한 논문을 인용하였음)

## (2) 문화류씨(柳)

다음으로 입향하였다고 추측되는 문중이 문화류씨(柳)인데 문화류씨(文化柳氏) 관향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황해남도 신천군 문화면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 때는 문화현이었고 조선조까지 문화군으로 내려오다가 1895년(고종 32 乙未)에 신천군으로 병합문화면으로 되었다. 단군시대에는 당장경(唐藏京)이라 하여 단군의 네 아드님으로 하여금 구월산 밑에 도읍을 정하여 천년 이상 내려온 단군 왕조의 수도이기도 하다. 구월산(945m)은 우리나라의 4대 명산으로 국가의 기도터가 있기도 하고 패엽사는 국내 31본산으로 34개 사찰을 관할하는 명찰이고 그 외에도 정곡사 월정사 구월사 등이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어 명산의 가치를 더 해주고,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말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100길이나 된다는 용연폭포, 이곳을 찾은 허균 선생도 『백 길이나 되는 저 용소에는 수 없이 많은 신훈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시를 짓기도 하였고, 세필의 흰 비단을 흘려 내린 것 같다는 삼형제 폭포는 구월산 달천 온천과 함께 북한 지역의 최고 명승지이자 관광휴양지로 이름을 날리게 한다. 천년 이상 단군 왕조의 수도로 내려 왔다면 단군에 대한 유적 또

한 적지 않을 것이다.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삼성사(三聖祠)가 있으며, 단군대, 사궁석 등등 단군의 유물 유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문화면의 묵방동(墨坊洞)마을에는 문화류씨 시조 묘의 류릉(柳陵)이 있는데 이 능을 관리하는 사당이 묵방재(墨坊齋)라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문화를 관향으로 정하게 되었다.

#### ① 창씨연유(創氏緣由)



류씨는 중국의 황제 현원씨(軒轅氏)의 후예라고 하며 후손 신갑(辛甲)이 기자 조선 때 동래하여 평양의 일토산(一土山)아래 터를 잡고 살면서 일(一)자와 토(土)자를 합쳐 왕(王)씨로 성을 갈았고 이름을 조명(祖明)이라 고쳐 단군왕조에 치민장이 되어 문장과 도덕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25세손 수궁(受兢)은 사사(士師)로 예악과 문물과 의관법도를 제정하여 백성들을 가르쳐오다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쫓겨 남천하여 마한에 은둔하였는데, 기자조선의 왕 기준(箕準)은 재위 시에 일토초가자왕(一土草家者王)이 된다는 동요가 나돌아 왕씨 성을 가진 자를 모조리 죽이려 하였다. 왕조명(王祖明)의 25세손 수궁(受兢)의 32세손 왕몽(王夢)이 일곱째 아들 임(琳)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신인(神人)이 나타나 성(姓)을 세 번 바꾸어야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고 계시하여 왕(王)자의 변형인 전(田) 신(申) 차(車)씨로 바꾸어 오다가 성과 이름을 차무일(車無一)로 정하고 아들 임은 차신을(車神乙)로 바꾸어 32세손까지 내려오며 살았다. 32세손 승색(承穡)은 신라 40대 애장왕(哀莊王) 때 재상의 위에서 국정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애장왕의 숙부 언승(彦昇)이 병부령으로 있으면서 조카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니 41대 헌덕왕이다. 좌상 차승색은 교목세신(喬木世臣)으로 애장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헌덕왕을 살해하여 원수를 갚고자 왕이 잘 다니는 다리 밑에 아들과 같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생질인 요동백(遼東伯) 김생의 집에 피신하게 된다. 생질 김생은 헌덕왕이 역도를 잡으면 금 천근과 식읍 만호를 준다고 현상금을 내걸자 외숙을 신고할 기미가 보인다고 노비가 귀 뜸을 해주자, 아들 차공숙과 함께 국경을 넘어 황해도 구월산 아래 유주에 터를 잡고 조모(祖母)의 성(姓)인 양(楊)씨를 변형시켜 류(柳)씨로 성을 바꾸고 이름도 색(穡)으로 고쳤다. 이로써 우리나라 류(柳)씨의 시초가 되었다. 류(柳)씨의 시조 류차달(柳車達)은 색(穡)의 5대손이다.



## ② 고려(高麗) 개국에 공헌

류차달(柳車達)대에 와서는 큰 부호가 되어 있었고 자손도 번창하여 큰 촌락을 이루고 조정에 출사하고 있었다. 신라말 견훤(甄萱)이 백제 부활을 시킨다고 무리를 모집하여 완산에 도움을 청하고 크게 포악한 반란을 일으킴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고 왕건군이 남진을 하기로 하였다. 이때 유차달이 천여 대의 군차를 만들어 자기 집에 비축된 곡식으로 군량미에 쓰라고 지원을 하였다. 왕건과 부장들은 남녘 지역은 토지가 광활하고 비옥하여 민가에 남은 곡식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차달공은 “백성들의 곡식을 찬탈하여 군량미로 쓴다면 어찌 폭도를 제거하고 난민을 구원한다고 하겠습니까? 소신이 군량미를 대고 다른 군수품도 제공 하겠사오니 폭도를 제거하고 민심을 안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 사뢰니 그 뜻에 따라 완산지역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심을 안정시키었다. 이로써 통합삼한익찬벽상공신(統合三韓翊贊壁上功臣) 이등공신에 책록되고 대승위에 오르고 차운달량(車運達糧)의 글자를 취해 차달(車達)의 사명(賜名)받았고 배위는 신라 金씨이다.

류(柳)씨의 성(姓)이 내려오기까지의 내력을 자세히 알고, 태조 왕건은 참으로 기이한 내력이라고 차달공의 장자 효전(孝全)은 차무일(車無一)의 대를 잇게 하고자 차(車)씨 성을 내려 본관을 연안으로 하여 연안(延安) 차(車)씨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아들 효금(孝金)은 6대를 내려오던 柳씨 성을 잇게 하였다.

고려조에 9세손 대사성 류경(柳暉)공은 최충헌 최우 최항 등 전횡무도한 무신정권 63년간을 무너트리고 왕권을 회복하는데 중흥백 차송우, 별장 김인준 등과 함께 큰 공을 세워 유경공이 대대로 살아오던 유주가 문화현으로 승격되었고 공은 위사공신(衛士功臣) 1등에 서훈되었다. 공의 7세손인 고려 인종과 명종 때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출사한 공권(公權)공은 두 아들이 갑파(甲派) 을파(乙派)로 분파하여 柳家門의 대 산맥을 이루었으며, 10. 13. 14세손에 이르러는 총 15개파로 나누어지고 10세때 자성(資成)의 잉손(仍孫) 류절(柳節)이 풍산 류씨로, 10세 원비(元庇)는 선산 류씨로 10세 인비(仁庇)는 진주 류씨로 분적하여 개관(開貫)하기도 한다. 그 후로도 전주 서산 등 3개의 본관이 더 갈라져 있지만 2005년 포천 계류리에 문화 류씨 5대단을 설단 할 때에는 분적된 종파도 모두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권(公權)공의 둘째 아들은 택(澤)이고 택(澤)의 아들 경(璥)공은 충렬왕 때 대사성 찬성사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를 거쳐 첨의중찬으로 사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를 치사했으며, 문하에 안향(安珦), 이혼(李混) 등의 큰 인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 ③ 조선의 개국과 류문(柳門)의 繁榮

경(璥)공의 손자 돈(墩)은 충선왕 때 시령군(始寧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손자 만수(曼洙)공은 고려말기 요동정벌에 출동하였다가 위화도 회군때 공을 세우고 일등공신으로 찬성사(贊成事)에 올랐으며, 조선 개국과 함께 개국원종공신으로 판개성부사에 임용되었으나 첫 번째 왕자의 난 때 방원에게 정도전과 함께 화를 당했다. 만수(曼殊)공에서 좌상공파(左相公波)가 나오고 현손(玄孫) 순(洵)은 성종조(成宗朝)에 부제학을 거쳐 연산군(燕山君)에 영의정, 중종반정에 가담 정국이등공신(靖國二等功臣)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문에도 뛰어나 연주시격을 번역하기도 했다. 선조조(宣祖朝)에는 동서분당이 심하였어도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일생을 마쳤고, 평란2등공신(平難二等功臣)이 되었고, 시령부원군(始寧府院君)에 녹훈을 받은 영의정 류전(柳堧)도 만수공의 6세손이 된다.

조선조 말의 대학자이고 고종황제가 개항을 하고자 하자 이를 반대하는「경기강원양도유생논양왜정적잉청절화소(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情迹仍請絕和疏)」를 올리는 등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신 용서(龍西) 류기일(柳基一) 선생은 만수공의 17대손이 되신다. 1845년 (헌종 11년 6월 3일 乙巳年)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향적산 아래에서 문녕군(文寧君) 병철(秉喆)공의 차자로 출생하였다. 자는 성존(聖存) 호는 용서(龍西)이다. 어려서 부터 성품이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강직하고 과격하다는 평도 받으며 자랐다. 중암(重庵) 김평묵(金平默)과 양평 서종의 이항로(李恒老)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했으며, 평생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학문과 후학양성에만 전념하였다. 12세 연상인 동향의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동문과는 특별히 돈독하여 위정척사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우국 애민하는 성심을 같이 했다. 용서(龍西)공의 배위는 최익현의 형 승현의 따님이 되신다.

### ④ 현재 류문(柳門)의 활동

고려조와 조선조에 수많은 상공과 대부를 배출하여 고려의 역사와 조선조의 역사를 함께하는 가문이 되었으며, 2010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7만 가구에 30만 중원이 살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예체능 각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간의 조상님들은, 종묘(宗廟). 중종 묘에 유관공이 배향되어 있고, 전국의 서원에 21위가 배향되어 있으며, 사 단 원에 30위가 배향되어 있고, 류기일 선생은 1995년 윤 팔월에 가산면 대대울 산양단에 추배되어 매년 유림들의 향사를 받고 있다. 기지리에 입향하신 조상님은 좌상공파에서 분파되어 부정공을 지내신 유득춘(柳得春)공이 입향하여 10대를 내려오며 지역사회 곳곳에 많은 인재가 분포되어 국가와 지역에 공헌하고 있다.(이상은 필자가 [마홀의 얼]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

### (3) 배씨(裴)의 시조

배씨(裴)의 시조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 6촌 중 금산 가리촌의 촌장 지타이다. 그는 B.C. 57년 다른 5부촌장과 함께 알천(閼川) 양산(楊山:지금의 경주 남산) 아래 나정(蘿井) 수풀 사이에 있는 큰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朴赫居世)를 길러 왕으로 추대하여 개국 1등 원훈에 오르고 총재태사가 되었다. 그 후 32년(신라 3대 유리왕 9년) 금산 가리촌을 한지부로 승격시키고, 그에게 <배씨>를 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씨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문헌이 실전되어 세계를 밝히지 못하므로 지타를 득성 도시조로, 고려 개국 공신 배현경을 중시조로 하여 세계(世系)를 헤아리고 있다.

중시조 배현경은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무장으로 궁예(弓裔)가 태봉국(泰封國)을 세울 때 이를 도와 행오(行伍)로 출발, 기장(騎將)에 이르렀다.

그러나 궁예가 왕으로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자를 죽이고 백성을 혹사하는 등 횡포가 심해지자 그는 918년 6월에 동료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유검필(庾黔弼), 홍유(洪儒) 등과 함께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 개국 1등공신에 올랐다.

이듬해 도읍을 송도(松都)로 옮길 때 개주도찰사로 공을 세웠고, 또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공을 세워 대상 행이조상서 겸 순군부령 도통병마대장에 이르렀다. 936년(태조11년) 그가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태조 왕건은 친히 문병하여 손을 어루만지며 「경에게

자손이 있으니 그들을 잊지 않겠노라」 하고 돌아간 후 이윽고 숨을 거두자 부음을 접한 왕은 가마를 멈추고 통곡했다고 한다.

태조 묘정에 배향되고, 평산 태백산성에 태사사를 세워 철상 4기를 하사하여, 매년 춘추에 향사 하였다. 본관은 시조의 발상지인 한지부가 경주(慶州)로 개칭됨에 따라 경주라 하였다. 배씨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고려조에 공이 있어 득성시조 와 중시조의 여러 파로 나뉘었으나 통일된 혈손이므로 근래에는 경주로 일원화하였다. 배씨는 개국공신 배현경(裴玄慶)의 후광을 받아 고려조에서 번영을 누렸고, 조선조에서도 영의정 1명, 청백리 1명, 공신 2명, 문과 급제자 47명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기지리에 경주배씨가 입향한 것은 조선조 전기 사헌부 감찰을 지내신 배구운(裴九雲)공이 입향한 것으로 되었으며, 현재 노인회장 직을 수행하시는 배인수 용이 13세 손이 되신다. (한국의 성씨 총람 경주 배씨에서 인용)

#### (4) 동래 정씨(鄭)의 시조

동래 정씨(鄭)의 시조는 안일호장(安逸戶長)을 지낸 정회문(鄭繪文)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계에 대한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고려 때 보운호장을 지낸 정지원(鄭之遠)을 1세로 한다. 2세는 안일호장을 지낸 정문도(鄭文道)이다. 정문도의 장자 정목(鄭穆)이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올랐으며, 정목(鄭穆)의 아들 4형제 정제(鄭濟)·정점(鄭漸)·정택(鄭澤)·정항(鄭沆)이 문과(文科)에 급제하면서 세거지(世居地)인 동래를 관향으로 삼았다.

고려조(高麗朝)에 대족(大族)으로 성장한 동래정씨(東萊鄭氏)는 조선조(朝鮮朝) 중묘 배향인물을 3명이나 배출하였다. 그 외에도 17명의 상신(相臣), 대제학(大提學) 2명, 호당(湖堂) 6명, 공신(功臣) 4명, 판서(判書)가 20여명이 나왔고, 문과(文科) 급제자 198명을 배출하였다.

동래정씨 2대조인 정문도의 묘는 현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화지공원에 남아있는데 이 묘에는 풍수지리적인 전설이 있다. 고려 초에 풍수에 일가견이 있는 고익공이라는 사람이 동래지역 호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화지산 풍수를 볼 때마다 “좋기는 하나……”라면서 뒷말을 잊지 못하였는데 정문도와 아들 정목은 그 이유를 묻지 못 했다. 그 후 고익공은 경상도 안찰사를 거쳐 개령으로

전출되었고 정문도가 세상을 뜨자 아들 정목은 고익공의 말이 생각나서 아버지 묘소를 화지산에 모시었다. 그런데 다음 날 묘소에 가 보니 누군가 묘소를 파헤쳐 목관이 드러나 있었다. 다시 목관을 묻고 감시하는데 밤에 도깨비들이 나타나 말하기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목관을 묻느냐. 적어도 금관(金棺)을 묻어야지”라고 하면서 묘를 파헤치고 사라졌다. 정목이 근심하고 있는데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도깨비 눈에는 보릿짚이 금빛으로 보이니 보릿짚으로 목관을 싸면 다시는 묘를 파헤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날이 새자 보릿짚으로 목관을 싸서 묻었더니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금관이야. 이제 됐다”라면서 사라졌다. 그 후로는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 묘를 파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해 여름 어느 날,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황령산의 괴시암 바위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아버지의 묘소를 쓰고 난 후 정목은 개경에 있는 고익공을 찾아가 아버지를 화지산에 모셨다고 하자, 고익공이 깜짝 놀라면서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였다. 이에 정목이 아버지의 묘를 쓰고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고익공은 그제야 안도하면서 “그 바위 앞에 묘를 쓰면 후손 중에서 역적을 낳을 역적바위인데 이제 그것이 깨졌으니 화근이 사라졌다”면서 정목을 거두어 관직에 출사하게 하고 자기 딸과 혼인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종(文宗)대에 정목은 실제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네 아들 역시 모두 문과에 올랐다. 고려초 풍수지리가 널리 퍼지고 동래정씨가 고려시대부터 관직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해 조선시대까지도 양반가였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설이다.

기지리에 동래 정씨(鄭)가 입향한 것은 단천군수를 역임한 괴은공(乖隱公) 정구(鄭球)의 묘가 있고 현재도 후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400년은 되었고 13세의 후손이 내려온다. 정구는 1471년(성종2) 포천 신북면 기지리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대명(大鳴), 호는 괴은(乖隱), 본관은 동래(東萊), 무안현감(務安縣監) 유의(有義)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고, 1510년(중종5)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가 근무하였으며 그후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을 거쳐 단천군수(端川郡守)를 역임하고 벼슬이 종3품 사간원 사간(司諫)에 이르렀을 때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정구는 성품이 강직하고 진실하며 청렴결백하였으며 영달과 사리(私利)를 위하여 정계요인(政界要人)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했다. 한원(翰院)에서 사필(史筆)을 다



를 적에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일체(一切) 불의(不義)와 불법(不法)과는 타협이 용납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난무하고 정국이 불안한 시대인지라 그는 강직(強直)과 양심만이 그들의 불의(不義)를 막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시기(猜忌)와 해꼬지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1519년(중종14) 마침내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중종(中宗)이 반정(反正)이후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할 때 중종의 신임을 받아 정계에 등장한 신진사류(新進士類)의 대표 조광조(趙光祖)는 유교(儒敎)로서 정치와 교화(敎化)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여 이상국가(理想國家)를 건설하고자 각 방면에 걸쳐 과격한 혁신정책을 쓰는 한편 훈구파(勳舊派)를 외직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제도인 현량과(賢良科-경학에 밝고 덕행이 높은 사람을 특별히 전형하는 제도) 출신의 신진사류 30대의 소장학자를 요직에 안배하는 한편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너무 많다하여 삭훈(削勳)을 주장해 전공신의 반수 이상을 삭제하는 등 급진적 개혁을 단행하자 마침내 훈구파의 결정적 반발이 야기됐다. 훈구파의 홍경주(洪景周-숙의 홍씨의 아버지), 남곤(南袞), 심정(沈情) 등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경빈 박씨(敬嬪朴氏), 숙의 홍씨(淑儀洪氏) 등 후궁을 움직여 온갖 모략과 음모로 조광조가 반역을 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곤과 심정은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조씨가 왕이 된다고)이란 글씨를 써서 벌레가 잡아 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케 하는 한편 훈구파들은 국가 안위를 위하여 역적을 처단하여야 한다고 탄핵상소를 하여 조광조는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이후 괴은공(乖隱公) 정구(鄭球)는 18년간이나 절조를 지키며 바르고 곧게 살아왔기에 기묘명현이라 칭송되었다. 신진사류 70여명이 참화(慘禍)를 당하는 연산군 때 무오사화(戊午士禍),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이어 간흉(奸凶)들의 무고(誣告)에 의하여 이루어진 참변이었다. 정구는 이와 같이 불의(不義)와 부도덕(不道德)이 난무하는 조정에 앉아 있을 수 없다하고 관직(官職)을 박차고 포천 신북면 기지리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두문동이란 이름이 생긴 것도 바로 정구 때문이다. 정구는 조정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다리뼈가 연골(軟骨)되어 앉은뱅이라 움직일 수 없다 하고 일체 문밖에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도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그 후 18년 만에 아들 희등(希登)의 두 번째 자부를 맞이하게 됐을 때 신부가 현구고례(見舅姑禮-신부

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뵈는 레)할 때 정구는 언제 그리 했다더냐는 듯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때서야 비로소 거짓 앓은뱅이 노릇을 한 줄 알았다. 그는 평소 방안에 들어 앉아 글만 즐겨 문장(文章)을 벗 삼아 지냈다. 절의(節義)와 함께 문명(文名)이 높아 괴은집(乖隱集)을 남겼다. 그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이 희등(希登)인데 희등 역시 아버지와 같이 절조(節操)를 지키다가 조졸(早卒)한 을사명현(乙巳名賢)이다. 묘는 기지리에 있다. 묘지명(墓誌銘)은 이 고장의 대학자로서 대제학 이조판서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한 외손 용주 조정(龍洲 趙綱)이 찬하였다.

절의(節義)와 함께 문명(文名)이 높았는데, 평소 방안에 들어앉아 글만 즐기고 문장을 벗 삼아 지냈다. 저서로 『괴은유고(乖隱遺稿)』를 남겼다. 『괴은유고』는 2권 1책으로, 권수에 1541년(중종 36) 성세창(成世昌)이 지은 서문이 있다. 본문의 내용은 모두 시(詩)로, 권1에는 80수가, 권2에는 66수가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홀로 있을 때의 심경을 표현하거나, 유람지의 풍광을 읊은 작품이 대다수이며, 이밖에 「기희등부시(寄希登赴試)」는 과거를 보러 간 아들 정희등을 걱정하며 지은 것이고, 「관희등시초문희부(觀希登試草文喜賦)」는 아들 정희등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지었다는 초고문을 보고 급제 소식을 기다리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은 필자가 [마홀의 얼]지에 기고한 글에서 인용)

#### 4. 결론 (3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민속 동해)

병사공. 감찰공. 부정자공. 사간공이 은퇴하여 살 자리를 마련한 곳이니 되는대로 터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지리 마을 동편에 천주산(424.4m)이라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이름도 비범한 천주산이 신북면 기지리와 군내면, 화현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그다지 높지는 않아도 명산(名山)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우리가 흔히 명산이라고 하면 겹산에 굽이굽이 사철 마르지 않는 내가 흐르며, 기암괴석에 폭포가 있고, 유명 사찰이 있으며,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기관이 들어서 있고, 많은 특산물이 생산되며, 명문가의 선산이 내려오고 유명인사의 무덤이 있으며, 마을 출신 인사가 사업을 성공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중앙 관계에 진출하여 가문과 지역을 빛내는 인물이 있고, 성현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사(祠). 재(齋). 영당(影堂). 단(壇)이



있고, 후손들이 전래되는 풍속을 계승받아 유지 발전케 하며 후손에게 물려주는 미풍양속이 있는 명품 마을이 있는 곳을 명산이라고 한다면 천주산은 명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본다. “천주산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과거에 두문산이나 회룡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두문사란 옛 절은 이제는 터만 남았고 기암과 고목 그리고 푸른 솔 붉은 단풍 아름답기가 천작이라, 내 오래 이 산에 살고 싶다”고 한 양사언(楊士彦) 선생이 남긴 글에 따르면 과거 이 부근에 두문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문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천주산의 서쪽으로는 포천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는 명덕천이 서북쪽으로 흘러 천주산 북쪽에 있는 만세교 부근에서 합류한다. 천주산 서북쪽 기슭에는 전에는 국가기관이었다가 지금은 지방기관으로 전환된 포천시 농업 기술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2009년에는 과거 화강암 채석장이었던 곳에 포천 아트 밸리가 개장하였다. 본래 이곳에서 생산된 포천석은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워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대법원 검찰청 K B S 등 많은 국가기관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채석이 끝나고 폐허화된 것을 천주호수, 조각 공원과 공연장, 천문 관측대, 전시장 등으로 조성하여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많은 국민들이 애호하게 되었다. 천주산의 등산로는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젓함을 선호하는 산행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뒤 산에는 서울 남산에서 경흥에 이르는 긴급 정보 전달 수단인 봉화대(烽火臺)가 있다. 그래서 천주산의 다른 이름도 두문산 봉화산 봉수산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천주산 정상에는 국가시설인 K B S 중계 탑이 서 있으며, 2010년에는 포천시에서 등산로를 정비하며 주변을 관망할 수 있게 정자를 지어 놓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천주산 [天柱山].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일부 따옴.)

위의 4개 문중이 입향하기 이전에도 인구가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상 기록을 찾지 못하였고 510 여 년 전에 입향한 문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문중간 혼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행정권이 미치면서 마을의 대표가 선정되고 촌장격으로 원로를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큰 나무에도 빌며 큰 바위에다가도 빌다가 나무에 비는 것이 당산제로 발전하였고, 큰 바위에 빌던 것이 산신제로 발전하였으며, 땅에다 빌던 것이 동해제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주산 자락을 따라 마을이 남북으로 길게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는 논이고 산자락 따라 밭으로 경작하며, 밭 옆으로 자연스런 60여호의 촌락이 형성돼 있다. 목신을 모셨다고나 할까 하는 성황당이 1960년대까지도 세 군데나 있었다. 마을 입구 지금은 [기원정사]라는 작은 사찰이 들어와 흔적도 없어진 곳에 성황당이 있었고, 틀뭇이 양촌에서 군내면 하성북리 자라울로 넘는 고개 마루에도 성황당이 있었고, 지금도 성황당 고개로 불리는 화현면 지현리로 넘어가는 마루턱에는 울긋불긋한 기가 걸려있고, 돌무더기가 있으며, 등산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정성을 올리는 흔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350여년을 한결같이 지속해 온 우리민족 고유의 산신제를 모셔오고 있으며, 마을의 당산제 격인 동해제를 지금까지도 동민이 모두 참여하여 지내오고 있어 포천시와 포천문화원에서 우리 민족에 전래되는 고유한 풍속을 틀뭇이 작은 마을에서 지켜온다 하여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출품하는 등 전통 민속 알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 天柱主山之神 山神祭

천주산 정상에서 마을쪽으로 내려오다 8부 능선에는 샘물이 나는 곳에 10여 평이나 되게 넓은 곳이 있다. 이곳이 매년 음력 9월초에 택일하여 산제를 올리는 산 제터 이다. 8부 능선인데도 마르지 않는 샘이나와 산제일이 잡히면 화주로 선임된 산제 봉행자 4명에서 6명 정도가 산제 전날 산제터에 올라가 天柱主山 之神이라는 돌에 새긴 위패와 상석을 청소하고 돌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탕 중탕 하탕의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며, 조라 술을 담구어 놓고 하산을 한다. 다음날 오시(午時)에 산제를 지내기 위해 산제축문. 제관복. 생소머리. 백설기. 사색과일. 북어 통포. 소지지 등을 등짐으로 운반한다. 산제 터로 옮겨진 제물은 다시 하탕에서 씻고 중탕에서 씻고 상탕에서 씻어서 제상에 진설을 한다. 참사자 모두 삼탕에 차례로 관세를 하고 오시에 맞추어 유건도포를 착복하고 제단 앞에 도열을 하면 집사가 산제가 시작됨을 고하고, 초헌관이 강신례를 하고 참사자가 재배를 올리고 초헌관 류재렴이 초헌작을 하고 참사자 모두 부복한 상태에서 축관이 독축을 한다. 금년의 선임된 제관과 산제축문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음력 9월 3일 산신제

維 歲次 檀君起源 4350년 丁酉 九月 庚辰 朔 初三日 壬午  
 幼學 柳在廉 敢昭告于  
 天柱主山之神 常賴神佑 庇護洞中 人畜無恙 時和年豐  
 歲換月改 茲值季 秋於薦豆 登式飲芬苾 尙  
 饗

초헌관 류재렴 틀무시 노인회 총무 재배 평신. 축관 틀무시 노인회장 배인수. 아헌관 배상일 아 헌작 재배. 종헌관 정동운 종 헌작 재배. 철잔. 참사자 재배. 초헌관 음복. 사신례(謝神禮). 분축(焚祝). 대동소지. 산제 참여 세대주명을 호명하며 소지. 출향인사 소지. 철상 후에는 참사자 음복 하산.

산제 비용 - 단독 주택 거주자 세대별로 (80만원에서 100만원) 거출.

제물 분배 - 소를 잡아 산제를 올리는 해는 참여 세대별 고기 근수를 나누어 배분하고 소머리 내장 우족 등은 부녀회로 인계가 되어 조리가 된 다음날 마을 결산 총회를 겸하여 추수감사의 대동잔치를 한다. 이날도 마을 회관에 보관된 농자 천하지대본 이라는 장대기가 세워지고 풍악이 이어진다. 소머리만 쓰는 해는 마을 기금에서 고기를 충분하게 사서 마을 잔치를 한다. 이와 같이 산제를 지내 온지가 350년은 된다고 한다. 명문 사대부 4개 성씨가 입향하고 100년 쯤 지나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개인 가정에서 모시던 토속신앙이 대동화하면서 천주주산 지신 산신제를 모시는 것이 6.25 전쟁 같은 변란이나 마을의 큰 흉사가 있는 해 말고는 결한 예가 없다고 한다. 물질과



문명이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전통행사가 4세기 가까이 이어오는 것은 명문가의 후손답게 조상님들의 고유의 미풍양속과 동민을 하나 되게 하려는 불문율을 지켜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 틀뚝이 동해세우기

틀뚝이라는 마을은 450년 전부터 병사공 양치, 감찰공 배구운, 사간공 정구, 부정공 류득춘 등 사대부 출신 관료들이 이마을에 정착하면서 100여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서로간 사돈을 맺어오며 인구가 증가하자 마을의 대표적인 촌장이 추대되고 각 가정마다 토속 신앙을 모시고 믿던 것이 대동제 화하여 산신제와 당산제격인 동해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틀뚝이 마을에서는 정월 행사로, 열이렛날 마을 입구에서 개를 삶아서 올리는 구신제(狗神祭)를 올렸다고 구전되어 오고 있으며, 약 350년 전부터는 현재와 같이 동해제를 올려 왔다고 전한다. 동해제를 올리기 위하여 동민들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동해 만들기에 필요한 조짚, 수수깁, 옥수수깁, 벼짚 등을 일정량을 준비하여 놓는다. 동해제 정월 16일 귀신날 일주일 전부터 새끼를 꼬고 동해줄을 만들고 비축해 놓았던 농산 부산물을 거두어 남녀노소 부락민이 총동원된 가운데 4m 길이가 넘는 통나무로 틀을 짜고 조짚, 수수깁, 옥수수깁, 벼짚 등 부산물로 쌓고 감기를 거듭하면 거대한 동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깥부분에 청솔가지를 박아 화력을 높이고, 검은 연기를 더 나게 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 높이는 것이다. 다 만들어진 동해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세우고 밧줄로 결속을 한 다음 마을 동편의 천주산에 떠오르는 달님의 시간에 맞추어 동해 제(祭)를 올린다. 금년 정유년 동해제 제관과 축문은 다음과 같다.



동해제 제물 - 쇠머리 백설기 사색과일 통포 제주 정종.

동해제 제관 - 초헌관 노인회장 배인수, 아헌관 원로 류건열, 중헌관 정동운, 축관 류재렴, 집사 배홍수 양기원, 집례 류재빈.

동해제 절차 - 달님이 천주산에 솟으면 집례가 동해제 시작을 고함. 제관 동민 동해 앞에 도열. 초헌관 抱川機池洞口守護之神 위패를 모신 제상 앞에 부복 강신례. 제관 동민 재배. 초헌관 초헌작 재배. 참사자 일동 부복. 축관 유재렴 독축

維 歲次 檀君起源 4350년 丁酉 正月 庚辰朔 十六日 壬午  
 幼學 裴仁洙 敢昭告于  
 抱川機池之洞口 守護之神 今爲歲次 年例行事 敢次 致誠  
 維時保祐 時和年豐 謹以 酒果祗薦 歲事 尙  
 饗

초헌관 재배. 아헌관 아 헌작 재배. 종헌관 종 헌작 재배. 철잔. 참사자 재배. 초헌관 음복. 사신례(謝神禮). 분축(焚祝). 대동소지. 동제 참여 세대주명을 호명하며 소지. 출향인사 소지. 철상 후에는 참사자 음복. 등 동제가 끝나면, 집례자 구령으로 ‘불을 넣으시오’하면 참석한 동민이 모두 햇불에 불을 붙여 동화에 불을 붙이면 떠오르는 달과 솟아오르는 동화가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마을의 풍물 농악이 계속 농악을 연주하고 동민들은 동해주변을 돌며 춤을 추며, 금년의 평안 무사함 세세풍년 다복을 기원하는 개인 햇불 돌리기, 깡통 돌리기를 하며 불이 꺼질 때까지 마시고 놀며 마을 의 영원한 단합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 틀뚝이 동화세우기의 발전 방향

한 마을의 전통 민속 축제가 350년이 경과한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포천시와 포천문화원에서는 자연부락에서 전통을 지키며 이어온 동화세우기를 경기도 민속 경연대회에 출전시켜 2005년도 안성시 실내 정구장에서 실시된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9월 김포종합운동장에서 경연한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경복궁 민속박물관에 초청 공연을 하여 감사패를 받아 온 바도 있다.

### 〈문제점〉

1. 한 번 경연에 출전을 하려면 50여명의 동민이 가업을 전패하고 수 십일을 연습하여야 하며,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인구의 감소로 인력동원에도 문제가 있고,
2. 50여명이 연습을 하려면 6-15Km 거리에 있는 포천시 종합운동장이나 가산면 궁말에 있는 포천메나리연습장을 이용해야 함

으로 이동비용이나 점심 또는 간식의 해결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이다.

3. 현재는 예충 무용협회 소속의 박민준 감독이 연습을 지도하고 출 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음.

#### 〈대책 및 발전방향〉

1. 포천시 가산면 메나리길 72 포천메나리 보존회와 같이 전수회관이 있어야 한다.
2. 포천시 가산면 메나리길 72 포천메나리 보존회와 같이 기능 보유자가 계속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포천시 가산면 메나리길 72 포천메나리 보존회와 같이 연습장이 있어야 한다.
4. 포천시 가산면 메나리길 72 포천메나리 보존회와 같이 장비나 소품을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한다. 동해세우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기능보유자가 있으며, 전수회관이나 연습장 또는 농악기 보관 창고가 시급한 형편이다.
5.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인 보조금의 지급만으로는 전통을 지켜가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6.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작은 부락의 소규모 연례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 ※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

1. 포천디지털 대백과 사전
2. 포천군지 민속편
3. 포천의 민속 (포천문화원 2010년 12월 30일 간행)
4. 청주양씨 대동세보
5. 문화류씨 대동세보
6. 경주배씨 대동보
7. 동래정씨 대동보
8. 포천향교 포천유도회 정기 간행지 [마홀의 얼]에 기고한 포천문화원 최창근 향토사연구소장의 기고문.

## 2005년 포천일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틀뭇이 동화세우기 전통민속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안성시 종합운동장내 실내정구장에서 개최한 제15회 경기도 민속 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축제에는 경기도내 26개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쳐 보였으며, 포천을 대표한 동화세우기는 약350년 전부터 정착하여 거주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틀뭇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민속의식으로 소재 및 연출 등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동화세우기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다음날인 열엿새 귀신날에 햇불놀이에 필요한 수수깡, 조짚, 벚짚 등을 집집마다 모아 동화 (약10m, 둘레 4m)를 세우고 지역주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천주산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달님을 향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몰아내며 소원성취와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으로 계승해 오고 있으며, 옛날에는 떡과 과실을 차려놓고 개(犬)를 잡아 대동제사인 구제사를 지냈다는 유래도 전해져 내려온다. 포천시는 이번 축제의 연출은 길놀이, 동화에 필요한 재료 수집, 동화세우기, 소지, 기원제, 달님놀이, 뒷풀이 등 사실에 근거한 연출로 이 마을 향토 고유민속 발굴 및 재현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2005년 포천신문 9월 10일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틀뭇이 동화세우기 전통민속이 2005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안성시 종합운동장내 실내정구장에서 개최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축제에는 경기도내 26개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쳐 보였으며, 포천을 대표한 동화세우기는 약350년 전부터 정착하여 거주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틀뭇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민속의식으로 소재 및 연출 등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동화세우기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다음날인 열엿새 귀신 날에 햇불놀이에 필요한 수수깡, 조짚, 벚짚 등을 집집마다 모아 동화 (약10m, 둘레 4m)를 세우고 지역주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천주산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달님을 향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몰아내며 소원성취와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으로 계승해 오고 있으며, 옛날에는 떡과 과실을 차려놓고 개(犬)를 잡아 대동제사인 구제사를 지냈다는 유래도 전해져 내려온다. 포천시는 이번 축제의 연출은 길놀이, 동화에 필요한 재료 수집, 동화세우기, 소지, 기원제, 달님놀이, 뒷풀이 등 사실에 근거한 연출로 이 마을 향토 고유민속 발굴 및 재현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0일

## 포천신문

포천 신북면 기지1리(이장 류재영)는 틀뭇이 동해세우기보존위원회(위원장 배인수) 주관으로 지난 2월 12일 음력 정월 16일 마을회관 앞에서 '동해세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재영 이장과 배인수 동해세우기보존위원장, 지역주민 1백여 명 그리고 최춘식 경기도의원, 유재빈·윤충식 시의원, 변궁수 신북면장, 최호열 포천신문사 명예회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했다. '동해세우기'는 틀뭇이 마을에서 350년 전부터 전통적 풍습으로 내려온 평안기원 민속행사로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동해세우기 뿐만 아니라 기원제, 쥐불놀이 등 마을주민 모두가 한 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져 왔다. 행사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우리 틀뭇이 마을은 조상님께서 해오던 평안기원 풍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것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올 한 해는 마을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가 만사형통하기를 달님을 보며 빌었다”고 말했다.



## 포천신문 2010년

포천시는 지난 7월 1일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천주산 정상에 전망(前望) 정자를 설치하고 등산로 주변에 이정표 설치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천주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6천6백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정상에 전망정자 1개소, 이정표 6개소, 목계단 10단, 횡단목배수로 설치 8개소, 로프난간 30경간,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한 사업이다. 이번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기본설계부터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전망대 역할을 하는 대형 정자는 전통 한국식구조를 본떠 설치한 것이다. 천주산 등산로를 운동 삼아 자주 찾는 한 주민은 “그동안 천주산 정상에 오르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상 전망정자 설치로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반월산성 및 포천시의 전경을 새롭게 볼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7월 07일

## 포천일보 sw6405@naver.com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동해세우기가 9월 22일 23일 김포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김포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총30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틀뭇이 동해세우기”에 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2017년 9월 포천일보 sw6405@naver.com



##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 역사 문화적 가치, 마지막 도시어부가 있는 고양 행주동 나루터 마을

송예진 / 프리랜서 작가



사진 오른 쪽 강홍강 전 행주서원장이 선 곳이 옛 행주나루터

### 행주동 나루터마을에 대한 이해의 시작

한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 환경, 생활,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다보면 어느새 시·공간을 훌쩍 넘어선 ‘우리 마을’과 만나게 된다. 궁금증과 지적 호기심 같은 자극이 없다면 마을로 가는 여정이 자칫 밋밋해지기 쉬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다른 즐거움과 재미를 찾고자 의지를 다지다 보면 그 길에서 과거의 ‘어떤 그’가 어느새 ‘지금 나’란 이와 이웃한다. 그 여정에서 ‘우리 마을’의 역사는 기본적인 기초자료의 신뢰성, 다양성, 정확성, 구체성에 따라 더 단단해지기도 간략해지기도 한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나루터마을로 가는 길은 현재 마을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 유추해보는 즐거운 관심에서 시작됐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이어지는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마을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기록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지표와 고민의 시간을 남겼고 마을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과 깊이에도 변화를 주었다.

특히 이번 행주나루터마을 조사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검재 정선의 ‘행호관어도’외에 행주산성 용정마을에서 내려다본 한강 낙조를 그린 정선의 ‘용정반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을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새로이 알아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사도 얼마든지 새롭게 재구성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마을조사가 갖는 의미는 이미 중요해졌다.

### 검재 정선 선생의 시선이 머문 자리, 행주동 나루터마을

마을의 옛 명성이 현재라는 흐름 속에서도 그대로 반추되고 가치가 되는 곳이 행주동 나루터마을이다. ‘덕양산’이라는 산과 ‘한

강'이라는 강을 낀 천혜의 자연 환경은 나루터마을의 옛 가치와 현재적 가치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나루터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하드웨어적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기록 정리 공유하면서 나루터마을이 갖는 의미와 핵심요소들을 정리해보면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한다.

-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과 대첩비가 있는 곳
- 진정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작품 배경지가 된 '아름다운 강가 마을'
- 바닷물과 민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수역 '한강하구' 마을
- 33명의 도시어부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행주나루터와 도심 속 어촌 마을
- 조선시대 낙건정 등 22곳의 누정과 별서가 있던 아름다운 강가마을
- 한양으로 가는 길목, 수상교통로의 중심지 행주나루터
- 행주서원, 행주성당, 행주교회가 있는 신문물의 교류지
- 한강 물길로 고양시 옥토를 일군 독립운동가 양곡 '이가순 공덕비'와 행주양주장
- 조선 당대 최고 문인들의 시비가 있는 시비공원
-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 위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곳 '3.1선상만세운동지'
- 어촌마을의 풍어제 '행주나루 강풍어제'가 재현되는 도시 속 어촌 마을

## 인간과 강이 상호의존하면서 생존해가는 도시 속 아름다운 한강 어촌마을

서해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한강하구 기수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속 어촌마을 행주동 나루터마을. 한강 다리가 들어서기 전에는 한강수운을 이용해 서해에서 오는 물자를 실어나르던 수상교통의 길목이자 변화가였고 지금도 마을 앞으로 흐르는 한강에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부가 있다.

해상교통이 발달했던 19세기 후반 서해로 수송된 전국의 세곡과 세금, 생선과 물자들이 한강물길을 이용해 중간보급기지이자 국제교역항이었던 행주나루를 거쳐 도성으로 들어갔다. 행주는 포구라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나루였음에도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돼 위어소, 석빙고를 설치해 운영했다.



겸재 정선 선생의 시선이 머문 자리, 행주동 나루터마을



인간과 강이 상호의존하면서 생존해가는 도시 속 아름다운 한강 어촌마을

나루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여전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강을 이루는 행주 나루터마을. 생물다양성이 높아 가장 많은 동식물이 분포되어 살아가고 철 따라 다양한 어종의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오늘도 강과 상호의존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지키며 생존해가는 아름다운 풍광의 어촌마을이다.

## 한강하구 수려한 풍광의 대표적인 어촌마을, 행주외동 먹거리촌이 형성된 풍경 좋은 도심 속 강가마을

행주산성 서쪽 한강변에 있는 마을로 서울에서 행주대교를 이용해 고양시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오른쪽 강변 마을이 행주외동이다. 행주외동은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어촌마을이며 풍경 좋은 강가마을로도 유명하다. 마을의 뒤편에는 덕양산이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22개의 정자와 별장이 있을 정도로 마을의 풍광이 수려한 대표적인 나루터 마을이다.

소애촌, 서원촌, 달동네, 갯뻬말, 서화촌, 행화촌 등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사를 짓는 집보다는 고기를 잡는 집이 더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먹거리촌이 형성된 식당가로 바뀌었지만 옛날 나루터 어촌마을답게 식당 메뉴는 장어구이, 매운탕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아쉽게도 식당가에서 사용하는 고기들은 어민들이 잡은 뱀장어나 물고기는 아니다.

어민들이 잡는 뱀장어는 장마 때나 가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인데 반해 이곳 식당가에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양식 장어를 사용한다. 어민들이 잡는 가을 뱀장어는 바다로 산란하러 가는 ‘내림장어’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십 년간 진품 대접을 받아 왔다. 요즘도 임진강이나 문산의 자연산 민물장어식당에서 파는 장어의 대부분은 행주에서 잡힌 내림뱀장어다.



상권이 형성된 만남과 이별의 장소, 행주나루터

## 상권이 형성된 만남과 이별의 장소, 행주나루터

고양시의 대표적인 어촌마을인 행주외동과 법곶동은 한강 변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와 한강 수운을 이용해 서해에서 한양으로 물자를 나르는 수상교통로의 요충지였다.

행주나루는 삼국시대 백제의 도성인 한성이나 조선시대 한양



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해상교통이 발달했던 19세기 후반, 행주나루가 있던 행주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고양시 역사의 중심지였다. 삼국시대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문물 또한 하나 둘 전해지기 시작했다. 지형이 가파르고 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으로 볼 때 동물을 이용한 달구지, 수레보다는 배가 당시 운송수단으로는 편리하고 효율적이었다고 한다. 행주나루는 그때부터 중요한 문물교류의 장소였다.

당시 행주나루는 서해로 수송된 전국의 세곡과 세금, 생선과 물자를 도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보급기지이자 국제교역항이었다. 행주가 포구라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나루였음에도 중앙의 관청을 가진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돼 위어소, 석빙고를 설치해 상주 운영까지 했다.

행주나루는 18세 초반까지 영세하고 한가로운 나루터였다. 주민들은 고기잡이와 돌방구지나루터의 나룻배로 생계를 유지했다. 행주교회 평구데이에는 얼음창고 석빙고가 있어 겨울에는 얼음을 팔아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18세기 중엽부터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강의 포구들은 해상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한강 하구에 있던 행주나루도 이때부터 신흥포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행주는 서해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의 길목에 있어 서울로 가는 배들이 반드시 거쳐야했던 수상교통의 요지였다.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당시로서 배는 주요한 운송 수단이었고 나루터는 주요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강변으로는 선박촌이 형성되었고 상선들을 통

해 관수품과 도성의 생필품들이 공급되었다. 상권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행주로 모여들었는데 포구 주위에는 상인과 선주, 물주, 관리, 사공, 여각, 객주, 무속인, 목수, 대장장이, 거간꾼, 무뢰배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과 행주에 터를 잡고 살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행주는 고양 읍내와 더불어 사람이 가장 붐비는 변화가로 변해갔다.

행주나루는 행주산성 서쪽 2km지점에 위치하며 옛날 김포 개화나루와 연결되는 한강 하류의 최대의 나루터였다. 김포, 강화일대의 배들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물때를 기다리며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서해안에서 서울로 가는 첫 번째 나루로 당시 나라에 바치는 세곡을 실은 배가 서울 마포나루를 오고갈 때 날이 저물거나 쉬어갈 때 들렀던 곳이 행주나루다.

겨울에 한강 얼음을 잘라 보관했던 석빙고는 여름철 한강 이북으로 들어가는 고깃배들이 어물을 상하지 않게하기 위해 석빙고에 들러 얼음을 채웠다. 여객과 화물이 모였다 흠어지는 장소였으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즉 교역장 역할도 했다. 술과 밥을 팔고 나그네를 유숙시키는 여관 겸 주점이 있었고 천주교와 개신 성직자, 선교사들이 반드시 이용하는 뱃길이자 근대서구문화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행주나루였다.

### 33인의 도시어부들이 강의 역사를 이어가는 나루터마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 행주강에는 아직도 인천 물때에 맞춰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33명의 어부가 있다. 어업인 조직 ‘행주어촌계’(행주나루어촌계영여조합법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시대가 변해 이제는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는 도시어부가 되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권 허가를 받아 33명의 어부들이 가양대교에서 킨텍스IC까지 공동어장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행주어촌계 계원들은 행주나루터마을을 중심으로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았거나 서울 한강 개발로 어업권을 상실한 경우, 타 지역에서 어업을 한 경험이 있어 고양시 어업권을 양수해온 경우, 이직 또는 제2의 노후인생으로 어업을 선택한 경우 등 사연도 다양하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김훈 작가는 “대도시 옆에 수천 년 역사의 어촌마을과 어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다. 이곳 어





민들이 사라지면 큰일이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산 물줄기와 한강이 만나는 행주어촌의 존재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어민들은 29세 청년 어부부터 74세 노장 어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장년층 이상 어부들은 오랜 조업활동으로 허리디스크, 관절염, 근육 손상, 인대 파열 등의 고질적인 직업병을 앓고 있다.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계절별 어업에만 참여하고 농사를 짓거나 공사현장 일을 병행하면서 조업을 이어간다.

인천 물때에 맞춰 이뤄지는 조업활동은 만조와 간조 시간에 따라 다르며 주로 물이 약한 조금, 무시, 1물, 2물, 3물이 어부들이 고기 잡기 좋은 물때다. 물때는 보름 주기로 바뀌며 인천 밀물이 강화, 김포를 거쳐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에 들어오기까지는 1시간~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어부들은 물이 밀고 들어오는 이 세 시간 동안 봄철에는 주로 실뱀장어, 황복, 웅어를 잡고 가을철에는 뱀장어, 참게, 숭어, 붕어, 잉어, 메기 등의 민물 고기를 잡는다.



##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작품 배경지가 된 아름다운 경치 행주나루터의 풍광을 담은 ‘행호관어도’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행주산성 앞 한강의 풍광을 담은 ‘행호관어도’를 남겼다. 정선은 경교명승첩이라는 한양 주변의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첩을 남겼는데 총 33장의 그림 중



행주나루터 마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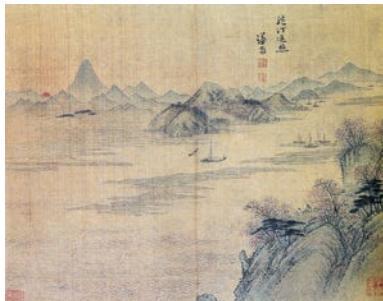
행주나루터의 풍광을 담은 '행호관어도'

에 20여 점이 한강을 주제로 삼은 그림이고 행호관어도가 이 중 하나다. 행호에서 고기 잡는 것을 살펴본다는 뜻으로 행호는 행주산성 앞 한강을 말한다. 한강물이 이곳에 이르면 물 흐름이 느려지고 강 폭이 넓어져 마치 호수와 같다고 하여 '행호'라 하였다. 아직도 어부들과 일부 주민들은 한강을 '행주강'이라고도 부른다.

행호관어도는 1741년 봄에 그려진 그림으로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서 바라본 행호의 고기 잡는 모습과 주변 산수를 담고 있다. 돛이 없는 작은 고깃배 14척에는 사람이 2~5명씩 타고 그물을 드리운 채 웅어나 황복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왼쪽 강변으로는 기암절벽의 돌방구지 행주나루터가 자리하고 있다.

그림 왼쪽에 사천 이병연이 쓴 시가 적혀있는데 정선과 사천은 시와 그림을 바꿔보는 친구사이였다고 한다.

春晚河腹羹춘만하복갱	늦봄이니 복어국이요
夏初葦魚膾하초위어회	초여름이니 웅어회라
桃花作漲來도화작창래	복사꽃 가득 떠내려 오면
網逸杏湖外망일행호외	어망을 행호 밖에서 잃겠구나



행주산성 용정마을에서 본 한강의 석양 '용정반조'

## 행주산성 용정마을에서 본 한강의 석양 '용정반조'

18세기 초 서울의 경관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정선은 '행호관어도'와 더불어 행주산성 덕양산에서 바라본 한강의 경치를 담은 '용정반조'도 그렸다. 복사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저녁 무렵 석양에 비친 한강 변의 모습을 그렸는데 절벽 위에서 앉아 한강의 낙조를 감상하는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제목 그대로 용정마을이다. 용정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일대를 부르는 옛 이름으로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의 남쪽을 말한다. 이들이 앉은 절벽 아래로는 한강 지류인 창릉천이 합류하게 된다.

붉은 저녁 해가 아스라이 지고 있는데 반조란 저녁 해의 햇살이 동쪽으로 되비친다는 말이다. 비단의 빛바랜 색과 은은하게 되비치는 석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옛 선조들이 풍류를 즐긴 22곳 누정과 별서가 있던 강가마을

한강 하구 행주산성의 행호 일대는 일찍이 유람 문화가 형성된 도성 가까이의 대표적인 휴양지였다. 특히 덕양산과 행호를 바라보며 들어선 누정과 별서는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읊은 시와 그림의 배경지가 되어 예부터 문화예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미 정착된 유명지였음을 짐작케 한다.

행호 일대에는 낙건정을 비롯한 22곳의 누정과 별서가 있었으니 행주나루터마을이 수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산업 교통 경제 무역 문물교류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내어주는 산과 강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수혜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옛 선조들이 풍류를 즐긴 22곳 누정과 별서가 있던 강가마을

##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1593년(선조 26년)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이끄는 2,300여 명의 관군과 의병, 승병, 여성들이 3만 왜군을 물리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민족의 성지이며 행주대첩의 전적지이다. 토성과 석성으로 이루어진 삼국시대의 성으로 부녀자들까지 앞치마에 돌을 날라 무기를 대신했다고 하여 ‘행주치마’의 유래도 전해진다. 김훈 작가는 “행주대첩은 부녀자들이 돌을 날라서 그 돌로 싸워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행주치마에 담긴 역사적 함의 가치는 신라 왕관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1970년 11월 1일 문화재관리국 행주산성관리소가 처음 문을 열면서 관리직으로 일한 강홍강 전 행주서원 원장(75)은 행주초등학교 3학년 때 나무로 만든 대첩비각을 그림으로 그려 상을 받은 기억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주산성 정화 성역화 사업으로 행주산성과 시정연수원에 있던 인가들이 지금의 서원촌과 맨돌마을로 이주했고 봄가을로는 하루 평균 3~4곳의 학교에서 소풍을 와 아침 10시 경 산성 위에서 바라보는 산성 아래 풍경은 학생들의 행렬로 먼지가 뽕얇게 장관을 이뤘다.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

## 행주산성 덕양산에 “굴이 두 개”

### 일본인들이 만든 ‘광산굴’, 원시시대 ‘자연굴’로 추정

행주산성 덕양산 일대에는 굴이 두 개 있다. 일본인들이 광산개발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용정굴과 절골굴 2곳이다. 행



행주산성 덕양산에 “굴이 두 개”  
일본인들이 만든 ‘광산굴’, 원시시대 ‘자연굴’로 추정

주누리길 팔각초소 전망대(귀심정)에서 산성 안으로 200m 떨어진 공동묘지 인근에 위치한 용정굴은 훼손되어 지금은 3m 길이의 작은 굴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일본인들이 광산개발을 위해 인위적으로 뚫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진강정 아래 강변으로부터 15m 지점에 위치한 절골굴은 높이 2m, 길이 20m의 비교적 깊고 큰 굴로 70~80년대에는 능곡과 외지에서 놀러오는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취사지이기도 했다. 절골굴은 비교적 덕양산 깊숙이 자리해 있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자연동굴일 가능성도 높다는 설도 있다. 이 두 굴은 오랜 세월 수풀에 뒤덮인 채 방치되면서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지금은 금단의 지역으로 남아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지만 무장공비가 한강에 침투하면 군인들이 강변의 동굴을 제일 먼저 순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행주산성관리소 근무 시절 강 원장은 절골굴에 7m정도 들어갔었고 오소리 사체를 확인하고 진입을 중단했었다.



한강에 쌓인 갯벌로 '두 번 자리 옮긴 행주양수장'

## 한강에 쌓인 갯벌로 '두 번 자리 옮긴 행주양수장' 옛 행주양수장 '제1터널' 첫 발견

능곡 일산 송포 지역에 물길을 내고 밥맛을 살려 옥토로 만든 행주양수장은 행주산성 있는 덕양산 자락 한강 변에 위치해 있다. 양곡 이가순 선생이 한강 물길을 고양시 평야로 끌어들이는 관개수로사업을 추진하고 수리조합이 설립되면서 양수장 역사가 시작됐다. 고양 파주 김포지역 농지와 일산열병합발전소에 물을 대주는 용수 공급 양수기반시설로 맨 처음 행주양수장이 들어선 곳은 지금의 덕양산 자락 한강 변. 그러다 한강에 갯벌이 쌓여 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1952년 돌방구지인 지금의 제이스하우스 Jay's Haus 카페(행주산성로 156번지·행주외동 212-5)로 이전했다. 미국 원조의 새로운 양수시설을 갖춰 30여 년 동안 용수 공급을 해오다가 이곳마저도 갯벌이 쌓이자 다시 원래의 자리인 덕양산 자락으로 돌아왔다. 강바닥에 갯벌이 쌓이면서 양수장을 옮기게 된 것인데 최근에는 원할한 용수 공급을 위해 갯벌 준설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제이스하우스 Jay's Haus 카페 지하실로 통하는 제1터널은 당시 행주양수장이 이곳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2017년 10월 26일 임정옥 전 행주어촌계장(63·전 행주외리 이장)의 안내



로 카페 지하실과 연결된 제1터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로 설계된 터널은 높이 3m 길이 30m의 원형 천장 구조로 비교적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카페 지하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었다.

강 원장에 따르면 당시 옛 행주양수장에는 2개의 터널이 있었는데 제1터널은 제이스하우스 Jay's Haus 카페, 제2터널은 밤나무집(행주산성로 124:행주외동 167-1)에 있었고 제1터널에는 '황파만리' 제2터널에는 '금생여수'라는 글씨가 굴 입구에 새겨져 있었다. 양수장을 신축할 당시 발파 전문 건축업을 하는 강 원장의 부친이 돌방구지 발파작업을 맡았었다.



## 한강이 범람하던 고양시 평야에 물길을 만든 독립운동가 '양곡이가순 송덕비'

양곡 이가순 선생은 3.1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며 농지개척사업으로 한강 물길을 이용해 고양시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해 가난한 농민을 구제한 관개수로사업가이다. 아들 이원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수로를 완성해 수리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을 설립, 훗날 사유재산인 수로를 온전히 국가에 헌납해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이가순 선생의 송덕비를 건립했고 현재 행주양수장 정문 오른 쪽에 자리해 있다.



한강이 범람하던 고양시 평야에 물길을 만든 독립운동가 '양곡이가순 송덕비'

이가순 선생이 관개수로사업을 시작해 물길과 밥맛을 살려 옥토를 이루자 지도 일산 송포 지역의 농민들이 큰 수혜를 입었다. 2009년 '올해의 자랑스런 고양인'으로 선정됐으며 2010년 12월 30일 양곡이가순송모사업회(회장 허준)이 호수공원에 송모비를 세웠다. 이가순 선생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트리오(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의 외조부이기도 하다.

##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행주성당과 행주교회

행주는 인천 제물포항과 서울 마포를 잇는 뱃길의 중간 기착지이면서 사람과 문물이 들고나는 번성한 포구마을이었다. 한강 뱃길을 오가는 서구문물들이 행주에서 머물면서 행주는 새로운 문물이 첫 발을 내딛는 기착지가 되었고 신흥종교의 선교와 신교육, 의료 등을 일찍이 접할 수 있는 도성 밖의 가장 번성한 마을이었다.

그런 이유로 일찍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소애촌마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행주성당과 행주교회



을에는 행주성당과 행주교회가 자리해 있다. 행주성당은 1910년에 지어진 한옥성당으로 의정부교구 소속 천주교회이다. 명동성당, 약현성당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천주교회이다. 성당 건물은 근대 초기의 목조 가구식 한옥으로 현존하는 천주교회 건축물로는 일곱 번째, 한옥 성당으로는 두 번째로 오래된 등록문화재 제455호이다.

또한 고양시 최초의 교회인 행주교회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명인 언더우드가 조선조 고종 27년인 1890년에 세운 네 번째 교회다.

## 행주산성역사공원 ‘DMZ 시작지점’ 평화누리길 4코스 행주나루길



행주산성역사공원 ‘DMZ 시작지점’ 평화누리길 4코스 행주나루길

행주는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행주산성 앞 한강의 풍광을 그린 ‘행호관어도’와 ‘용정반조’의 배경지이다. 행주나루터마을의 옛 모습을 재현한 행주산성역사공원은 DMZ 한강철책선이 시작된 곳, 일명 DMZ 토시土始이며 경기도 평화누리길 12코스 중 4코스에 해당하는 행주나루길이 시작되는 마을이다. 한강에서 고기를 잡는 마지막 도시어부들과 고양시의 대표적인 어촌마을 행주외동, 행주나루선착장의 어선들을 만날 수 있다.

평화누리길 4코스 행주나루길은 행주산성 앞 행주산성을 출발해 겸재 정선의 ‘행호관어도’ ‘용정반조’ 배경지인 덕양산과 한강, 풍경 좋은 강가마을 행주외동, 행주대교 아래 도시어부 33명의 고깃배 선착장 행주나루터, 행주대교와 김포대교를 잇는 하천부지 파밭 등의 역사 현장과 한강하구의 잔잔한 고요, 도시어부들의 생업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날공간이다.

## 조선 당대 최고 문인들 시비가 있는 시비공원

한강을 바라보는 행주산성역사공원에는 3개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문봉서원에 모셔져 있던 여덟 분의 선비, 고양현인 추장 남효온과 석탄 이신의, 조선의 시인 석주 권필의 시비가 선비의 고장답게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자리해 있다.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으로 이 곳에서는 선조들의 풍류와 문장을 감상할 수 있다.

## 생육신, 고양팔현 추강 남효온 시비

추강(秋江) 남효온 선생(1455~1492)은 문봉서원에 모셔진 고양팔현의 한 분이며 생육신 중 한 사람으로 호는 추강이며 시와 글을 잘 짓는 인물로 유명하다.

1478년, 그의 나이 24세이던 성균관 유생 신분으로 단종의 모후 현덕왕후의 소릉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 충신이며 김종직의 제자로서 끝까지 의를 지킨 인물로 알려진다. 훈구세력들로부터 ‘미친 선비’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육신전’을 저술해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다 현실에서 소외된 채 술과 시로 쓸쓸하게 생을 마쳐야 했다.

추강은 자신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금의 고양시 행주나루에 은거하며 강물을 벗 삼아 저술에 들어갔다. ‘가을의 강’이란 뜻의 추강(秋江)이란 호는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묘는 대장동에 있다가 지금은 김포시로 옮겼으며 이은만 전 고양문화원장이 시민 주도의 시비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강 남효온과 석주 권필의 시비를 한강 변 행주산성역사문화공원에 세웠다.



생육신, 고양팔현 추강 남효온 시비

## 조선 최고 시인 석주 권필 시비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의 제자이면서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석주 권필(1569~1612)은 1569년(선조 2년) 12월 26일 고양현 현석촌에서 아버지 권벽과 어머니 경주 정씨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평생 벼슬을 마다하고 강직한 선비의 자세로 짧은 44살의 생을 살다간 석주 권필은 아홉 살에 글을 지을 만큼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며 가난과 곤궁 속에서도 벼슬과 부귀영화에 욕심을 갖지 않고 예리하게 현실을 풍자했다. 한시에 있어 가장 뛰어난 인물로 우리나라 한시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스승이던 송강 정철이 유배 길에 오르는 것을 보고 한평생 벼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혹독한 가난과 곤궁 속에서도 높은 벼슬과 부귀영화 보기를 켜는 흥만도 못하게 여기며 꼴꼴한 자세로 시와 술을 벗 삼았다. 2008년에 ‘자랑스런 고양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 최고 시인 석주 권필 시비



행주대첩 의병장, 석탄 이신의 시비

## 행주대첩 의병장, 석탄 이신의 시비

석탄 이신의(1551~1627)는 고양의 대표적인 의병장, 정치가, 학자, 사상가이며 시인, 충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을 도와 행주대첩을 이루는데 공헌해 형조참판까지 지냈다. 광해군의 폭정에 항의해 귀양살이를 하다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석탄금(거문고)을 연주하며 지은 사우가를 남기기도 했다.

선생이 벼슬길을 사직하고 향촌 고양 도래울에서 학문에 열중하고 있던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들이 쳐들어오자 고양 지역에서 의병 300여 명을 일으켜 권율 장군과 김천일 장군을 도와 행주대첩의 신화를 이뤘다.

2012년 제7회 '자랑스러운 고양인' 선정되었으며 선생의 주요 유적지로는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도내동) 도래울 마을에 후손들이 세운 이신의 기념관(전시관)을 비롯해 고양시 문화재인 신도비, 묘소, 생가가 있고 영조 당시에 마을사람들이 세운 장대비(의장대)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명장 권율 장군을 기리기 위한 '행주서원'

조선 중기 문신이며 임진왜란 때 활약한 명장 권율 장군(1537~1599)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특히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 전투에서 3만의 왜군을 무찔렀다. 행주서원은 이곳에 장군을 모시는 건물이 없자 현종 8년(1842)에 왕의 명령으로 세웠다.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도원수와 선거이, 조정 등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으로서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건재했던 곳이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을축년 대홍수와 6·25 전쟁으로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보금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1960년 대에는 서원에서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장군

권율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장군이자 충신으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는 행주동의 행주산성 일대다. 권율 장군은 서울에서 태

어나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산들을 둘러보며 그 지세를 익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치성·독산성 등에서 적을 물리쳤고, 행주산성에서도 적은 병력으로 왜군을 크게 물리쳐 대첩(큰 승리)을 거두었다.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로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도원수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행주대첩의 공적 등으로 선무 1등 공신이 되었다. 묘는 양주시 장흥에 있다.

## 행호

행주산성 앞의 한강을 조선시대에는 행호라 부르기도 했다. 이곳을 행호라 한 것은 행주산성 인근으로 창릉천이 들어오면서 강폭이 넓어지고 물살이 약해 마치 호수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민들은 ‘행주강’이라고도 부른다.

## 위어소

행주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 특히 그 맛이 뛰어나 임금님께 진상하던 웅어는 행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웅어를 관리하기 위해 조선 말기 사옹원 소속의 위어소를 행주에 두었는데 특별히 4명의 관리를 따로 두어 웅어를 잡아 진상하게 했다. 웅어는 귀한만큼 맛도 좋아 인기가 많았으며 선배 어부들은 웅어를 잡아 번 돈으로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웅어 어획량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웅어잡이가 시들해졌지만 현재 일미정 식당이 당시 위어소가 있던 자리다.

## 석빙고

웅어를 보관하기 위해 정조 9년 1786년에 대형 냉동 창고인 석빙고를 행주에 설치했다. 겨울에 한강물이 얼면 얼음을 잘라 석빙고에 저장해 두었고 웅어잡이 철에 웅어를 보관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여름에는 서울이나 한강이북으로 가는 고깃배들이 어물이 상하지 않도록 석빙고에 들러 얼음을 채워가기도 했다. 석빙고는 당시 행주나루의 어획량과 수산물 거래가 얼마나 왕성하고 풍요로웠는지를 말해준다.

돌방구지(옛 행주나루터)가 지금의 행주가든 식당 자리이고 장수촌 식당 자리가 당시 석빙고 자리다.

##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 강물 높이를 재는 시설물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 강물 높이를 재는 시설물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인 방화대교 아래 행주산성과 이어지는 누리길에 있는 한강의 수위를 관측하던 시설. 철근콘크리트 우물통 형식의 관측소는 독립구조물로서 마치 등대와 같아 보여 어민들 사이에서는 등대로 불린다.

한강과 접한 창릉천 지류인 이곳은 수심이 낮아 새내기 어부들이 봄이면 족대로 실뱀장어를 잡는 장소이기도 하다. 저녁에 관측소 옆 창릉천 수중보 아래에 그물을 치면 다음 날 아침에 꽤 많은 양의 잉어와 붕어를 잡을 수가 있다.

## 전국 유일의 3.1 선상만세운동지



전국 유일의 3.1 선상만세운동지

기미년 행주나루선상만세운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개된 배 위에서 이뤄진 만세운동이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3월 11일 고양군 신도면, 벽제면, 지도면 일대에서 수백 명의 군중들도 만세를 불렀다. 또한 지도면 행주에서는 등불을 신호로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이 쫓아오면 배를 타고 강 하류로 내려가면서 만세를 불렀다. 이때 행주산성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옛날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일본 놈들이 망했으니 쫓아오면 망한다며 큰소리로 외치면 일본 헌병들이 체포하지 못했다고 한다.

행주나루터에서는 1919년 3월 11일, 24일, 28일 3차례에 걸쳐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국내 3.1운동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선상 만세 운동이다. 또한 일제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적극적인 항일 활동이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지부장 최영봉)가 2014년 고양파주지역 유적지답사를 하면서 행주나루에서 일제에 항거해 배 위에서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3·1 만세운동 선상 만세운동'을 복원, 재현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행주나루 어민들의 합심으로 2015년부터 매년 3월 '행주나루 선상 만세시위'로 재현되고 있다. 2015년에는 3월 28일, 2016년에는 3월 19일에 행주 어민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선상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선상 만세 운동을 재현하기 위해 행주 어민들은 배와 바지선을 동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3.1운동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 어촌마을의 풍속 ‘행주나루강풍어제’

농촌에서 풍년 기원제를 올리듯이 어촌에서는 어민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드린다. 옛날 행주나루 어촌마을에서는 강을 생활기반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풍물놀이와 무당을 불러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놀이굿을 병행한 대동놀이가 있었다.

바다가 아닌 내륙의 강이나 강변에서 하는 강풍어제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고양행주나루강풍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3일 고양들소리보존회(고양시향토무형문화재 제57호) 주관으로 재현됐다. 강풍어제는 행주어촌계 어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주산성역사공원에서 매년 재현되고 있다.



어촌마을의 풍속 ‘행주나루강풍어제’

## [팩트 체크]

### 돌방구지(옛 행주나루터) 기암절벽 일부 현존 확인

기암절벽인 돌방구지는 옛 행주나루터로 뱃사공이 멀리서 바위만 보고도 행주나루터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행주가든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식당 주차장 입구에 ‘행주나루터’ 표지석이 세워져있고 식당 입구에 기암절벽 돌방구지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09년 공소순방을 위해 돌방구지에서 배에 오르는 행주성당 초대 주임 김원영 신부(행주성당100년 이야기 저자 강종민 제공)



왼쪽 행주가든 주차장이 옛 행주나루터. 오른쪽 장수촌이 석빙고



옛 행주나루터 표지석



기암절벽 돌방구지의 일부가 남아있는 행주가든 식당.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Ⅲ 부 록

학술세미나 개최 현장 기록





## 2017 구리문화원 학술세미나 구리시 마을문화자원 활용방안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구리시체육관 세미나실

**발표**




1. 구리시 마을문화자원의 친승 현황  
- 박명섭(구리문화원 청토사연구소장)
2. 구리시 마을문화자원의 특성  
- 류영희(아주대학교 강사)
3. 마을문화자원 활용 사례 검토  
- 유주호(수원화성연구소 연구원)

**토론**  
신동영(유니카 한국영상예술협회장)  
윤승민(구리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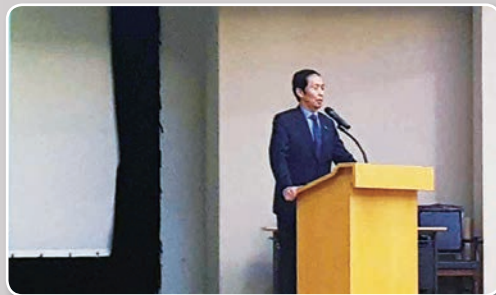
**진행**(120분)  
인사말씀 : 10분(축사 등)  
주제발표 : 60분(3명, 각 20분)  
중간휴식 : 10분  
종합토론 : 40분(2명, 각 20분)

**사회**  
이기만(역사만들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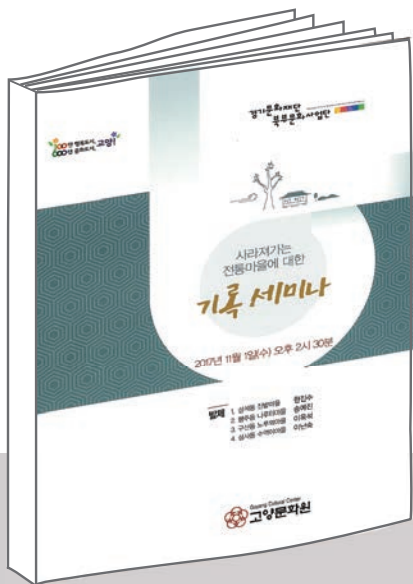
주최·주관 | 구리문화원  
후원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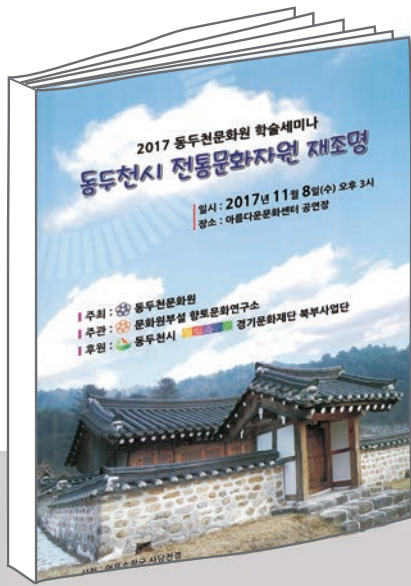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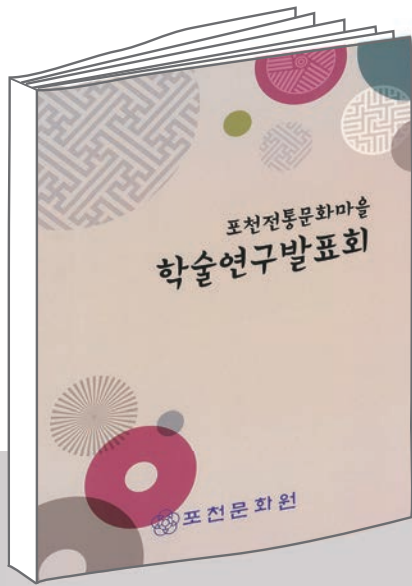














2017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발굴지원사업 기획회의의 현장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or drawing.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경기북부에서 전통문화를 발굴·기록하고 전승하는 방식 :

## 경기북부 마을찾기와 이해

- 기획/총괄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 북부 10개 시·군 문화원

- 학술세미나 주관

고양문화원 / 구리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연천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포천문화원

- 편집·진행

김지옥 (북부문화사업단 수석학예연구관)  
김지연 (북부문화사업단 연구원)

- 지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북부문화사업단 허윤희 (사업단장), 한창규 (차장)

- 사진 및 부록

발표자 / 김지옥

- 도움주신 분

경기북부지역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 발 행 일 : 2017. 12.

- 발 행 : 경기문화재단

- 발행기관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11772

- 인쇄 및 디자인

성심인쇄(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7번길 33  
T. 031 876 6011

※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